

ISSN 2733-564X

# 부부가족상담연구

제2권 제2호 (2021년 10월)

**KACFCS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 부부가족상담연구

제2권 제2호 (2021년 10월)

## 목 차

---

|                                                                                                                      |     |
|----------------------------------------------------------------------------------------------------------------------|-----|
| □ 중년기 부부친밀감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br>송경옥 · 정민자 .....                                                                          | 1   |
| □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br>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br>염화숙 · 천성문 .....                                | 23  |
| □ 전업모의 첫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br>박혜리 .....                                                                         | 41  |
| □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br>엄형준 · 박은아 .....                                                         | 55  |
| □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Functioning in Asian Countries<br>Kim, Hye Jin · Ko, Mei Ju · Oh, Jea Eun ..... | 69  |
| □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br>김민선 · 전순영 .....                                                     | 91  |
| □ 중학생의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관계: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br>장소천 .....                                                            | 107 |
| □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br>가족상담센터 방문 기혼자를 대상으로<br>진신남 · 신혜진 · 송은정 · 염화숙 .....                   | 123 |
| □ 국내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br>이지영 · 김현정 .....                                                                 | 139 |
| □ 성인기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br>정미영 · 하영윤 .....                                                           | 151 |

---



## 중년기 부부친밀감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송 경 욱\*\* 정 민 자\*\*\*

울산대학교

본 연구는 중년 부부가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하며, 그 과정 및 그들의 친밀감 형성 요소와 전략들을 분석하여 이론적 근거를 찾아내고, 부부친밀감 향상을 위한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로 40~64세 중년 부부를 선정하였고,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81개의 개념화, 40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분석결과, 중년 부부친밀감의 인과적 조건은 '내적 동기', '결혼을 선택', 맥락적 조건은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 '배려와 헌신', 중심현상은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 중재적 조건은 '성생활', '애정', 결과적으로는 '노력하는 부부', '이해하는 부부', '의지하는 부부'로 나타났다. 과정분석을 통하여 중년 부부의 친밀감 과정은 '보살핌의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대안찾기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로 분석되었으며,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년 부부의 결혼생활 동안 경험하는 친밀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년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중년기, 부부관계, 친밀감, 근거이론

\* 2021년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부임

\*\* 제1저자: 송경욱,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정학박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정민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Tel : 052-259-1488, E-mail : agnesnoel@hanmail.net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결혼 후 출산·육아가 대체적으로 끝나는 시기이며, 사회 구성원 자격과 역할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계층이다.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많다. 즉, 중년은 인간 발전의 다른 단계에 비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오태균, 2005). 중년이 되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성격이 부부 중심으로 변화한다. 남편이 부양자 역할을 하고 아내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등 바쁜 시기를 보냈던 자녀양육기를 지나고 중년이 되면 부부 모두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중년 부부의 개인적·외적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그 기대와 요구가 다를 때 부부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이동숙, 2006). 또한 현대 중년기는 이전 세대와 달리 다각화된 사회적인 역할로 가족구조의 다양성, 페미니즘 운동,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내·외부적인 변화들에 직면하면서 부부갈등과 이혼 등 중년기 부부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오제은, 2013).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위기의 경험은 중년기의 전환기적 취약성을 증폭시키며 중년기와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부부관계의 갈등과 관계의 질은 부부관계 자체뿐만 아니라 자녀·노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 내 다양한 관계 맥락들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김미라, 하영운, 2020).

오늘날 한국의 부부관계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황경애, 2001). 동반자적 부부관계로 시대가 바뀌는 가운데 중년기 부부도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년 부부를 주제로 한 연구 역시 적응이나 만족도보다는 친밀감에 대한 접근이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년기 부부의 친밀감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자료(2021)에 의하면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미만 이혼은 감소한 반면 20년 이상 이혼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은 전년대비 10.8% 증가, 10년 전에 비해 2.2배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 부부의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 이하 이혼이 1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연령은 여자 46.0세, 남자 49.4세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7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여자는 40대 초반이 8.6건, 남자는 40대 후반이 8.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결속력은 예전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 가족의 핵심체제인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부부의 결속력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중년기 부부관계는 전통적·제도적 부부관계에서 동반자적 부부관계로의 변화에 적응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밀접하며,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부부관계처럼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은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가족 상호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중년기 부부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가족을 형성하는 하위체제인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개인체계와도 역기능적인 체계가 되므로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부부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친밀한 부부관계의 특성과 친

밀감의 변화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년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경험하게 되는 친밀감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자 할 때, 심층면담을 통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부적 관점의 질적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연구과정은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 중 집단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적절한 이론이 없거나 기존 이론을 수정 또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다. 근거 이론은 개인의 행동과 사회현상이 항상 변화하고, 개별화되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동성, 김영천, 2012)이기 때문에 중년 부부의 부부친밀감 과정을 이해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중년 부부의 친밀감을 살펴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정 중심의 접근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이론적 민감성, 지속적인 비교방법, 자료 수집의 과정은 현상의 실제적 본질 및 그 현상의 과정과 내용 등을 범주화하여 분류하고 그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기에 유용하므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통해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실체이론을 명확히 하고 부부의 친밀감 수준 파악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부부친밀감을 강화하여 가족관계의 토대가 되는 부부관계를 위한 가족서비스 및 부부상담과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가족연구에서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년기 부부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연령에 의한 구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비거스트

(Havighurst, 1972)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정도와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물학적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인생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는데 30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한다. 에릭슨(Erickson, 1994)은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정체감 형성과 달성해야 하는 심리적 과업을 연결시켜 인생의 주기를 구분하면서 34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년기를 김명자(1989)는 40~59세, 이인정과 최해경(2004)은 성인기가 끝나는 40세에서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64세까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중년기를 노화가 시작되는 40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되는 65세 전인 64세까지로 설정하였다.

부부관계란 '서로 다른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의식 또는 제도에 의하여 경험하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이며, 생리적·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유영주, 김순옥, 김정신, 2010). 따라서 부부관계는 '다른 성장환경 속에서 성장한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사랑을 전제로 친밀한 결연관계를 맺고, 서로의 다양한 욕구를 기대하고 충족하면서 변화·성장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비혈연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년기 부부는 그동안 부부관계 패턴을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위해 부모역할, 자녀역할을 잘하기 위한 부모역할 중심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중년기 부부는 이 시기의 부부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부부관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부모·자녀역할 중심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는 부부관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년기 부부관계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전통적인 가부장적 수직적 관계로서가 아닌 함께 여생을 보낼 동료로서의 상호성에 근거한 관계, 동반자의 관계로 전환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이기석,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부 관계를 부부관계 중심의 동반자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 중년기 부부친밀감의 연구동향

중년기 부부는 부부 간의 감정표현과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누고 배우자와 이해하고 수용하는 관계성장이 필요하다(박남숙, 2000). 부부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수용, 배려,

존중, 지지의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김유정, 2009). 부부관계의 정서적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결과이다(변선아, 2009). 또한 중년기 부부관계는 건강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통한 친밀감과 평등한 가치관을 나누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개선이 요구된다(김경진, 2011; 신계수, 조성숙, 2011).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부친밀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부친밀감 관련 선행연구

| 구분   | 주제                                                                                                               | 저자            | 연도   | 비고    |
|------|------------------------------------------------------------------------------------------------------------------|---------------|------|-------|
| 주제   | 부부간 친밀감척도 개발                                                                                                     | 이경희           | 1995 | 학술지   |
| 연구결과 | 부부 간 친밀감 개념에 대한 요소 규명 및 척도 구성                                                                                    |               |      |       |
| 주제   | 갈등, 친밀감, 부부관계유형                                                                                                  | 이경희           | 1998 | 박사 논문 |
| 연구결과 | 부부관계유형별 특성에 따라 친밀감 추구형, 친밀형, 포기형, 갈등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 긍정적 상호작용 및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순서임 |               |      |       |
| 주제   | 부모의 부부갈등, 원가족 분화, 부부친밀감, 결혼안정성                                                                                   | 이영희, 이윤주      | 2011 | 학술지   |
| 연구결과 |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 개인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며, 부부관계에서도 기능하게 되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안정성과 불안정성으로 나타남                     |               |      |       |
| 주제   | 원가족 분화 경험, 자아분화, 부부갈등대처행동, 부부친밀감                                                                                 | 유희남, 김영희      | 2011 | 학술지   |
| 연구결과 |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을 매개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인지적, 정서적, 성적 부부친밀감에 따라 밝힘                                 |               |      |       |
| 주제   | 원가족 경험, 부부친밀감, 부모-자녀관계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 2011 | 학술지   |
| 연구결과 | 원가족 경험과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자녀에게 미래의 원가족 경험이 되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족관계의 중요성 밝힘             |               |      |       |
| 주제   | 마음챙김, 일치성, 부부친밀감                                                                                                 | 김승욱, 정혜정      | 2013 | 학술지   |
| 연구결과 | 마음챙김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음                                                                            |               |      |       |
| 주제   |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 노화불안                                                                                              | 임재연, 김지현      | 2014 | 학술지   |
| 연구결과 | 부부친밀감은 자녀 애착 회피와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 애착 회피는 부부친밀감이 노화불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함                                  |               |      |       |
| 주제   | 원가족 건강성, 부부친밀감                                                                                                   | 박수진, 이인수      | 2015 | 학술지   |
| 연구결과 | 각 개인이 지각하는 원가족 건강성이 자신의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방의 원가족 건강성은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                          |               |      |       |
| 주제   | 부부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부부친밀감, 자기-상대방 효과                                                                               | 정은정, 서미아      | 2020 | 학술지   |
| 연구결과 | 부부 모두 불안애착의 경우 부부친밀감에 대한 남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유의미하고, 부부 모두 회피애착인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유의미함                    |               |      |       |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친밀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친밀감, 배우자에 대한 수용, 배려, 존중 등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함 등을 밝히고 부부관계의 친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삶 안에서 중년 부부의 친밀감이 어떠한지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년 부부의 결혼생활동안의 친밀감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실제적인 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 구분    | 성별 | 연령 | 학력          | 결혼기간 | 결혼<br>형태 | 자녀        | 첫째 자녀<br>출산시기 | 종교  | 배우자와<br>침실사용 |
|-------|----|----|-------------|------|----------|-----------|---------------|-----|--------------|
| 참여자1  | 여  | 50 | 대졸          | 25년  | 연애혼      | 아들2       | 1~2년이내        | 불교  | 같은방          |
| 참여자2  | 여  | 58 | 대학원<br>(석사) | 32년  | 중매혼      | 아들3       | 1~2년이내        | 무교  | 각방           |
| 참여자3  | 여  | 46 | 대학원<br>(석사) | 22년  | 연애혼      | 딸2        | 1~2년이내        | 불교  | 같은방          |
| 참여자4  | 여  | 46 | 대학원<br>(석사) | 19년  | 연애혼      | 아들1<br>딸1 | 1~2년이내        | 불교  | 같은방          |
| 참여자5  | 남  | 55 | 대졸          | 25년  | 연애혼      | 아들1<br>딸1 | 2~3년이내        | 천주교 | 같은방          |
| 참여자6  | 여  | 58 | 대학원<br>(석사) | 25년  | 중매혼      | 아들2       | 2~3년이내        | 기타  | 각방           |
| 참여자7  | 여  | 56 | 대졸          | 32년  | 연애혼      | 딸2        | 3~5년이내        | 천주교 | 같은방          |
| 참여자8  | 여  | 48 | 대학원<br>(석사) | 25년  | 연애혼      | 딸1<br>아들1 | 2~3년이내        | 개신교 | 같은방          |
| 참여자9  | 남  | 49 | 고졸          | 25년  | 연애혼      | 딸1<br>아들1 | 2~3년이내        | 개신교 | 같은방          |
| 참여자10 | 여  | 49 | 대학원<br>(석사) | 26년  | 연애혼      | 아들2       | 1~2년이내        | 개신교 | 같은방          |
| 참여자11 | 남  | 53 | 전문대졸        | 26년  | 연애혼      | 아들2       | 1~2년이내        | 개신교 | 같은방          |
| 참여자12 | 여  | 43 | 대졸          | 18년  | 연애혼      | 딸2        | 1~2년이내        | 무교  | 기타           |
| 참여자13 | 남  | 48 | 대학원<br>(석사) | 18년  | 연애혼      | 딸2        | 1~2년이내        | 천주교 | 기타           |
| 참여자14 | 여  | 48 | 대학원<br>(석사) | 21년  | 절충혼      | 아들2       | 1~2년이내        | 무교  | 같은방          |
| 참여자15 | 남  | 47 | 대졸          | 24년  | 연애혼      | 아들3<br>딸1 | 2~3년이내        | 개신교 | 같은방          |
| 참여자16 | 여  | 47 | 대학원<br>(석사) | 24년  | 연애혼      | 아들3<br>딸1 | 2~3년이내        | 개신교 | 같은방          |
| 참여자17 | 여  | 47 | 대학원<br>(석사) | 18년  | 연애혼      | 아들1<br>딸1 | 1~2년이내        | 무교  | 각방           |

## 방 법

### 연구참여자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타당성과 깊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절차이고 적절성과 충분성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적절성은 연구에 정보를 적합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으며, 연구목적에 설명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수집하는 것으

로 충분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문지은, 2015).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다른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목적에 적합한가를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게 확인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년기 시작 시점인 40세에서 노년기 시작 이전인 64세의 기혼자를 중심으로 하며 연구자료의 충분성을 위해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수집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범주들이 포화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총 17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참여자들의 배경은 대부분 청소년기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업주부도 있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연구되어온 중년기 부부친밀감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나 결혼만족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아닌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결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이 경험한 부부친밀감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자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단계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면담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부부친밀감의 개념을 고찰하고 부부 친밀감 연구인 조원덕(2013), 김선화(2012)의 연구 논문을 살핀 뒤 경험의 현상과 의미 및 개방적 질문 등으로 질문지를 구성, 전체 목록을 형성(2020. 1.)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전

문가 1인의 평가(2020. 1.)를 통해 1차 수정을 하여 지도교수에게 검토(2020. 9.)를 받아 2차 수정(2021. 3.)을 하였다. 그 후 예비연구(2021. 3.)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은 개방적 질문으로 실시하였다. 작성된 면담 질문지에 따라 처음에는 개방적인 질문을 하고, 이후 각 참여자에 맞게 참여자가 말하지 않는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추가 질문들을 하며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후 전문가 감수를 다시 실시하여 3차 수정(2021. 3.)을 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드러나는 질문목록들을 추가하여 4차 수정(2021. 3.)분을 질문목록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 후 수정된 질문 목록으로 심층 인터뷰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들과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4월이며 면담시간은 1회당 90분~120분 내외로 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 면담 전 연구의 목적, 주제, 인터뷰 내용, 녹음 및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참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및 익명성, 연구 종료 후 자료폐기,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등 연구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이에 동의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질문과 관련해 초기 면담시 연구참여자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연구자와의 라포형성을 위한 일상적 질문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연구목적과 관련한 질문으로 초점화시켜 나갔다. 또한 면담시 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등 비언어적 반응을 관찰하여 필드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내용분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취하였으며, 녹취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를 필사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개방형 코딩방법을 사용하면서 QSR International에서 개발한 질적 자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NVivo R1을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를 통해 수집된 질적자료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적 텍스트 자료이고, 분석할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에 전통적인 카드 분류법으로는 분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를 도출하고 반복적 개념의 유형과 사고를 발견하게 된다. 이후 발견된 유형과 사고를 요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으로 특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NVivo R1은 자료의 관리와 탐색을 용이하게 하고 코딩과 분석 및 자료의 변화 내용분석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NVivo R1에서 코딩의 단위는 단어, 구, 절 및 연구자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NVivo R1에서 자료 분석 과정은 수많은 하위 범주 위에 상위 범주로 그 숫자가 작아져 가는 것이다(박종원, 2020). 채혜성 외 2명(2017)은 국가기관의 공모전에 출품된 6차 산업화 농특산물 41점을 대상으로 전문가 5인이 기술한 평가의견과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1을 활용하여 6차 산업화 농특산물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영림과 이권철(2020)은 5개년 동안 보도된 실종 관련 기사를 NVivo 12로 분석하여 외부 일반 사회의 시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실종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 또는 비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종 초기대응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수영과 임순연(2014)은 노인 유사체험 후 노인에 관한 생각이나 태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NVivo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주관적인 응답을 토대로 단어 나무와 단어 빈도를 파악하였다. 이처럼 NVivo 프로그램은 많은 질적 연구자들이 인터뷰, 개방형 설문조

사 응답, 언론 기사, 소셜 미디어 및 웹 콘텐츠, 서면 자료 등과 같은 비정형 또는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NVivo 프로그램은 많은 질적 연구자들이 인터뷰, 개방형 설문조사 응답, 언론 기사, 소셜 미디어 및 웹 콘텐츠, 서면 자료 등과 같은 비정형 또는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은 한글(HWP)파일로 저장되었는데 NVivo R1이 이를 불러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한글(hwp) 파일은 워드(docx) 파일로 전환하여 NVivo R1에 저장 후, 세부내용을 읽으며 코딩하였다. 자료를 읽으며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문장, 단락들을 하나의 주제로 요약하여 코드(code)를 구성하였으며 생성된 코드를 통하여 원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중년기 부부친밀감의 요인과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1)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 적용성(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 4가지 기준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적용하였다.

첫 번째, 사실적 가치는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상을 얼마나 충실하고 생생하게 서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유순희, 2017). 연구자는 사실적 자료를 얻기 위해 참여자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참여자가 체험하고 느낀 사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자이며 가족 상담사인 1명과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고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보다 깊이 개방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판단중지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일관성은 연구가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가 동일한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뢰도와 유사한 의미이다.

질적연구는 경험의 다양성이 추구되므로 본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고 연구자의 시각, 자료, 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 일관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정기적인 지도를 받고, 가족상담사 1인과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2명의 조언을 받으면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계속하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 번째,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외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중년기 부부친밀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부부친밀감의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이론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질적 연구 전문가인 지도교수로부터 적용 가능성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네 번째, 중립성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 모든 편견이 배제되는 것으로, 특정시각과 의도된 결과를 위해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Lincoln & Guba(1981)는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은 사실적 가치와 일관성, 적용성이 충족될시 획득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개방적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여 참여자들이 경험한 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년기 부부에 대한 개인사적 경험이 연구결과에 편향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감찰과 동시에 본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각하기, 연구절차 따르기의 과정을 통해 중립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부분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본질적 목적과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충분히 전달하고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한다고 알리며 신뢰를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편한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 후 심층면담경험이 풍부한 질적 연구자의 조언을 받아 면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연구방법에 대한 교재를 읽으며 공부하였으며,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조언을 얻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알려준 대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녹음된 면접 내용을 전사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정항목으로 표시하였다. 녹취된 파일 이름도 연구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 결 과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녹취된 심층 면담 원 자료를 전사한 후 중년 부부로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의미 단위를 발견하였다. 이에 친밀감 요인에 대해서는 기본적 개념화와 이론적 개념화 단계를 실시하였으며,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개념을 도출하고 분석 처리하여 개방코딩하였다.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NVivo R1 프로그램 결과 분석대상 단어에 대한 연관 단어를 보여주는 Word Cloud와 연결어를 보여주는 Word Tree로 확인할 수 있었다. Word Cloud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부부친밀감 관련 연관단어는 '부부친밀감'을 포함하여 '의사소통과 지지', '정서적 교류', '신뢰', '가치관', '성적 친밀감', '경제력', '자율성' 등이 있다. Word Cloud 분석결과를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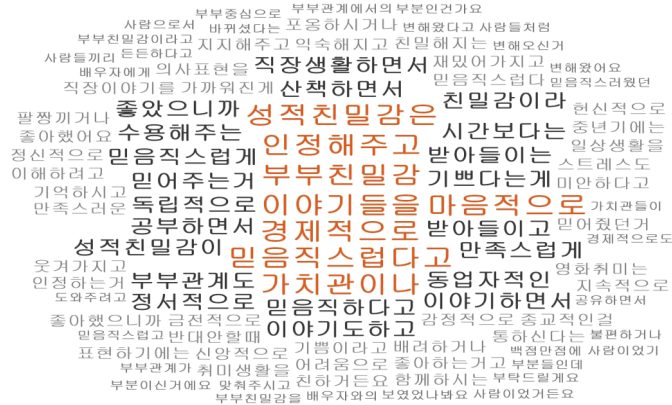


그림 1. 부부친밀감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Word Tree 분석을 시행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연결가능한 다양한 연결어가 도출되었다. 친밀에 대한 연결어는 ‘감정을 나누는~’, ‘같은 곳을 바라 보는~’, ‘헌신과 배려’, ‘돌봐주고 할 때~’,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의 감정을 읽는 것~’, ‘수용해 주는 사람~’ 등이 도출되었다.

### 개념 범주화 및 패러다임 요소

본 연구는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근거로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의 자료 분석과정을 거쳐 표 4와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NVivo R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거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총 181개의 개념어가 도출되었고, 개념 중에서 유사하거나 공통된 항목을 묶어 40개의 범주로 도출하였으며, 하위범주 중에서 공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살아왔어도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이런 힘든 부분을 짐사람이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뭐 좋은거 같네요. [참여자5]

내가 먼저 표현을 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나는 이제 그걸 바랬고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얼마나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었을텐데....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을 안해줘서 좀 섭섭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표현을 좀 더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3]

그 사람 자체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안써. 나하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딱 차 바꾸는 거 밖에 없고 정말 뭐 겹멋도 안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난 참 억울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없이 그런 거 보니까 인간적인 연민과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잘해 줘요. [참여자6]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의 있는 감춤없이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하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꺼리낌 없는 거잖아요. 잘 맞거든요. 그게 친밀한거지. [참여자10]

부부이긴 하지만 내 걸 충분히 즐기고 있고 남편에게도 충분히 본인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나 함께 해야 되는 순간 있으면 충분히 그 거기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자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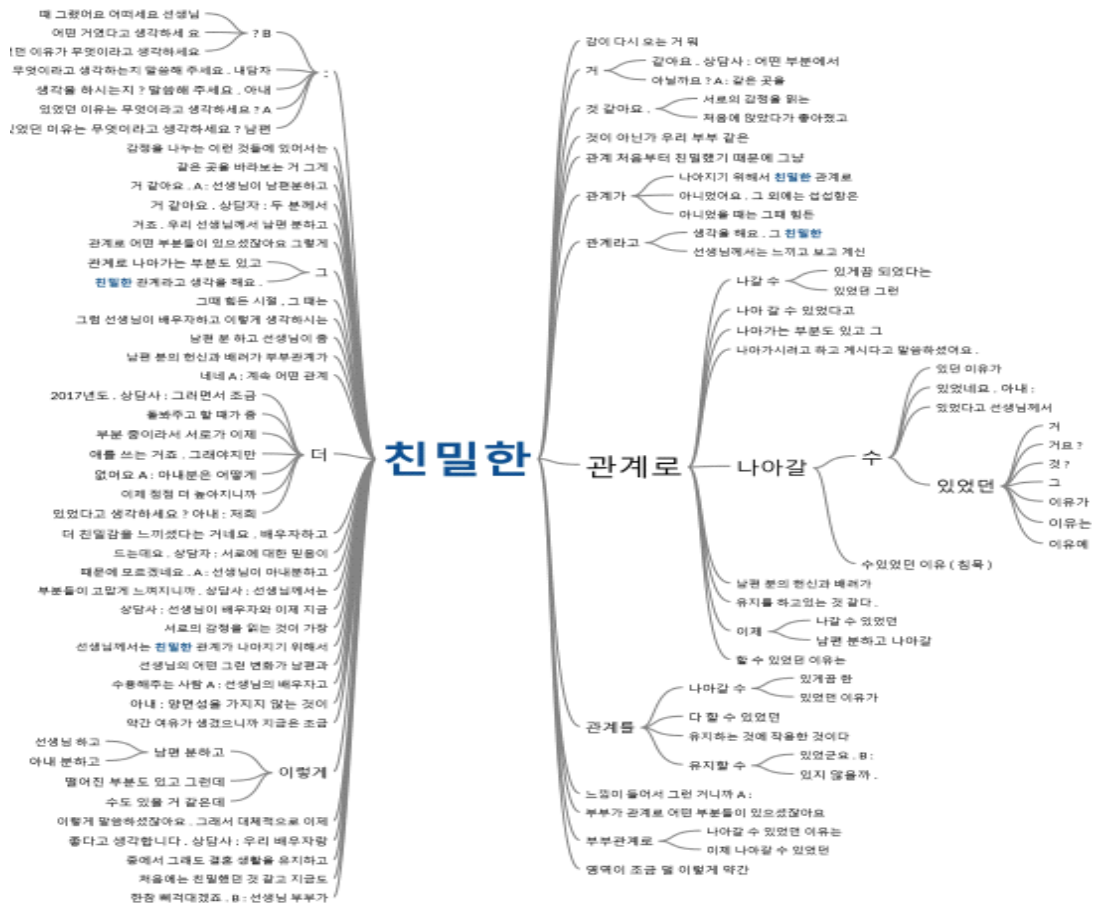


그림 2. 부부친밀감에 대한 Word Tree 분석 결과

## 축코딩

축 코딩은 개방코딩의 연장으로 개방코딩 동안에 발견되는 범주들과 하위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들의 변화와 과정의 증거를 찾는 과정을 말한다. 축코딩을 바탕으로 범주들의 논리적, 실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한다. Strauss & Corbin(1998)에 따르면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분류하고 이들이 중심현상을 축으로 하여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 1)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범주 분석

개방코딩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간의 관련성을 축코딩 과정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3은 패러다임을 도식화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나 촉진시키는 일과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Strauss & Corbin, 1998). 원자료의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라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조건은 '내적 동기', '결

표 4. NVivo R1 분석 결과

| 하위범주 (N=응답자수)      | 상위범주(N=응답자수)    | 패러다임            |
|--------------------|-----------------|-----------------|
| 매력을 느껴 가까워짐 (N=17) | 내적 동기 (N=17)    | 인과적 조건          |
| 결혼을 결정함 (N=17)     | 결혼을 선택 (N=17)   |                 |
| 나에게 잘해줌 (N=12)     | 배려와 헌신 (N=17)   |                 |
| 서로 의지함 (N=11)      |                 |                 |
| 과감한 포기 (N=7)       |                 |                 |
| 인생관 (N=7)          | 공통된 가치관 (N=11)  | 맥락적 조건          |
| 공통된 가치성향 (N=5)     |                 |                 |
| 신앙관 (N=5)          |                 |                 |
| 사회적 가치 (N=3)       | 경제력 (N=8)       |                 |
| 경제적 안정 (N=8)       |                 |                 |
| 수용받는 대화 (N=12)     |                 |                 |
| 일상적인 대화 (N=11)     | 의사소통과 지지 (N=17) |                 |
| 자기를 개방 (N=8)       |                 |                 |
| 배우자에 대한 믿음 (N=14)  |                 | 신뢰 (N=17)       |
| 긍정적 사고 (N=7)       |                 |                 |
| 내편이 되어주는 남편 (N=5)  |                 |                 |
| 신체적 건강함 (N=1)      |                 | 중심현상            |
|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N=11) |                 |                 |
| 긍정적 정서 (N=8)       |                 |                 |
|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함 (N=7) | 정서적 교류 (N=17)   |                 |
| 위로받는 마음 (N=6)      |                 |                 |
| 함께 아파함 (N=5)       |                 |                 |
| 정서적으로 깊어짐 (N=5)    |                 |                 |
| 자녀에 대한 마음 (N=3)    |                 |                 |
| 만족되는 성 (N=10)      |                 |                 |
| 스킨십 (N=9)          | 성생활 (N=13)      | 중재적 조건          |
| 서로를 사랑함 (N=7)      | 애정 (N=7)        |                 |
| 지속되는 이성애 (N=3)     |                 |                 |
| 같은 취미를 공유함 (N=11)  |                 | 함께하고 싶어함 (N=17) |
| 함께하는 시간 (N=15)     |                 |                 |
| 서로를 인정함 (N=10)     | 서로를 인정함 (N=13)  |                 |
| 서로를 알아감 (N=7)      |                 |                 |
| 자유로워짐 (N=8)        |                 | 자율성 (N=8)       |
| 갈등해소 (N=9)         | 이해하는 부부 (N=13)  |                 |
| 배우자에 대한 이해 (N=7)   |                 |                 |
|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N=4) |                 |                 |
| 행복을 위한 노력 (N=6)    |                 | 결과              |
| 지금처럼 함께 (N=6)      |                 |                 |
| 나를 위해주는 배우자 (N=3)  |                 |                 |
| 서로를 위로함 (N=5)      | 의지하는 부부 (N=5)   |                 |

혼을 선택'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처음 만난 후 만남을 지속하면서 나에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잘 챙겨주며 공통 관심사가 많아 즐겁고 유쾌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나의 단점을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인 '내적 동기'에 대한 속성은 [정도] 면에서 '강함'과 '약함'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결혼을 선택'에 대한 속성은 [수준] 면에서 '결정과 '이상적' 차원으로, '경제력'의 속성은 [능력수준] 면에서 '충분함'과 '부족함'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중심현상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중심적인 생각이나 사건으로서 '여기서 관심의 주된 문제는 무엇이고 경험은 무엇인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8). 참여자들은 행복을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다양한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통된 가치관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 등을 통해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은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이다. '의사소통과 지지'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자

기를 개방', '수용받는 대화', '일상적인 대화'로 드러났으며, '신뢰'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배우자에 대한 믿음', '긍정적 사고' '내편이 되어주는 남편', '신체적 건강함'으로, '정서적 교류'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긍정적 정서',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현상인 '의사소통과 지지'에 대한 속성은 [지속성] 면에서 '일시적'과 '지속적' 차원으로 구분되었고, '신뢰'에 대한 속성은 [지속성] 면에서 '일시적'과 '지속적' 차원으로, '정서적 교류'에 대한 속성은 [정도] 면에서 '큼'과 '작음'으로 구분되었다.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특정 속성인 중심현상의 속성을 생성하는 조건들의 집합이다. 즉, 어떤 현상에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건이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준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배려와 헌신',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이 중심현상인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을 살펴보면 '배려와 헌신' 속성은 [지속성] 면에서 '일시적'과 '지속적' 차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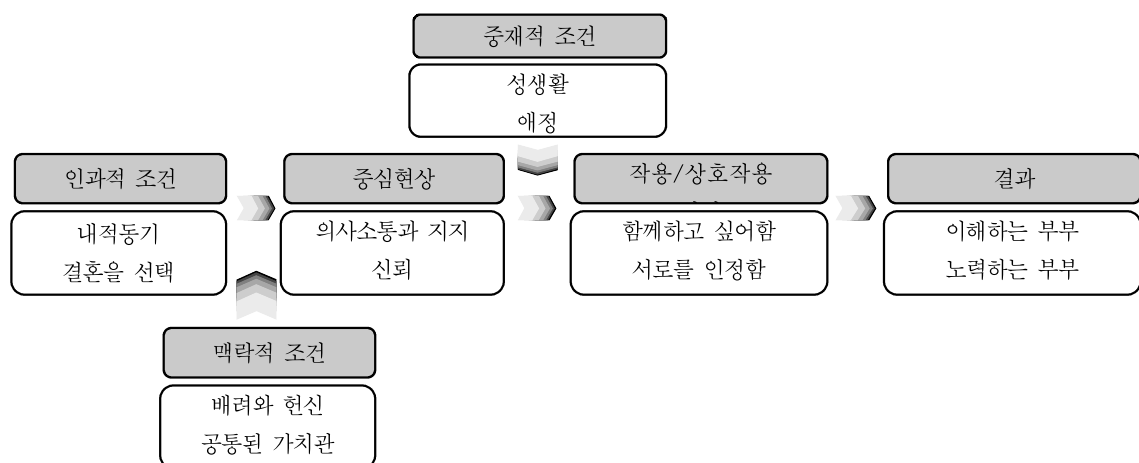


그림 3. 중년 부부의 친밀감 패러다임 모형

‘공동된 가치관’ 속성은 [본질] 면에서 ‘현실적’과 ‘이상적’ 차원으로, ‘경제력’의 속성은 [능력수준] 면에서 ‘충분함’과 ‘부족함’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중재적 조건은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 대해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장려하거나 강요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의 영향을 변화시켜 현상의 영향을 완화한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성생활’, ‘애정’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로 나타났다. ‘성생활’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많음’과 ‘적음’ 차원으로, ‘애정’의 속성은 [수준]에 따라 ‘충분함’과 ‘부족함’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목표 지향적이며 현상이 맥락적 조건과 특정한 조건 하에서 나타는 것처럼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한 것이다. 즉 현상에 대하여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서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의 전략으로 부부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함께하고 싶어함’은 배우자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부부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전략으로 활용되었고, ‘서로를 인정함’은 배우자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친밀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범주들은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판단되어 상정하였다.

‘함께하고 싶어함’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 차원으로, ‘서로를 인정함’의 속성은 [태도] 면에서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자율성’의 속성은 [태도] 면에서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산물

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의사소통과 지지’, ‘배우자를 믿음’, ‘정서를 교류함’이라는 현상이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이라는 전략을 수행한 결과, ‘이해하는 부부’, ‘노력하는 부부’, ‘의지하는 부부’라는 결과로 발전했다. ‘이해하는 부부’의 속성은 [태도]에 따라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노력하는 부부’의 속성은 [지속성]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 차원으로, ‘의지하는 부부’ 속성은 [인식정도] 면에서 ‘뚜렷함’과 ‘미약함’으로 구분되었다.

## 2) 과정분석

참여자들은 인과적 조건의 ‘내적동기’로 배우자와 ‘결혼을 선택’하였고 ‘배려와 헌신’으로 범주화한 나에게 잘해주고 서로 의지하며, 때로는 과감한 포기를 하고 ‘공동된 가치관’으로 범주화한 공동된 가치성향과 인생관, 사회적 가치, 신앙관과 ‘경제력’으로 범주화한 ‘경제적 안정’을 느끼며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가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느끼는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부부 간의 노력으로 보여지는 바 ‘보살핌의 단계’로 명명하였다.

중심현상인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는 참여자들이 배우자에게 자기를 개방하고 수용받는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배우자를 신뢰함으로써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서 친밀함을 느끼게 되면서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로 보았다.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한 참여자는 서로를 사랑하고 만족되는 성생활을 위해 서로 노력하였고 서로를 알아가고 인정하기 위해 함께하고 싶어 하였으며,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더 키워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대안찾기단계’라고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배우자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안쓰럽게 생각하였으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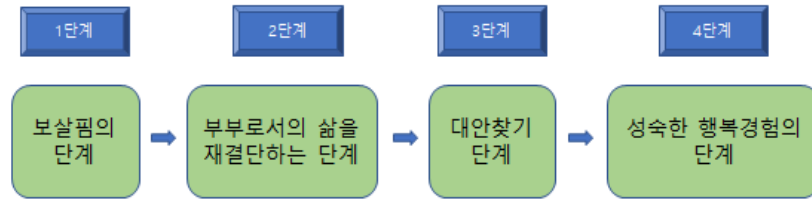


그림 4.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과정분석 모형

로를 위로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단계를 ‘성숙한 행복경험의 단계’라고 구분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 인과적 조건인 ‘내적동기’, ‘결혼을 선택’을 통해 결혼생활동안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가 중심현상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맥락적 조건인 ‘배려와 헌신’,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생활’, ‘애정’이 중재적 조건으로써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었으며,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활용되어 ‘이해하는 부부’, ‘노력하는 부부’, ‘의지하는 부부’의 결과로 발전하여 친밀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순차적 과정으로 분석한 결과 ‘보살핌의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대안찾기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 총 4단계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중년 부부가 친밀감을 경험하며 결혼생활동안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갈등을 해소하며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감이 결혼생활기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부부친밀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고 사료된다.

## 선택코딩

본 연구는 핵심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16개의 상위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적용해 보고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였다. 핵심범주는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이야기 윤곽은 연구에 참여한 중년 부부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친밀감에 대해 전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 1) 핵심범주

본 연구에서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 가능한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로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야기 윤곽을 개념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적인 문장으로 만들었다.

### ◎ 핵심범주 :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

참여자들은 배우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배려나 공통된 가치관 등으로 결혼을 선택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부부갈등 등 다양한 내용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자녀 성장기를 거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표 5.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 개념                               | 속성 | 차원    |
|----------------------------------|----|-------|
|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 | 정도 | 강함-약함 |

두터워졌고 서로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우자에 대해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는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제시하였다.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표 5와 같다.

## 2) 이야기 윤곽 전개

이야기 윤곽(story line)은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와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각 범주 간의 관계를 서술적인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나타난 부부친밀감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범주를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다가온 배우자를 만날수록 성실하고 진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화하고 변함없는 성품과 일관된 행동과 태도로 신뢰를 쌓았으며 그것이 상대에 대한 매력으로 작용하면서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결혼 전에 배우자의 매력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삶의 과정에서 장애물로 나타났고 상대방의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자녀양육기에는 자녀를 키우는데 집중하게 되고 자녀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후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 수용하고 배려해주며 챙겨주고 챙김을 받는 행동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아플 때 내 곁

에서 돌봐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며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 힘이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움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여러 외부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부부친밀감이었다.

부부관계가 더욱 견고해진 부부는 애정을 주고 받으며 배우자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후회하지 않도록 배우자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서로를 측은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니 배우자가 자신의 인생을 함께 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어 두 사람의 애정적 관계는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입장과 인격을 존중하여 상대방을 수용하고 인정해줌으로서 부부관계의 역할 적응과 인격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부친밀감에 대해 노력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변화를 보였다. 부부 간의 깊은 대화와 관심에 대한 의지적 실천의 필요성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배우자와 동반자적인 관계가 부부친밀감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지한 참여자들은 삶에서 동료애의 의지를 통해 배우자와 깊은 우정을 실천하는 친밀감을 향상시켰다.

이상에서 중년 부부들은 헌신, 애정, 경제력, 의사소통, 성생활, 갈등해소, 신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부친밀감이 형성 및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을 때 부부는 안정되고 친밀함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중년 부부는 어려

움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부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중년 부부가 결혼 생활동안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변화 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 이며 친밀한 부부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은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파악되었다. 본 장에서 연구결과를 통해 발견된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를 교류함'이었으며 인과적 조건은 '내적 동기', '결혼을 선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위범주에는 '매력을 느껴 가까워짐', '결혼을 선택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결혼생활 동안 나타난 친밀감 요인 및 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살핌의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대안찾기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인 4단계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행동변화와 연속성을 나타냈다. 분석과정은 근거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나타난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을 살펴보고, 중재적 조건인 '성생활', '애정'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구조와 과정을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을 통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년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의사소통이며, 정서적 친밀감은 부부의사소통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부의사소통이 큰 영향력이 차지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어졌고, 그로 인해 정서적, 성적, 인지적 밀접함이 커지고, 헌신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윤인지(2016)의 부부친밀감에 자기개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와 윤미혜와 신희천(2009)의 친밀감이 일상사건을 통해 발달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김시양(2017)의 연구결과에서 부부친밀감에 긍정적인 자기개방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 모두 부부가 대화하는 것으로 친밀감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클수록 부부친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참여자들이 친밀하게 느끼게 되는 '지지'는 Johnson(2006)의 친밀감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세상과 타인에 대해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김진아(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은 성적으로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원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그 말도 할 수 있었다. 박민지(2006)는 성적 자기 의사 결정권이 부부관계에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부부관계에서 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였고, 양진선(2004)의 배우자와 함께 느끼고, 긍정적인 밀접함으로도 친밀하다고 느끼며, Timmerman(1991)의 배우자와 관계에서 수용과 이해를 주고 받으며 배우자에게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참여자들의 추억이 쌓일수록 더 친밀감을 높게 느끼는 경험은 김복곤(2001)과 김미라(2001)의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할수록 친밀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취미나 가치관이 일치할수록 더 자연스럽고 삶이 더 깊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경성, 한덕웅(2003)의 부부가 정서적으로 유사할수록 서로 지내면서 친밀감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년 부부의 친밀감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상황과 전략 수준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전환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부친밀감이 결혼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친밀감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중년 부부의 친밀감 수준은 서로의 노력을 통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을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은 단선형이 아닌 상호작용하면서 순환하며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과 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년 부부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부친밀감을 알 수 있었다.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이런 부부친밀감이 없이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참여자들은 부부친밀감의 의미가 삶을 함께하는 이유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활력소, 자신감의 원천, 행복자체라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이며 가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Gottman(1995)은 부부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민감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부부의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혼 예측의 정확도가 95%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에 따

라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면 부부친밀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은 중년 부부의 부부친밀감을 촉진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체계 활성화는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 부부를 위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가족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 중년 부부가 행복한 부부의 삶을 영위하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친밀감이다. 특히 부부친밀감의 요소인 ‘공동된 가치관’, ‘경제력’, ‘배려와 헌신’,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 ‘성생활’, ‘애정’,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은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각각의 과정은 진보와 퇴행을 반복하면서 나아가고 부부관계는 단계가 되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완성해가는 진행형의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가족서비스, 가족연구 분야에서 부부들의 갈등해결을 넘어 행복한 결혼생활 영위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 나타난 인과적·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관한 사항은 중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영역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활용할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령화 사회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부부중심의 기간이 길어진 우리나라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통적 가족가치에서 정서적 지지 자료의 부부관계 가치관의 변화, 동반자적 관계로의 부부관계 변화 등 변화하는 부부관계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수가 17명이고 이들의 주관적 체험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병행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U시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지역적 편중이 발생할 수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고학력에 편중되어 이 또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과 더 다양한 학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진 (2011).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라, 하영운 (2020).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1(2), 31-51.
- 김미라 (2001). **부부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곤 (2001). **중년부부의 친밀감 회복을 위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화 (2012). **중년기부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옥, 정혜정 (2013). 기혼남녀의 마음챙김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21(2), 203-229.
- 김시양 (2017).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기개방과 공감능력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 (2009). **중년 부부의 삶의 의미: 코오리엔테이션 모델적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아 (2016).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은 (2015). **도보여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숙 (2000).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민지 (2006).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문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이인수 (2015).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2), 381-400.
- 박종원 (2020). **NVivo R1 (NVivo release 1):Matters of Why CAQDAS(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분석)**. 서울: 글로벌콘텐츠.
- 변선아 (2009). **중년기 남성의 부부친밀감이 생활만족도 및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계수, 조성숙 (2011).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1(11), 296-312.
- 양진선 (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제은 (2013). 중년, 위기인가? 전환점인가? 중년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현상과 인식**, 37(3), 141-166.
- 오태균 (2005). 중년 남성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 교육적 과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63-86.
- 유순희 (2017). **황혼이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10). **가족관계학**, 경기: 교문사.
- 윤희남, 김영희 (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9(3), 141-158.
- 윤미혜, 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3(1), 17-32.
- 윤인지 (2016). **기혼남녀의 애착안정성, 자기개방, 배우자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한덕웅 (2003). 친밀한 관계에서 양자간 정서반응의 유사성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4), 235-249.
- 이기석 (2015).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목회돌봄 방안**.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성, 김영천(2012).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학회**, 20(2), 1-26.
- 이동숙 (2006). **중년기 부부성장 집단프로그램**.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영, 임순연 (2014). 노인유사체험 후 노인에 대한 생각 태도 및 변화 : NVivo를 이용한 질적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35-436.
- 이영림, 이권철 (2020). 실종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론기사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91-100.
- 이영희, 이운주 (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 분화, 부부친밀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43-58.
- 이인정, 최해경 (200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 임재연, 김지현 (2014).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자녀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치료**, 26(4), 1131-1149.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93-111.
- 정은정, 서미아 (2020). 중년기 부부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8(3), 393-403.
- 조원덕 (2013). **성인자녀가 독립한 중년여성의 부부친밀감: 현상학적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혜성, 하은영, 서애은 (2017). NVivo를 활용한 6차 산업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50, 101-114.
-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대전: 통계청.
- 황경애 (2001). 부부의 의사소통 관련 가족복지향상 대안에 관한 고찰. **진주산업대학교 논문집**, 40, 91-105.

- Erikson, E. (1994).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 Gottman, J. M. (1995). *The analysis of chang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Y: David McKay Company.
- Johnson, S. M. (2006).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박성덕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6년에 출판).
- Lincoln, Y. S. & Guba, E. G.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 Timmerman, G. M. (1991). A concept analysis of intimacy. *Article i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2(1): 19-30.
-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08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2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7일

## A Study on the Marital Intimacy of the Middle Age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Song, Kyung Ok

Jung, Min Ja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aims to find theoretical grounds by analyzing how middle-aged couples form intimacy, their processes, elements, and strategies to form intimacy and to present grounds for improving marital intimacy. Middle-aged couples aged 40 to 64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March to April 2021. As a result of this study, 181 conceptualization, 40 subcategories, and 16 upper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open coding. As a result of paradigm analysis in axis coding, the causal conditions of middle-aged couple intimacy were 'internal motivation' and 'choice of marriage'. Contextual conditions were 'common values', 'economic power', and 'thoughtfulness and dedication'. And, the central phenomena was 'communication and support', 'trust' and 'emotional exchange'.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wanting to be together', 'recognizing one another', 'autonomy', and interventional conditions were 'sexual life' and 'love.' The results were 'couple that makes efforts,' 'couple that understands each other,' and 'couple that depends on each other.' Through the process analysis, the intimacy process of middle-aged couples was analyzed as "the stage of caring," "the stage of re-determining life as a couple," "the stage of finding alternatives," and "the stage of mature happiness experience," and the key categories in selective coding were "trust in spouse and understand and rely on each other through the emotional exchange." The above findings will provide data on the intimacy experienced during the marriage of middle-aged couples and help them understand broadly how middle-aged couples behave in the process of maintaining their marriage.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made.

*Key words: Middle Aged, Marital Relationship, Intimacy, Grounded Theory*



#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

염 화 숙\*\*

천 성 문\*\*\*

부산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경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347명의 자료를 SPSS 21.0과 Mplus 8.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매개로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내면화, 신체감시, 우울.

\* 본 논문은 염화숙(2020)의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염화숙, 부산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천성문,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Tel: 051-659-5905, E-mail: smcheon@pknu.ac.kr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연속선 상에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성호르몬의 분비 증가와 이차성장이 나타나게 되어 신체적, 성적 발달이 촉진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화 과정을 습득해 나가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성숙한 주체성을 정립해 가는 결정적인 시기다(류은정, 서정석, 함미영, 박영례, 문석우, 남범우, 2006). 또한 청소년은 빠르게 변하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놀라움, 불안, 열등감, 자존감 등을 가지게 되며,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Dacey & Kenny, 1994). 신체적 외모에 대한 인식은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더 부정적으로 지각되고(정은혜, 박경, 2009), 신체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하지만 정신적 성숙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불균형을 이루기 쉽다(이종화, 2008). 이로 인하여 여자청소년들은 다양한 내, 외적 변화를 대처하는데 어려움에 부딪칠 가능성이 증가하여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우울증에 걸리는 빈도가 높아(강향숙, 박은진, 정지영, 2014; 오윤선, 2008)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 발병이 높아질 수 있다.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우울은 개인의 인지와 판단, 대인관계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기 우울은 발달 특성상 성인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며, 청소년기에 우울을 겪은 경우, 초기 성인기에도 여전히 우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Anheier & Kendal, 2000). 또한 성인기와 달리 청소년기는 우울 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으로 되고, 약물 사용, 가출 및 폭력, 신체 증상호소, 성적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김현정, 201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경험률이 2017년 25.1%, 2018년에는 27.1%, 2019년에는 28.2%로 지

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자청소년 21.1%, 여자청소년 33.6%로 여자청소년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신장애 중에서도 우울의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우울 발생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장애의 발생률 차이는 대상화 이론(Fredrickson, Roberts, 1997)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대상화 이론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이 어떻게 여성의 심리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우울, 불안, 섭식장애, 성기능장애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한다. 성적대상화경험이란 자신의 신체를 제삼자의 시선으로 응시하고 내면화함으로써, 타인에게 평가받는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는 것으로 여성을 향한 성적인 응시나 성적 접근, 또는 미디어를 통한 노출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성적인 대상으로 평가받고 관찰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일부분 혹은 성적 기능이 전체 인격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단순한 도구로 여기게 하며, 반복적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자신의 신체를 평가받는 대상물로 자각하게 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신체감시는 이상적 외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불안, 신체수치심, 좌절감, 등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하게 하고 이후 섭식장애나 우울증, 성기능장애 등의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이와 같이 여성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인관계나, 미디어를 통해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어 다양한 부정적 심리적인 변화와 정신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근거로 여자청소년의 우울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성적인 신체 특성이 생겨나는 사춘기에 여자청소년에게서 주로 형성되

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하고 감시하며 통제하기 시작한다(김윤, 2007). 여자청소년들은 신체적인 변화와 성적 성숙으로 타인의 응시나 신체 외모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대상화가 일어나게 되고(강향숙, 박은진, 정지영, 2014) 신체와 외모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자신의 외모에 대해 스스로 평가, 감시하게 된다. 더하여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 쉽고 자신의 외모가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울을 경험하고(이희연, 하은혜, 2008) 나아가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서수경, 2017).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 사진이나 아름다운 사람을 접하며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외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높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아시아경제, 2019). 그 뿐만 아니라 등교 때 화장과 머리손질을 하다 지각을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경기일보, 2019). 이와 같이 여자청소년들은 사춘기 시기부터 경험하게 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의 부정적 결과로 비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평가, 감시하게 되고 결국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대인 성적 대상화를 경험하는 경로에는 대인 간에 발생하는 외모 평가, 성적 응시와 같은 형태와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성적 대상화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에는 가족, 또래 집단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김은혜, 2013). 여자청소년의 식이조절, 섭식장애 행동에는 어머니와 자매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윤, 2007). 과제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들보다 딸의 체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이어트를 권유하였으며(Smolak, Levine, & Thompson, 2001), 과제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만을 지적하는 경향이 높아 체중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김윤,

2007). 그리고 자신의 외모와 신체 기술, 행동 등은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확인하고, 매력적인 외모로 인기를 얻어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싶어 한다(Dunkley, Wertheim, & Paxton, 2001). 외모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을 자주 경험한 학생은 다이어트를 실천하였고, 외모와 관련된 주제에 더 많이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Paxton, 1999).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가족 및 또래와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청소년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타인이나 사회의 가치와 평가는 개인의 내면화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가치를 수용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역시 사회화과정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나 고정관념을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로 수용한다. 내면화된 가치는 사회적인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McKinley & Hyde, 199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통해 이상적인 외모를 규범화하여 자기 가치로 내면화하는 것으로, TV,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비추어지는 날씬하고 마른 여성의 신체상을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여성들이 비현실적인 신체상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황인지, 201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이상적인 외모상을 자신이 습득하고 도달해야 할 기준으로 삼게 만들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신효정, 2002).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많아지고(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외모에 몰두하며,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집착하게 된다(Thompson & Stice, 2001). 국내연구에서도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장지원, 2012; 황인지, 201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감시란 여성들이 객체(대상)로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고 느끼는 심리적 경험(McKinley & Hyde, 1996)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체적인 관점이 아닌 제삼자의 관점으로 자신의 외모를 감시, 비교, 평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Stice & Thompson, 2001). 연구에 따르면 신체감시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불안을 느껴 식사를 제한적으로 하거나 섭식장애를 증가(김시연, 서영석, 2012)시키는데, 여자청소년에게서 신체감시는 수치심과 함께 섭식장애 외에도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의 결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1). 따라서 지속적인 신체감시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함께 섭식장애 및 몰입 어려움과 같은 행동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청소년기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여자청소년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야기하고(최윤정, 2016) 이는 타인의 관점으로 자기 신체를 지속해서 평가하는

신체감시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울을 야기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 발생의 성별차가 존재하고 여자청소년의 우울발생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 대상화 이론을 토대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 우울이 발생하게 되는지 변인들 간의 일련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대상화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여자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여자청소년에게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체계적 상담전략과 예방적 개입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울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는 설정하였다. 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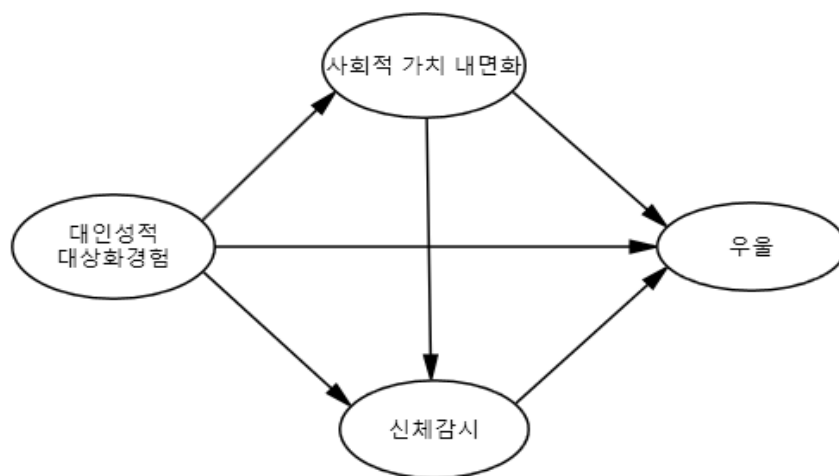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신체감시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 한 중, 고등학교 4개교에서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담당 교사에게 조사 실시 지침 및 안내사항을 전달하였고 학교 수업을 종료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 및 결과처리 방법, 주의 사항,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390부 배부하였고 그 중 363부가 회수되어 9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6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47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전체 여자청소년 34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여자중학생 145명(41.8%), 여자고등학생 202명(58.2%)이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5명(1.4%), 중학교 2학년이 43명(12.4%), 중학교 3학년이 97명(28%), 고등학교 1학년이 74명(21.3%), 고등학교 2학년이 88명(25.4%), 고등학교 3학년이 40명(11.5%)로 분

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16명 (62.2%), 부산이 131명(37.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 측정도구

####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ozee, Tylka, Augustus-Horvath와 Denchik(2007)가 개발한 대인 성적 대상화 척도(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를 김시연과 서영석(2010)이 번안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신체 평가와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접근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평가 11문항, 노골적인 성적접근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1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로 나타났다.

#### 우울 척도

여자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1967)이 개발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 타당화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0점-3점) 척도로 평정하여 전체점수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오경자와 이상선(2003)이 번안 및 타당화 하고 송경자와 이미숙(2009)이 청소년 대상 연구를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척도의 하위요인인 내면화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신체감시 척도

신체감시를 측정하기 위해 Lindberg, Hyce와 McKinley(2006)가 개발한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for Youth)를 구자연(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신체감시 4문항, 신체수치심 5문항으로 7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감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자연(2009)의 연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Mplus 8.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학년, 지역, 우울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

하여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 및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을 적용하여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는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다. 측정 모형 검증에 앞서 외모에 대한 이념,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우울 변인은 잠재변수 특정과정에서 관측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로 측정변수의 정규성 및 연속성 가정을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일요인으로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이용하였다. 여섯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는 수치로 왜도 <  $\pm 2.0$ , 첨도 <  $\pm 7.0$ 인 경우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분석 결과,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최소: -.43, 최대: 1.27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최소: -.39, 최대: 1.02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측정변인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 및 우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점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사

회적 가치 내면화( $r = .131, p < .05$ ), 신체감시( $r = .264, p < .001$ ), 우울( $r = .255, p < .001$ )과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 $r = .635, p < .001$ ), 우울( $r = .224, p < .001$ )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끝으로 신체감시와 우울( $r = .369, p < .001$ )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 측정모형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분석 절차(two-step approach)에 따라 1단계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제대로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N = 374$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전체대상화         | 30.27 | 11.48 | .76  | -.01 |
| 신체평가          | 23.25 | 8.46  | .57  | -.26 |
| 성적접근          | 7.02  | 3.48  | 1.27 | 1.02 |
| 전체 사회적 가치 내면화 | 23.42 | 6.39  | -.26 | -.34 |
| 전체신체감시        | 28.80 | 7.80  | .00  | -.16 |
| 신체감시          | 14.54 | 3.61  | -.43 | -.26 |
| 신체수치          | 14.26 | 5.05  | .25  | -.39 |
| 전체우울          | 14.10 | 10.91 | .82  | .39  |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 $N = 374$ )

|     | 1       | 1-1     | 1-2     | 2       | 3       | 3-1     | 3-2     | 4 |
|-----|---------|---------|---------|---------|---------|---------|---------|---|
| 1   | -       |         |         |         |         |         |         |   |
| 1-1 | .984*** | -       |         |         |         |         |         |   |
| 1-2 | .904*** | .815*** | -       |         |         |         |         |   |
| 2   | .131*   | .160**  | .043    | -       |         |         |         |   |
| 3   | .264*** | .283*** | .185**  | .635*** | -       |         |         |   |
| 3-1 | .203*** | .228*** | .116*   | .567*** | .858*** | -       |         |   |
| 3-2 | .263*** | .274*** | .202*** | .575*** | .930*** | .611*** | -       |   |
| 4   | .255*** | .268*** | .190*** | .224*** | .369*** | .280*** | .370*** | - |

\*  $p < .05$ , \*\*  $p < .01$ , \*\*\*  $p < .001$

주. 1. 전체 대인성적 대상화 경험, 1-1. 신체평가, 1-2. 성적 접근, 2. 전체 사회적 가치 내면화, 3. 전체 신체감시, 3-1. 신체감시, 3-2. 신체수치, 4. 전체 우울

귀인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우울 변인은 잠재변수 특정과정에서 관측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로 측정변수의 정규성 및 연속성 가정을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일요인으로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내면화는 내면화1, 내면화2, 내면화3으로 우울은 우울요인1, 우울요인2, 우울요인3으로 각각 3개씩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고 측정모형 검증 시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로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 (RMSEA)를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CFI가 .991, TLI가 .987, RMSEA가 .045(90% 신뢰구간: .023 - .066)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 측정모형 검증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어 측정모형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절하므로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들의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 $\beta$ )이 모두 .5 이상으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CFI  | TLI  | SRMR | RMSEA<br>(90% 신뢰구간) |
|------|----------|----|------|------|------|---------------------|
| 측정모형 | 51,290   | 30 | .991 | .987 | .030 | .045(.023-.066)     |

표 4.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              |       | B     | SE   | $\beta$ | t         |
|--------------|-------|-------|------|---------|-----------|
|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신체평가  | 1.000 |      | 1       |           |
|              | 성적접근  | .336  | .013 | .815    | 26.242*** |
| 사회적가치내면화     | 내면요인1 | 1.000 |      | .866    |           |
|              | 내면요인2 | .810  | .039 | .881    | 20.635*** |
|              | 내면요인3 | .741  | .038 | .853    | 19.713*** |
| 신체감시전체       | 신체감시  | 1.000 |      | .756    |           |
|              | 신체수치  | 1.494 | .116 | .808    | 12.848*** |
| 우울           | 우울요인1 | 1.000 |      | .905    |           |
|              | 우울요인2 | .994  | .038 | .909    | 26.471*** |
|              | 우울요인3 | 1.059 | .038 | .930    | 27.771*** |

\*\*\*  $p < .001$

##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통해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로  $\chi^2$ ,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를 제시하였다. TLI, CF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Hu & Bentler, 1999),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미만 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이상일 경우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2). SRMR의 경우 .05이하이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10미만이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문수백, 201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CFI .991, TLI .987, SRMR .030, RMSEA .045(.023-.06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 및 잠재변인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경로들의 직접 경로의 크기 및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CFI  | TLI  | SRMR | RMSEA<br>(90% 신뢰구간) |
|------|----------|----|------|------|------|---------------------|
| 구조모형 | 51.290   | 30 | .991 | .987 | .030 | .045(.023-.0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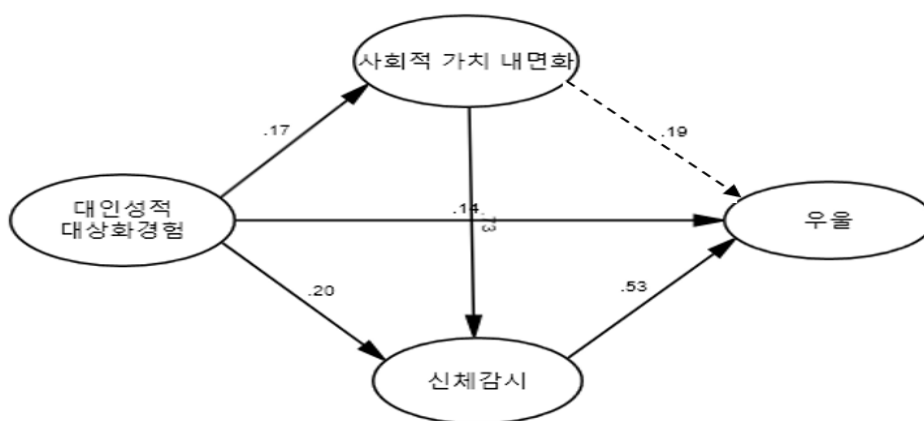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주.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표시함

표 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              |   |              | <i>B</i> | <i>SE</i> | $\beta$ | <i>t</i>              |
|--------------|---|--------------|----------|-----------|---------|-----------------------|
|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 |              | .061     | .030      | .143    | 2.068 <sup>*</sup>    |
| 사회적 가치 내면화   | → | 우울           | -.289    | .188      | -.190   | -1.538                |
| 신체감시         | → |              | .694     | .189      | .526    | 3.670 <sup>***</sup>  |
|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 | 신체감시         | .065     | .017      | .202    | 3.937 <sup>***</sup>  |
| 사회적 가치 내면화   | → |              | .837     | .077      | .729    | 10.829 <sup>***</sup> |
|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 | 사회적<br>가치내면화 | .047     | .017      | .166    | 2.757 <sup>**</sup>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에 있어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beta = .143$ ,  $t = 2.068$ ,  $p < .05$ )과 신체감시( $\beta = .526$ ,  $t = 3.670$ ,  $p < .001$ )의 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190$ ,  $t = -1.538$ ,  $p > .05$ ).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신체감시에 있어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beta = .202$ ,  $t = 3.937$ ,  $p < .001$ )과 사회적 가치 내면화( $\beta = .729$ ,  $t = 10.829$ ,  $p < .001$ )의 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였다( $\beta = .166$ ,  $t = 2.757$ ,  $p < .01$ ).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화 이론과 선행연구 토대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 변인의 완전 매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할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으나, 연구결과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감시 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우울 세 변인간의 관계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한 반면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평가받거나 노골적인 성적 접근의 경험 자체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증가에 영향을 주고, 우울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 사이에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자기 대상화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Lindberg, Grabe 및 Hyde(2007)의 연구와 Szymanski와 Henning(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국내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혜, 박경, 2009),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은준, 최다빈, 2018)와 남, 여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상화 경험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함께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정선, 2007). 그리고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시연, 서영석, 2011)와 일치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우울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고 평가, 비교, 통제하는 신체감시를 하게 되고, 지속적인 신체감시 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며 결국 섭식장애(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성형의도(장지원, 2012)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가치 내면화 자체가 우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기 보다는 내면화된 기준과 자기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통한 비교나 차이 인식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 발생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빠른

성장을 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이 시기의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미디어나 방송 등을 통해 날씬한 몸매나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 한다고 하더라도 내면화만으로는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체에 타인의 시선이나 피드백에 지속해서 노출이 되면 대상화로 이어지고 이는 자신이 비판적인 관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습관화되어 수치심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며 결국 우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문제가 지지되었다.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성적 응시나 성적 접근 또는 미디어를 통한 노출을 통해 반복적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를 관찰자의 관점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을 평가받는 대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신체감시가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불안, 신체 수치심, 좌절감 등 부정적 심리적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또래관계에서 외모 관련 대화나 비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신체감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안을 느껴 결국 부정적인 섭식행동과 근육질 추구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2)는 결과와 일치하며,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낮아져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김정선, 2007)와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면 신체감시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높아져 피부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문희정, 2016)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여자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면 타인에 의해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자아 중심성으로 인해 타인을 의식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뿐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기이므로(Fredrickson & Roberts, 1997), 외모에 대해 민감해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게 되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타인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열등감을 가지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어 결국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에 매개효과가 나타나 세 번째 연구 문제가 지지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신체감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를 지속해서 제삼자의 관점으로 관찰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자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아진다고 보았던 선행연구들(김시연, 서영석, 2011; 이지연, 장지원, 장진이, 2011)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성별은 다르지만 남자고등학생들이 또래 관계에서 외모와 관련하여 대화나 비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신체감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김시연 외, 2010)와 일치한다. 여자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외모에 대한 자의식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욕구가 높고 자신의 외

모나 행동, 생각, 감정에 대한 자기-자각 능력이 급증하여 외모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이 외모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집착하게 된다. 또한 가족, 친구들 간의 외모에 대한 대화나 평가나 미디어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이상적인 신체 기준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학습됨에 따라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기준을 수용하게 되어 자신의 신체를 지속해서 감시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적 대상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증가하고 자신의 신체를 관찰자의 관점으로 감시, 평가, 통제하는 신체감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우울에 신체감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체가 우울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미디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사회에서 이상화하는 신체 외모를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속해서 신경 쓰게 되며 내면화된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기준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 평가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가진 학생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 김시연 등(2010)과 Moradi 등(2005)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통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내면화와 신체감시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를 통해 부분매개 하였다. 대상화 이론에서 성적인 평가와 접근 등과 같은 성적 대상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관찰자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며, 관찰자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게 되거나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한 지나친 감시로 나타나 신체에 대한 수치심, 불안을 느끼며, 결국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Fredrickson, Roberts, 1997)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은 미디어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노골적인 성적 접근들이 많을수록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외모를 내면화가 높아지게 되고 자신의 신체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자청소년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화된 외모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빠른 성장을 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체에 관한 시선이나 피드백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대상화로 이어지고 미디어나 방송 등을 통해 날씬한 몸매나 이상적인 외모를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된다. 이때 내면화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고 평가, 비교, 통제하는 신체감시를 하게 되고, 지속적인 신체감시 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며 결국 섭식장애(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성형의도(장지원, 2012), 우울이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대상화 이론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역시 우울에 단일 변인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내적인 변인들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

도록 대인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화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상화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가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여자청소년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관련 변인들과 우울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성적대상화 경험에 대한 외현적인 문제들이 여자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들 요소가 반영된 상담전략을 세우고, 성적대상화경험을 개인적인 수준에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일 수 있지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내면화와 신체감시는 개인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외모가 가족 내에서도 평가되는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 서로를 대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 및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족체계적 접근으로 가족상담, 가족의사소통 훈련, 부모교육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집단이 한 개의 시와 한 개의 도에서 중, 고등학교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지역의 중, 고등학교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을 중, 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대상의 연령을 좀 더 낮추어 폭넓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울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들

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변인을 탐색하고, 경로를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향숙, 박은진, 정지영 (2014). 청소년의 우울과 치료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8, 91-123.
- 경기일보 (2019). 외형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416>에서 2019. 12. 03. 인출
- 구자연 (2009).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연, 백은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시연, 서영석 (2011).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여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137-1160.
- 김시연, 서영석 (2012). 또래 대상화경험이 남자고등학생이 부정적 섭식행동 및 근육질 추구에 미치는 영향: 신체감시 및 신체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29-948.
- 김윤 (2007).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3). **대상화요인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 (2007). **자기 대상화가 신체경험, 우울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15). **청소년 우울의 영향요인 연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범우, 류은정, 문석우, 박영례, 서정석, 함미영 (2006).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불안, 우울, 자살사고. **정신간호학회지**, 15(2), 136-143.
- 문수백 (2015).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 문희정 (2016).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태도, 신체감시가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의복행동, 체중조절행동,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2(1), 11-20.
- 박경, 정은혜 (2009). 여자청소년의 자기 대상화와 우울 및 섭식간의 관계: 신체수치심의 중재효과. **심리치료학회지**, 9(2), 1-8.
- 박은준, 최다빈 (2018). 미용 전공 여대생의 대상화 경험이 신체적 우울감과 신체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4(6), 1337-1342.
- 보건복지부 (2020).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서수경 (2017). **스타일링 교육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자, 이미숙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2), 97-110.
- 송종용, 이영호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 신호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아시아경제 (2019). 미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이용범의 행복심리학].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0613500297444>에서 2019. 11. 06. 인출.
- 오경자, 이상선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오윤선 (200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6(4), 3-15.
- 이중화 (2008). 여자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과 우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4(3), 277-284.
- 이지연, 장지원, 장진이 (2012). 여고생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의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59-577.
- 이희연, 하은혜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47-561.
- 장지원 (2012).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이 여자 고등학생의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여고생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59-577.
- 최정윤 (2016). 여대생의 SNS노출과 성형의도 간의 관계: 미의 기준 내면화, 신체감시, 얼굴감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지 (2017). 여대생의 물질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신체수치심 간의 관계: 미의 기준 내면화, 신체감시, 얼굴감시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heier, H., & Kendall, J. (2000). Interpersonal trust and voluntary associations: Examining three approach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3(3), 343-36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Y: Harper & Row.
- Dacey, J., & Kenny, M. (1994). *Adolescent development*. Dubuque, IA: Brown Communications.
- Dunkley, T. L., Wertheim, E. H., & Paxton, S. J. (2001). Examination of a model of multiple sociocultural influences on adolescent girls' body dissatisfaction and dietary restraint. *Adolescence*, 36(142), 265-279.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Hair, J. F., Black, W. C., & Babin, B. J. (2010).

- Anderson, R.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Horvath, C. L., & Denchik, A.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2), 176-189.
- Lindberg, S. M., Grabe, S., & Hyde, J. S. (2007). Gender, pubertal development, and peer sexual harassment predict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4), 723-742.
- Lindberg, S. M., Hyde, J. S., & McKinley, N. M. (2006). A measure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for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yout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1), 65-76.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V.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20-428.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Smolak, L., Levine, M. P., & Thompson, J. K. (2001). The us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with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2), 216-223.
- Szymanski, D. M., & Henning, S. L. (2006).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women's depression: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Sex Roles*, 56(1-2), 45-53.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81-183.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0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3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7일

##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ation and Body Surveill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Depression in Female Teenagers

Youn, Hwa Suk

Busan Segu Youth  
Counseling center

Cheon, Seong Mo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on appear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hysical surveillance i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depression.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female adolescents enroll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and a total of 347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Mplus 8.2 programs. Firs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depression through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was not significant. Secon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directly affects depression through physical monitoring. Thir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sociocultural internalization and physical monitoring of appear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ody surveillance, Depression, Female adolescents*



# 전업모의 첫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 혜 리\*

대전대학교

본 연구는 전업모가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경험들을 탐색함을 통해 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양육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본 연구에는 이러한 전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하였다. 심층 인터뷰와 방문 관찰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Giorgi(2009)가 제시한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업모가 겪는 스트레스의 유형은 '반복적인 육아 생활, 사회 복귀에 대한 고민, 첫 자녀 육아의 기쁨과 죄책감, 전업모의 육아 스트레스'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모의 현실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업모의 재취업에 대해 개입하고, 조력해야 한다. 넷째,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심리적 개입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업모가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함을 통해 앞으로 이들에 대해 '심리 및 육아상담, 심리조력서비스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전업모, 첫 자녀, 양육 스트레스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혜리, 대전대학교 겸임교수, (34520)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Tel: 051-7204-3023, E-mail: royearsude@naver.com

인간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첫 자녀의 출산을 통해 양육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어머니들은 다양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해 경험과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이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의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핵가족화, 가족유형의 다양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더 가중되고 있다(송영주 외, 2014; 조복희 외, 2006).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어머니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중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애 처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처음 겪는 여러 어려운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한다.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 역할을 하며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 유형으로, 자녀 양육을 하면서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말한다(김민정 외, 2020). 첫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와 양육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도움이 부족한 상태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김지영, 2015). 어머니들은 생애 처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 역할에 대한 의무감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양육정보의 부족은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이재희, 박지희, 2020).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상황이나 자녀양육 과정이 기대와

는 다를 때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 자녀에 대한 태도, 양육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그 영향은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송영주 외, 2014).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행동문제,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Abidin, 1990; Anthony et al., 2005).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직장 재직 여부에 따라서 전업모와 취업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의 양육환경은 다르다. 대체로 전업모는 자녀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나 질적으로 좋은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 미안함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전업모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게 전업주부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어렵다. 전업모는 자녀양육을 하면서 겪는 좌절감과 스트레스, 반복되는 일상의 우울감, 휴식이 없는 가사노동으로 고통을 호소한다(이재희, 박지희, 2020). 어린 자녀를 둔 전업모는 많은 시간을 육아에 사용하는데, 자녀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은 비구조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의 일에 대한 무가치함에 대해서도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이진용, 박경, 2014; 정아은, 2020).

최근에 우리나라 전업모는 결혼 전에 일을 하다가 결혼과 출산을 하고 양육이 시작되면서 일을 그만두는 어머니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보다 최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학업 등을 중요시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대신해줄 사람의 부재와 다양한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재희, 박지희, 2020). 이에 따른 어려움과 스트레스 요인들은 '집

에서 있는 여자'라는 인식보다 다른 접근으로 바라 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다양한 환경에 놓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 되어 왔다. 대체로 양육스트레스를 가진 엄마로 인 하여 자녀와 상호작용 및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장지우, 김선희, 2020; 강선주, 임선아, 2020; 김민정 외, 2020; 한영숙, 2020), 양육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 연구(배주영, 도현심, 2020; 윤기봉, 김소영, 2020), 미혼모나 다문화가정 초산모, 아픈 자녀를 가진 어머니 등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방경숙 외, 2019; 이진희, 오상은, 2016), 부모의 심리적 상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연구(김경화 외, 2015; 조경희, 도미향, 2016)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전업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취업모와의 비교연구(이재희, 박지희, 2020;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부부관계와의 연관성(이영미, 민하영, 2014), 경험에 대한 연구(김은주, 서영희, 2021; 장영애, 2003)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연구의 수는 미미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한 부모 가정, 스터디 맘 등 일반 가정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가정에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많았다. 전업모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진행된 연구들의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또한, 최근 한국의 전업모의 형태를 고려한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볼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많은 전업모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전업모들의 스트레스는 존재하지만, 그 스트레스 본질에 대해 접근한 연구가 없다 보니 해결책을 찾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최근 실정에 맞는 전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이것을 바탕

으로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분석하여 그 유형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이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전업모들의 첫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을 들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업모들의 첫 자녀 양육스트레스 경험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Giorgi(2009)의 자료 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유형들을 정리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전업모들의 첫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요인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전업모가 느끼는 첫 자녀 양육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전업모의 생애 첫 자녀 양육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가?

## 전업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고학력의 여성이 증가했지만, 저 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OECD가 2016년에 발표한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1.21명으로 OECD 회원국 안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6. 10. 10).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여성의 경력단절, 인식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박영숙 외, 2009). 우리나라의 여러 시스템에서 '육아 휴직'이라는 이름으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직 후에 여성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란 쉽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잘 이해하고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일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며 양육하기도 한다.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처한 여러 상황 및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취업은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한 중요한 요인이다.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연구에서는 전업모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가사 일을 통해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는 반면에, 그에 따른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며, 친구 및 친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해석한다(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전업모는 여러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어 성취감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못하며, 남편이 자녀 양육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 양육은 전업모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전업모는 여러 활동에도 제약적이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전업모가 하는 활동량에 비해 보상이 매우 적고, 반복적으로 실패 없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다 보니 전업모의 자존감 하락, 고립감, 외로움, 불안감, 위축감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서적인 상태에서 자녀 양육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 첫 자녀 양육 경험과 스트레스

부모는 첫 자녀 양육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는 동시에 심리적 부담과 육체적이고,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다. 양육이란 자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길러주며, 어린 자녀에게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자아실현을 통해 성인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증가로 인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시본영, 김현주, 2018). 이와 더불어 첫 자녀의 출산은 관련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을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책임감과 부담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송영주 외, 2014).

자녀의 연령이 달라지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도 달라지며,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달라질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종단적으로 조사한 연구(Muslow et al., 2002)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자녀가 생후 1개월 때 양육 스트레스는 생후 6개월 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와 기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양육 스트레스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전업여부는 고려되지 않고 다루고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인지적 요소로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육 지식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 및 정보로 볼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의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양육 지식은 어머니가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하기도 하며, 자녀 양육을 할 때에 내적 기준인 발달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MacPhee, 1984). 올바른 양육 지식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하게 도와주며, 발달에 적절한 환경 자극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해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자녀 양육을 수행한다고 한다(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반면에, 양육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면서 당황하게 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없어 어머니뿐 아니라 자녀도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Hunt & Paraskevopoulos, 1980).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현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은 형태의 전업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결혼 전에는 직장을 다녔으나 결혼과 출산, 육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전업모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경력단절이 된 여성으로 보는 관점보다 여러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경험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전업모’라고 명칭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연령은 영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 여성을 선정하였고, 둘째, 수도권 소재에 살고 있는 여성을 기준으로 포함하였고, 셋째, 현재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업모를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도맡아 하며, 장시간 자녀와 함께 있는 전업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 이름 | 나이 | 자녀<br>연령 | 거주지 | 학력 |
|----|----|----------|-----|----|
| A  | 32 | 4        | 경기  | 대졸 |
| B  | 36 | 4        | 경기  | 대졸 |
| C  | 34 | 2        | 서울  | 대졸 |

###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각 연구 참여자에 1회의 참여 관찰을 포함하여, 2020년 8월 7일 ~ 12월 10

일까지 심층 인터뷰 1회씩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미리 이메일로 인터뷰 질문지를 전송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참고하였으며, 인터뷰 장소와 시간은 연구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참여 관찰은 연구 대상자들의 집에 방문하여 3시간 동안 관찰을 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는 각 연구 참여자별로 약 80분 정도 소요되었다.

동의서에는 연구주제 및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인터뷰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삭제 요구,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안내,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자료 및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연령, 학력, 자녀의 연령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이 연구 자료에 포함되며, 연구 자료는 완료 후 연구자가 직접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험을 있는 그대로 생생히 기술하여 경험의 본질 구조를 밝히고자 Giorgi(2009)의 기술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순수 기술의 방법과 동일시하면서, 연구자의 해석보다는 참여자의 경험 기술에 더 초점을 두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시본영, 김현주, 2018).

본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Giorgi(2009)가 제시한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를 인식하는 단계’로 전사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 본 후에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본다. 이때, 모호하거나 좀 더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녹취된 파일을 다시 듣거나, 연구 참여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교화했다.

둘째, ‘의미단위로 구분하는 단계’는 본 연구주제인 전업모의 생애 첫 자녀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없는 자료는 배제 후에 경험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찾아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전화하는 단계’로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표현된 의미 단위들에서 경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찾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여 기술하였다.

넷째, ‘통합의 단계’로 모든 의미단위들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반영하면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일반적 구조로 기술하였다.

## 연구에 대한 평가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후에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 대상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연구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받는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의 피드백 내용을 분석 결과에 다시 반영하였으며, 내용 분석 결과에 대해 박사 1인에게 감수를 받았다.

## 결 과

###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 구성요소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확인된 스트레스 요인들을 4개의 구성요소와 9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조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 A. 반복적인 육아 생활

##### ① 비슷한 스케줄의 반복

전업모의 경우, 주중과 주말의 스케줄들이 비슷하게 반복된다. 주중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교 시키고, 그 사이에 집안일과 약간의 휴식을 하다 보면, 자녀 하원을 하러 가야 하고, 그 이후에는 남편이 올 때까지 자녀와 계속 놀이를 해야 한다. 특별한 사회적인 일과 없이 집에서 육아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든 참여자들이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표 2. 생애 첫 자녀를 둔 전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범주화표

| 구성요소             | 하위 구성요소              |
|------------------|----------------------|
| 반복적인 육아 생활       | 비슷한 스케줄의 반복          |
|                  | 긴 양육시간과 아이와의 반복적인 갈등 |
| 사회 복귀에 대한 고민     | 사회 복귀에 대한 희망         |
|                  | 사회 복귀에 대한 걱정과 불안     |
| 첫 자녀 육아의 기쁨과 죄책감 | 자녀의 존재에 대한 기쁨과 감동    |
|                  | 자녀 훈육 후에 오는 죄책감      |
| 전업모의 육아 스트레스     | 휴식 없는 육아             |
|                  | 자녀 양육태도에 대한 강박감과 걱정  |
|                  | 사회와의 단절과 무능함         |

[ 인용내용 - 참여자 B ]

주중에는 ...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밥먹이고, 씻기고, 옷 입혀서 어린이집에 등교를 시키고, 한 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그런 사회적인 것을 좀 보고 어.. 그 이후에 집안 청소하고, 개인적인 개인 시간... 그림을 그린다던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본다던가, 그 다음에 장을 보고 와서 아이 밥을 하고, 빨래나 그런거 하면... 시간이 훌쩍 지나서... 아이를 데리고 올 시간이 되요,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놀고.. 밥먹이고, 씻기고.. 밥먹은 것 설거지하면 남편오는 시간이 돼서, 남편이 아이를 씻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재우면서 육아가 마무리 됩니다.

-----중략-----

주말에는.. 거의 한 달의 두 번정도만 시댁에 가서 놀고, 그런거 아니면, 밖에 산책을 간다던가, 공원을 간다던가 해요.

## ② 긴 양육시간과 아이와의 반복적인 갈등

전업모의 경우, 아이와의 양육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상승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볍게 넘길 일도 아이와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은 반복된다. 긴 양육시간에 대한 어려움은 모든 참여자가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아이와의 반복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참여자 A, C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 인용내용 - 참여자 A ]

어후~ 24시간에서 7을 빼면... 17시간이요.. 자는 것 까지 포함하면은요.

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도 사람인지라. 집에서 아이만 기르다 보면, 감정이 잘 컨트롤이 안되면, 아이가 떼를 쓸 때 터지면 아이한테 화를 내고,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중략-----

아이가 잠들었을 때,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감정이 올라와서... '엄마가 잘못했어. 내일부터 그러지 않을게.' 해놓고, 또 반복되니까...

B. 사회 복귀에 대한 고민

### ① 사회 복귀에 대한 희망

전업모는 대체로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업모는 아이를 기르면서 사회 복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사회에 나가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소비하고, 경제성을 갖추고 싶어 한다. 사회 복귀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 인용내용 - 참여자 B ]

음... 내가 가진 사회적인 역할이 없는거? 수입이 없는거.. (구체적으로 왜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 ② 사회 복귀에 대한 걱정과 불안

전업모는 아이를 낳으며, 경력이 단절되어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이다. 그렇다 보니,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느낀다.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로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전업모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이 되어 자신감을 상실한다. 모든 참여자들이 사회 복귀에 대하여 걱정과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 인용내용 - 참여자 A ]

일을 시작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두려워요... 두려워 (눈물 글썽)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두렵고... 내가 지금... (울먹)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보니까.. 내가 매꿀 수 있을까? 내가 해왔던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 C. 첫 자녀 육아의 기쁨과 죄책감

### ① 자녀의 존재에 대한 기쁨과 감동

생애 첫 자녀를 육아하는 전업모는 본인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아이에 대해 기쁨과 감동을 경험한다. 아이가 부모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해주고, 의지하는 모습에서 감동적이라고 눈물

을 흘렸다. 모든 참여자들이 자녀의 존재에 대해 기쁨과 감동을 표현하였다.

[ 인용내용 - 참여자 C ]

나를.. 온전히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애 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고 엄마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나는 신랑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 100 이라고 하면 그 중에 아이에게 50을 준다고 하면... 아이는.. 개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 밖에 없으니까... 개 사랑의 100이면 100을 나한테 다 주니까, 그걸 아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 ② 자녀 훈육 후에 오는 죄책감

어머니는 양육을 하면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육을 한다. 그러나 훈육이 잘 안되면, 화를 내거나 자녀를 때리는 행동을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하는 어머니는 죄책감을 느끼고, 걱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잘못 훈육하고 오는 죄책감에 대한 보고는 참여자 A, C에게서 볼 수 있었다.

[ 인용내용 - 참여자 C ]

내가 때려서 애가 나중에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작용을 하면 어떻하지.. '이러면 어떻하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나면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죄책감과 강박감? 불안함도 들고.. 아이가 잠들었을 때,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감정이 올라와서... '엄마가 잘못했어. 내일부터 그러지 않을게.' 해놓고, 또 반복되니까... 강박이 되고.. 불안해지고.. 죄책감이 들고..

## D. 전업모의 육아 스트레스

### ① 휴식 없는 육아

전업모의 경우, 평일에 자녀 양육을 대부분 지속하기 때문에, 주말만을 기다린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일을 보거나, 주말에 일이 생겨 일을 나

가야 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든 참여자들이 겪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 인용내용 - 참여자 B ]

신랑이 늦게 올때요. 그리고 주말에 신랑이 일이 생겨서... 음..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된다거나, 잠깐 머리 자르러 간다거나.. 살짝 떨어져 있는 시간이..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어떤 점때문에요?) 혼자.. 육아를 해야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나는 주말만 기다려 왔는데...

## ② 자녀 양육태도에 대한 강박감과 걱정

전업모의 스트레스는 자녀를 훈육이 잘 안될 때, 폭발한다.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자녀를 때리는데, 이러한 행동은 전업모에게 강박감과 걱정,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자녀 양육태도에 대해 중요성을 모든 참여자들이 보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강박감이나 걱정에 대해서는 참여자 B와 C가 보고하였다.

[ 인용내용 - 참여자 A ]

음..... 감정.... 분노...? 아니다.. 음.. 복잡한 감정인데.... 일단 화가나고, 이 화가 처음에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화인데...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한 짜증이 났다가, 화가 났다가, 그 화가 나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느껴요. 복잡해요. 화를 낸과 동시에 '화를 내면 안되. 너가 잘못하고 있는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돼' 라는 스스로에 대한 화? 그게 동시에 올라와요. (나를 계속 질책하는 것과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 ③ 사회와의 단절과 무능함

전업모의 경우, 특히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이 경제성이 없어 마음대로 소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보고 하였다.

[ 인용내용 - 참여자 B ]

만약에 일을 했으면, 어떤 것을 살 때도 주저없이 사고... 신랑이 일하는 것도 덜 부담이 되고, 저축할 수 있는 돈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부담 없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럴텐데... 아무래도 사회적 역할이 없다보니, 수입이 없다보니..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 그러다보니까,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불만족 해요.

## 논 의

최근 양육과 관련된 태도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육아 및 돌봄 역할의 수행은 여성이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양육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들에게 양육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동시에 갖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다(이재희, 박지희, 2020). 전업모는 취업모에 비하여 남편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는데, 이로 인해 전업모는 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모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들이 양육과 집안일을 하면서 당연히 겪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임현주, 이대균, 2012). 집안일에는 세탁, 요리, 설거지, 청소 등의 육체적 노동 뿐 아니라, 집안일의 커다란 몫을 차지하는 양육은 감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의 지원을 덜 받는 전업모의 경우 환경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한경혜, 장미나, 2009). 최근 우리나라의 전업모들은 결혼 전에 일을 하다가 양육이 시작되며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이재희, 박지희, 2020). 이들은 일을 하다 전업모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느끼고 있어 다양한 관점으로 접

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업모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전업모 연구들의 한계성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최근 한국 전업모의 형태가 고려되지 않은 관점으로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업모의 첫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전업모의 첫 아이 양육스트레스 경험을 분석하여 스트레스 유형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의 경험 구성 요소는 '반복적인 육아 생활', '사회 복귀에 대한 고민', '첫 자녀 육아의 기쁨과 죄책감', '전업모의 육아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모의 현실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정에서 양육에 대한 역할 수행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사회가 변화했지만, 양육 환경에서는 아직도 여성에게 많은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어머니들의 높은 부담감은 양육불안을 높이는 현상을 경험하게 한다(이재희, 박지희, 2020). 이러한 인식 가운데, 전업모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전업모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역할을 하고, 남편은 바깥일을 하는 전통적 역할 분담 속에서 남편의 양육참여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한경혜, 장미나, 2009).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업모로서 자녀와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면서 장기간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돌보는 일이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에 많은 제약을 겪으면서 낮은 자존감, 위축감,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긴 양육 시간, 육체적 피로함과 비례하여 보상이 없는 전업모의 삶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모의 현실과 스

트레스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전업모는 사회에서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자신의 상황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과정이 기대와 달리 진행될 때 만들어지는 요소이다. 이런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 양육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Abidin, 1992).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는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기대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 어머니의 정서반응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ece & Harkless, 1998).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은 자녀 양육을 할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전업모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었고, 전업모의 양육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했다.

양육스트레스의 요인에 대하여 다변인모델(multivariate model)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자녀의 특성, 가족 특성을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요인 중에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고한다(Crinic & Low, 2002).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우리나라 전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문제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즉, 이것은 전업모를 위한 사회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전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취업모와는 다른 양육 경험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업모는 사회적 고립감을 추가로 느끼며, 경제적 무능력과 긴 시간의 양육, 사회 복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전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전업모는 취업모 보다

양육을 전담하는 일이 많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핵가족화로 약화된 양육지원, 양육스트레스 누적, 사회화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등으로 본인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험을 한다(권미경, 2011;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이를 통해 전업모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감, 높은 불안감 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된다. 또한 전업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남편의 협조가 취업모에 비해 높지 않아, 취업모와는 다른 양육 스트레스 요인이 추가된다. 전업모의 남편은 취업모의 남편보다 자녀양육 협조도가 낮으며, 주말에도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김진경, 2015). 이는 전업모가 취업모와 다른 양육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업모의 재취업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넷째,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양육교육과 심리지원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양육 스트레스에서 양육지식의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친다.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는 양육지식의 부재로 더 큰 스트레스를 지각한다. 양육지식은 어머니에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자녀 양육의 기대를 형성하게 하며, 발달시간표 구성을 도와준다(MacPhee, 1984). 올바른 양육지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하여 자녀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 발달을 촉진한다. 어머니는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효과적인 양육을 수행한다(Miller, 1988).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는 양육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자들은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겪는다. 그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본인의 태도에 대한 걱정도 스트

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들은 휴식이 없는 육아를 통해 쌓인 스트레스와 자녀 훈육 시에 겪는 어려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겪게 된다. 이 경험은 전업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죄책감,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미취업 상태에서 오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하는 생애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들을 심리적으로 돌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들을 위해 심리적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심리적 돌봄을 받는 동안 잠깐이라도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전업모들의 심리적 지지와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업모들은 다양한 전문적 시스템이 있어도 자녀를 잠깐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업모가 육아를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즉, 전업모를 위한 심리상담, 육아상담, 취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지지망,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심리적 개입 시스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생애 첫 자녀 양육을 하는 전업모의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하여 전업모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대상의 다양성 부족과 전업모의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분류가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이들의 경험을 현상학으로 분석하여 서비스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생애 첫 자녀를 둔 전업모는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측면 등에서 건강증진 행위를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어머니들의 정신 건강은 자녀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신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백희정, 2014).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3명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전업모의 스트레스 유형으로 정리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 보완을 위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전업모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데이터의 필요하며, 전업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시스템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연구, 전업모들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전업모들의 지원 등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권미경 (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강선주, 임선아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0(123), 79-105.
- 김경화, 조효숙, 김연하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25-49.
- 김민정, 김소영, 이경옥 (202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지식, 영아의 성별과 기질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20(2), 1-15.
- 김은주, 서영희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 경험 연구. **육아지원연구**, 7(1), 93-113.
- 김지영 (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연구**, 2(1), 91-100.
- 김진경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가정환경 탐색 -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63-79.
- 박영숙, Kanwaki Mitsuko, 박연환, 김윤미 (2009). 3세 미만 유아를 둔 도시 어머니의 양육 스

- 트레스와 가족기능. **스트레스연구**, 17(4), 349-357.
- 배주영, 도현심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 행복감 및 우울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아동학회지**, 41(3), 65-80.
- 백희정 (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건강증진행위 비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5(4), 282-290.
- 방경숙, 정예슬, 김성재, 송민경, 이금희, 임지희 (2019). 국내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 분석. **스트레스연구**, 27(4), 287-297.
-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자녀 가치, 양육지식, 자녀미래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5(5), 15-35.
- 시본영, 김현주 (201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스티딩맘의 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1), 81-107.
- 윤기봉, 김소영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1), 79-91.
- 이영미, 민하영 (2014). 전업모와 취업모가 지각한 경제적 갈등과 부부갈등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3), 73-89.
- 이재희, 박지희 (2020).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 **문화기술의 융합**, 6(3), 211-216.
- 이진용, 박경 (2014). 수용-전념 치료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75-275.
- 이진희, 오상은 (2016). 결혼이주 초산모를 위한 신생아양육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연구**, 24(3), 220-230.
- 임현주, 이대균 (2021).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부부특성, 경제특성, 심리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5), 451-470.
- 장지우, 김선희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유아의 자기통제력 및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정도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1(1), 61-74.
- 장영애 (2003). 취학전 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연구: 농촌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1), 1-12.
- 정아은 (2020).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서울: 천년의상상.
- 조경희, 도미향 (2016).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자료집**, 2016(5), 294.
- 조복희, 정민자, 김양은 (200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89-109.
- 한경혜, 장미나 (2009).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학회지**, 13(3), 47-57.
- 한영숙 (202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양육스트레스가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98-409.
- 헤럴드경제(2016. 10. 10.). OECD발표 2016 한국 사회지표: 빈곤율·자살률 최고·출산율 최저, 부끄러운 사회지표 '수두룩'.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0000515>에서 2016. 10. 10. 인출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ediatric Psychology Press, VA.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 of

-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Anthony LG, Anthony BJ, Glanville DN et al.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al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ect Child Dev*, 14, 133-154.
- Cri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issues in parenting*. Hillsdale, NJ: Erlbaum.
- Hashimi, H. A., Khurshid, L., & Hassan, I. (2007). Maternal adjustment, stres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women. *Internet Journal Med Update*, 2(1), 1-11.
- Hunt, J. M., & Paraskevopoulos, J. (198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2), 285-298.
- MacPhee, D. (1984). The pediatrician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87-100.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Muslow, M., Caldera, Y. M., Pusley, M., & Reifman, A. (2002). Multi 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44-95.
- Reece, S. M., & Harkless, G. (1998). Self efficacy, stress, and parental adaptation: Applications to the care of child rear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4(2), 198-215.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1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8일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of Raising the First Child of Full-time Mothers

Park, Hye Ri

Daej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stress that full-time mothers experience while raising their first child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The mother raising the first child is exposed to various parenting stresses while experiencing ment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e stress types were classified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experience of full-time mothers. This study found various types of stress in the participants including repetitive parenting life, worries about returning to society, joy and guilt of raising the first child, and parenting stress as full-time mothers. The discussions through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wareness of the stress and the reality of full-time mothers. Second, we should prepare systematic tools to reduce parenting stress.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e-employment of full-time mothers. Fourth, full-time mothers who raise their first child in their lives experience various negative emotions, a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active psychological intervention system for them. That is, this study classified the stress elements that full-time mothers experience while parenting their first child, and discussed the need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active intervention in psychological and parenting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services.

*Key words: Full-time mother, First child, Parenting stress*

##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엄 형 준\*\*

박 은 아\*\*\*

동명대학교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본 연구는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알고,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서울,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 우울, 자아분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 37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 22.0 프로그램으로 Baron과 Kenne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분화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분화와 우울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아분화를 부분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가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우울로 가는 경로를 보여주며, 중년남성의 우울을 낮추는데 있어서 가족스트레스의 해결 뿐 아니라 자아분화 수준 향상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중년 남성, 가족스트레스, 우울, 자아분화

\* 본 논문은 엄형준(2020)의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엄형준, 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은아,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부부가족상담대학원 연구주임교수,  
1818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90006,  
E-mail: eunapark@daybreak.edu

중년기는 인생 주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달 단계로서 전반적인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기이다. Erickson은 중년의 시기를 비유해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이, 가족 내에서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톱니바퀴 속에서 중년남성들은 개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통해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자아의 출현과 가족체계의 변화로 인한 가족 내 역할 변화, 사회적 역할 요구 등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며(심문희, 2018),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절망, 침체, 무기력, 방황 등과 같은 심리적 위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Evandrou, Glaser, & Henz, 2002). 이러한 중년남성의 역할의 중요성과 심각한 심리적 위기에 비해 중년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상에 따른 연구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여성, 노인을 위한 정책, 연구, 평생교육 또는 상담 중재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중년남성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파이낸셜뉴스, 2014). 이와 같은 중년남성에 대한 부족한 관심은 일 중심적인 우리나라 많은 중년남성은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실정임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년남성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대인 60년대와 70년대에 태어나 학창시절의 또래관계와 졸업 후 사회생활 안에서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중년남성들은 생활 속에서의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으며, 이러한 경쟁이 계속되어 오면서 중년남성들은 개인 심리 내적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 내에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

고, 이는 불안감, 소외감과 어려움으로 중년남성에게 인식되어 진다(김성수, 2001; 이소희, 2019). 이와 함께 'COVID-19'에 의한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극심해진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구조변화에서 오는 직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가정경제에 대한 불안,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중년남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남성에게 가정이나 사회관계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중년남성의 경우도 있다(매일경제신문, 2017). 이러한 현실은 중년남성 개인의 심리 내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중추적인 역할을 생각한다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어 진다. 이는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위기는 중년남성의 우울의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백승준, 2016). 우울은 정서적인 기분 변화에서부터 병적인 심리적 상태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지각, 인지, 사고, 판단, 기억 등 개인의 내적인 요인에서부터 태도, 대인관계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까지 광범위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정유수, 2017; Teasdale, 1983). 우울은 일상의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기분 저하, 의욕상실, 집중력 저하, 수면이나 식욕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우울감을 조절하지 못하면 병리적인 우울증으로 진행된다(안경남, 김민선, 김동구, 서영성, 김대현, 2012; 정유수, 2017). 우울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Munce & Stewart, 2007), 이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우울증 유병율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통계청, 2019).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증상 호소를 덜 해서 우울을 등한시하거나 축소 할 가능성이 높고(양정임, 송효숙, 2018), 우울증 진단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우울 증상들이 대부분 슬픔과 같은 여성의 증상으로 대표되는 이유로 인해 남성의 우울이 여성의 우울에 비해 통계 자료나 연구에 적게 반영되었다(조영임, 2018; Kilmartin, 2005)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남성들은 우울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우울을 인지하지 못한 채 흡연, 음주, 분노로 표현하는 등 역기능적인 습관을 통해 계속하여 행동화하는 경향을 보이며(권석만, 2000), 이러한 남성의 역기능적인 행동화는 중년남성이 우울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성 특유의 특성 때문에 단지 통계상의 수치만으로 중년남성의 우울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자살예방 백서'에서 중년남성 자살자 수가 중년여성 자살자 수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와 세계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4배나 높다는 연구(Houle, Mishara, & Chagnon, 2008)를 통해 중년남성의 우울이 다른 대상들의 우울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거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행동화와 연관(권석만, 2000)하여 생각하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중년남성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퇴직이나 은퇴에 의한 상실감(김보람, 2019; 유현, 2018; Weller, 1984), 직업 관련 스트레스(김수현, 2019; 한상욱, 2015; Melchior et al., 2007), 신체적 변화에서 오는 불안(김수현, 2019; 김예지, 2018; 최빛나, 2018)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가족스트레스가 남성의 심리적 위기와 함께 우울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민정, 2013; 백승순, 2016; 한상욱, 2015)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중년남성의 우울과 관련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고찰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스트레스란 가족이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나 변화 등 가족생활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Lavee & Olson, 1991), 중년남성에게는 가족 내에서 성역할 변화에 따른 부부관계의 재정립과 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의 재정립 등의 변화에 의해 지각될 수 있다. 이런 가족 내의 관계 변화와 함께,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의 다른 원인으로는 가족 재정 문제, 건강, 자녀의 진로문제,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의 직장문제 등 중년남성의 발달단계상에 겪어야 할 특성들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신체적 질환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남성들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장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중년남성들은 가부장적 가치 체계를 형성하여 생활한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체계는 가족의 중년남성이 가지고 있던 가치체계와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년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역할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가족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여성 지위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년남성의 지위가 위축되면서 오는 상실감에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김예지, 2018; 이민아, 2020). 또한, 자녀의 성장에 따른 관계 변화와 동시에 부부 관계 역시 새로운 전환을 겪으면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받는 느낌을 느끼며 가족 내 존재감마저 위기를 맞게 된다(이화

심, 2017; 임영례, 2018). 이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노쇠한 부모 부양의 부담과 자신의 노후대책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가족부양의 과중된 역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선빈, 조수현, 이상민, 2016). 이는 심리 문제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하여 자아분화가 개인의 심리 내적 완충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중년남성에게 있어서도 자아분화의 수준이 우울과 부적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중년여성과 같이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도 자아분화와 상관이 있고,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가족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의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중년남성에게 심리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개인 내적 보호요인 중에 자아분화가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요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분화 수준을 확인하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자아분화가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중년남성의 우울 감소를 위한 상담, 상담중재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 자아분화, 우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부산, 서울, 경남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은 자기 보고식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 실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총 413부 중 설문지에 잘못 기재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41부를 제외한 372부의 자료만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가족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McCubbin, Wilson과 Patterson(1979)의 가족스트레스척도(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기초로 하여 조희선(1991)이 우리나라 가족상황에 맞도록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가족스트레스의 인지 수준을 가족 구성원 중 신체적 악화로 인한 가족 건강스트레스(6문항), 부부관계의 성생활 및 애정관계에 대한 부부관계 스트레스(6문항),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재정 스트레스(8문항), 가족 구성원 중 새로운 직업 선택이나 직업 내 갈등으로 인한 가족 직업 관계 스트레스(7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5문항)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하여 5개의 하위요인 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이 없다'(1점), '경험했으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2점), '경험했으나 별로 심각하지 않다'(3점), '경험했고 약간 심각하다'(4점), '경험했고 매우 심각하다'(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32점

부터 160점까지이다. 하위 영역별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희선(199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1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우울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agovcevic 과 Addis(2008)가 개발한 남성우울 척도(Masculine Depression Scale)를 기초로 하여 우성범(2010)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 보완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남성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남성우울을 내현화(13문항), 외현화(12문항), 표현 억제(7문항)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하여, 3개의 하위요인 별로 측정하였다. 총 32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32점부터 128점까지 이다. 남성 하위 영역별 우울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성범(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 자아분화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척도를 기초로 하여 한석빈(2015)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인지 분화(8문항), 정서적 단절(12문항), 가족 투사 과정(5문항), 가족 퇴행(6문항), 자아의 통합(5문항)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하여 5개의 하위요인 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9, 10, 12번 문항과 31에서 36번 문항까지 9문항은 역으로 점수가 주어진 문항이다. 점수 범위는 36점

부터 144점까지이며, 하위 영역의 자아 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석빈(201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 분석 방법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가족스트레스, 우울, 자아분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스트레스와 자아분화가 우울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e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 자아분화,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스트레스는 자아분화( $r=-.270, p<.01$ )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우울( $r=.386, p<.01$ )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아분화의 경우 우울( $r=-.480, p<.01$ )과 부적 상관을 보여 변수들의 상관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1. 전체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수

(N = 372)

|           | 1       | 2       | 3    |
|-----------|---------|---------|------|
| 1. 가족스트레스 | -       |         |      |
| 2. 자아분화   | -.270** | -       |      |
| 3. 우울     | .386**  | -.480** | -    |
| 평균        | 1.89    | 2.84    | 1.53 |
| 표준편차      | .57     | .24     | .45  |

주. \*\* $p < .01$ .

###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중년남성의 자아분화 수준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가족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2와 그림 1과 같다. 1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 $F=29.0299$ ,  $p<.001$ ), 가족스트레스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270$ ,  $p<.001$ ). 다음으로 2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 $F=29.029$ ,  $p<.001$ ),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386$ ,  $p<.0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표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자아분화가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 $F=79.634$ ,  $p<.001$ ), 자아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405$ ,  $p<.001$ ),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277$ ,  $p<.001$ ). 더불어 3단계에서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beta=.277$ )가 2단계에서의 영향의 크기( $\beta=.386$ )보다 그 절대 값이 감소함과 동시에 3단계에서의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통해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분화가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2.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N = 372)

| 단계 | 준거 변인 | 예측변인           | $R^2$ | $F$       | $B$             | $SE$           | $\beta$ | $t$       | VIF   |
|----|-------|----------------|-------|-----------|-----------------|----------------|---------|-----------|-------|
| 1  | 자아분화  | 가족스트레스         | .073  | 29.029*** | 3.293           | 0.042          | -.270   | -5.388*** | 1.297 |
| 2  | 우울    | 가족스트레스         | .149  | 64.810*** | 0.293           | 0.036          | .386    | 8.050***  | 1.322 |
| 3  | 우울    | 가족스트레스<br>자아분화 | .301  | 79.634*** | 0.210<br>-0.717 | 0.034<br>0.080 | .277    | 6.124***  | 1.322 |

주. \*\*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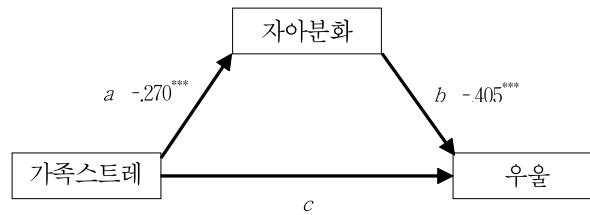


그림 1.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논 의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Hayes(2016)의 PROCESS(Version 2.16) 매크로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ab)의 표준오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출함으로써 추정하는 방법으로 95%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을 제시하고,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자아분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과 같이 가족스트레스가 자아분화를 거쳐 우울로 가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이 .128 ~ .287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남성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 중년남성이 느끼는 우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고, 가족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우울 감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 자아분화, 우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해지며, 중년남성의 우울에 있어 가족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백승준, 2016; 양유정, 2012; 정미경, 이규미, 201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자아분화 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표 3.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Bootstrapping 결과

(N = 372)

| 경로                 | B    | SE   | 95% 신뢰구간 |      |
|--------------------|------|------|----------|------|
|                    |      |      | 하한       | 상한   |
| 가족스트레스 → 자아분화 → 우울 | .210 | .041 | .128     | .287 |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결과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스트레스와 자아분화 수준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한 선행 연구 결과(한선빈, 조수현, 이상민, 2016)와 일치한다. 또한 중년남성은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을 통하여 지적인 기능과 정서적 기능 사이에 균형을 이뤄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자아분화가 개인 심리 내적 보호 요인으로 가족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Bowen, 1993)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중년남성의 자아분화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능하게 대처를 해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김세동, 2019; 신소림, 2015; 심순구, 2017; Bowen, 1976)과 일치한다.

둘째,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분화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스트레스가 전체적인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김정남, 2013; 한선빈, 조수현, 이상민, 2016), 중년 여성의 자아분화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김연희, 2011; 임지혜, 2004), 그리고 자아분화 하위 요인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나 대학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각각 다르게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 결과(한선빈, 조수현, 이상민, 2016; Skowron, Wester, & Azen, 2004)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분화를 거쳐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우울 수준도 높아지지만 자

아분화 수준이 높다면 가족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심리내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중년남성의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확인은 가족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우울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족 체계 내에서 중년남성이 가족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우울감을 느낄 때 자아분화는 생각을 감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타인과 자신의 자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와 가족 내 역할 변화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 가족 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정리하면, 중년남성들은 우울의 원인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원인에 대해서 인지를 하더라도, 그 원인들은 가족스트레스나 갱년기 증상과 같이 제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원인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중년남성이 피할 수 없는 가족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상황에서, 가족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심리내적 자기 보호 요인인 자아분화를 통해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가는 중년남성의 우울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입장의 개입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아분화 수준 향상 프로그램이나 우울 감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다면 가족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리내적인 보호 요인으로 자아분화가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가 부산을 중심으로 서울, 경남, 기타 지역의 중년남성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전국으로 폭을 확대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월평균 수입, 학력,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세분화와 균등한 비율을 고려한 중년남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

보고식 질문기법으로 가족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관하여 설문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성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고, 연구 대상인 중년남성이 여성에 비해 증상 호소를 덜 하는 경향(조현주, 임현우, 조선진, 방명희, 2008)이나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권석만, 2000)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우울, 자아분화의 실제 수준과 응답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규명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찰법이나 면접법을 통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권석만 (2000). **우울증: 침체와 절망의 늪**. 서울: 학지사.
- 김보람 (2019). **중년기 남성의 우울 및 은퇴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2001).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동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2019). **중년남성의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위기감의 관계에서 갱년기증후군과 노후준비도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2011). **중년기 여성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지 (2018). **노화불안이 중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린 (2020). **성별에 따른 중년기 성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2013). **중년 여성의 가족스트레스 인지와 자기분화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 매일경제신문 (2017년 5월 4일). **김부장은 어쩌다 끝대가 됐을까?** <http://www.mk.co.kr>
- 민선희 (2017). **가정에 대한 책임감 및 정서적 위기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은퇴불안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2013). **중년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 (2010).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감, 자아분화와 중년기 위기감과의 관계**.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지 (2014).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미예, 이은희 (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52(1), 85-112.
- 백승순 (2016). **중년기 남성의 우울 구조 모형: 스트레스 대처 모델 적용**.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소림 (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문희 (2018). **중년남성 위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순구 (2017).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남, 김민선, 김동구, 서영성, 김대현 (2012). 중년 남성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성향.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13(4), 181-188.
- 양유정 (2012). **자아존중감과 가족스트레스가 중년부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커플관계 자료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임, 송효숙 (2018). 중년 남성의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및 우울 정도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8(4), 777-788.
- 우성범 (2010). **한국판 남성우울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채영 (2009). **청소년의 부정적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현 (2018). **중년 직장남성의 자살사고 예측요인**.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2012). **중년기의 스트레스와 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아 (2020). **한국 중년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중년 위기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및 연령대의 조절효과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희 (2019). **직장 내 대인관계와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남성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옥 (2003). **가족체계 유형과 미혼성인의 자아분화, 우울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10). **가족상담 :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화심 (2017). **우울증 아내를 돌보는 중년 남성의 심리적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운 (2011).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 인지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례 (2018). **원가족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중년기부부 갈등인지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 부부의사소통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희 (2004). **중년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혜 (2004). **중년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 이규미 (2010).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낙관주의 및 적응유연성의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30(2), 629-642.
- 정유수 (2017). **마음챙김 명상(MBSR)이 중년남성의 스트레스,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치료**, 15(1), 19-46.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임 (2018). **30대 한국 성인 남성의 우울증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주, 임현우, 조선진, 방명희 (2008). 성인 남녀의 우울감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83-297.
- 조희선 (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 주혜옥 (2020). **빈둥지시기에 있는 중년후기 여성의 심리적 경험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빛나 (2018).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9) **국가정신건강현황**.
- 파이낸셜뉴스(2014). **중년남성 우울증 주의보 '50대 남성 자살률도 증가'**. <https://www.fnnews.com/news/201412100827293497>에서 2014. 12. 10. 인출
- 한상옥 (2015). **중년 기혼남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석빈 (2015). **중년여성의 자아분화수준이 가족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선빈, 조수현, 이상민 (2016). 가족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509-52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ss, P. G. (1980). Normative family stress: Family boundary change across the life span. *Family Relations*, 29(4), 445-450.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4(1), 2-90.
- Bowen, M. (1993).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MD: Jason Aronson.
- Evandrou, M., Glaser, K., & Henz, U. (2002). Multiple role occupancy in midlife: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in Britain. *The Gerontologist*, 42(6), 781-789.
- Houle, J., Mishara, B. L., & Chagnon, F. (2008). An empirical test of a mediation model of the impact of the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on suicidal behavior in m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7(1-3), 37-43.
- Kerr, M. E., Bowen, M., & Kerr, M. E. (1988). *Family evaluation*. NY: WW Norton & Company.
- Kilmartin, C. (2005). Depression in men: Communication, diagnosis and therapy. *Journal of Men's Health and Gender*, 2(1), 95-99.
- Lavee, Y., & Olson, D. H. (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786-798.
- Magovcevic, M., & Addis, M. E. (2008). The Masculine Depress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9(3), 117-132.
- McCubbin, H. I., Patterson, J. M., & Wilson, L. (1979).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 In N. Fredman, & R. Sherman (Eds.), *Handbook of measurements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pp. 194-198). NY: Brunner/Mazel.
- Melchior, M., Caspi, A., Milne, B. J., Danese, A., Poulton, R., & Moffitt, T. E. (2007). Work stress precipitates depression and anxiety in young, working women and men. *Psychological Medicine*, 37(8), 1119-1129.
- Munce, S. E., & Stewart, D. E. (2007). Gender

-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chronic pain conditions in a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Psychosomatics*, 48(5), 394-399.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MA: Allyn and Bacon.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kowron, E. A., Wester, S. R., & Azen, R.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mediates college stress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1), 69-78.
- Teasdale, J. D. (1983). Negative thinking in depression: Cause, effect, or reciprocal relationship?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5(1), 3-25.
- Weller, E. K. (1984). A profile of male mid-life concern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orth Carolina, USA.
-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0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8일

## The Mediation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Depression Perceived by Middle-Aged Men

Um, Hyung Jun

Park, Eun A

Tongmyong University

Daybrea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Depression perceived by Middle-aged me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13 middle-aged men residing in Busan, Seoul, and other cities in South Korea.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answer sheets from 372 respondents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mily Str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ifferentiation of self: differentiation of self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Second, there was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 the path of family stress perceived by middle-aged men to depression through differentiation of self, suggesting that it is important not only to solve family stress but also to improve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lowering depression in middle-aged me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Middle-Aged Male, Family Stress, Depression, Differentiation of self*



#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Functioning in Asian Countries

Kim, Hye Jin<sup>\*</sup> Ko, Mei Ju<sup>\*\*</sup> Oh, Jea Eun<sup>\*\*\*</sup>

Daybrea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healthy family functioning among 685 individuals residing in China, South Korea,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An ANCOVA analysis showed that the four country groups had significantly different mean scores in thei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 MANCOVA analysis showed that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regardless of the different country groups.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Family satisfaction, Cross-cultural study, MANCOVA, ANCOVA, Asian, Korean, Chinese, Taiwanese.

---

\* 제1저자: Kim, Hye Jin, Ph.D., Associate Professor, Daybreak University School of Couples and Family Therapy

\*\* 제2저자: Ko, Mei Ju, Ph.D., Research Professor, Daybreak University School of Couples and Family Therapy

\*\*\* 제3저자: Oh, Jea Eun, Ph.D., Professor, Daybreak University School of Couples and Family Therapy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im, Hye Jin, Ph.D., Associate Professor, Daybreak University School of Couples and Family Therapy, E-mail: jinkim@daybreak.edu

Marriage and Family Therapy (MFT) has greatly influenced in the Asian mental health field in the last three decades. Scholars want to examine if theories and concepts developed in the Western culture are applicable to cultures in the East (Farmer & Geller, 2005; Kohler, 1997; Lam & Chan-So: 2015). Lee & Mock (2005)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ultural sensitivity when adopting western developed family therapy in working with Asian families.

Bowen Family Systems Theory (BFST; Bowen, 1978; Kerr & Bowen, 1988) is an MFT model which is well-known and widely used b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in many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South Korea, Hong Kong, and Taiwan (e.g., Chung & Gale, 2009; An, Qiu, & Liu, 2012; Ma, 2011). The BFST takes a transgenerational approach and believes that current problems in individuals, couples, and families are influenced by their family of origin issues (Bowen, 1978). The transgenerational approach attracts Asian mental health providers because it corresponds with an Asian culture, that emphasizes the family and the collectivity. The primary goal of BFST is to help individuals become differentiated from their families of origin. Kerr and Bowen (1988) suggest the concept of differentiation of self is universal and also claim a more differentiated self is related to more positive family, couple, and individual functioning.

BFST was developed based on the examination of individuals in individualistic cultures where concepts such as autonomy and independence from family members are emphasized. Compar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collectivistic cultures are more likely to value the family unit, close family kinship, and the “We” identity rather than the “I” (Hess & Hess, 2001; Lee & Mock, 2005). Thus, through the Bowenian lens, individuals living in collectivistic cultures may have lower levels of differentiation than individuals in individualistic cultures. This implies that individuals in collectivistic cultures may exhibit lower levels in healthy family functioning.

While these concepts have been tested in America, there is no empirical research to support that the concept of differentiation of self is universal. A limited number of studies conducted with different cultural groups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healthy family functioning (Chung & Gale, 2009; An, Qiu, & Liu, 2011; Sim & Sin, 1994). In fact, many scholars contend that differentiation—a concept developed in the Western world based on an individualistic culture, may not be applicable to the Eastern world where cultures are uniquely collectivistic.

Nevertheless, researcher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round the world have actively utilized the BFST without an appropriate examination. Thu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resent research conducted this empirical study to examine how the differentiation of self was associated with family functioning in diverse cultural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healthy family functioning are strongly correlated in collectivistic cultures as they are in individualistic cultures. This study compared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Chinese living in China, South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Taiwanese living in Taiwan, and White Americ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 outcome of the research will provide evidence of how the western model BFST works with Asian clients. In addition, by examining multiple Asian country groups, we hope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garding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functioning across these different cultural groups. Furthermore, this study could provide some culturally sensitive recommendations for clinician when utilizing BFST in their work with Asian country populations.

## Literature Review

### Differentiation of Self

BFST viewed families as an emotional system in which togetherness and individuality are two counterbalancing life forces (Kerr & Bowen, 1988). In the emotional system, human beings are born with a need for togetherness and it makes them pursue connection with and develop dependence on their primary caretaker(s). As they grow older, they seek independence and individuality (Kerr & Bowen, 1988). Differentiation of self is the process that “every human being propels the developing child to grow to be an emotionally separate person, an individual with the ability to think, feel, and act for himself” (Kerr & Bowen, 1988,

p. 95). Kerr and Bowen (1988) described that individuals with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could remain in close emotional contact with others, while maintaining their individuality. On the other hand, individuals with low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re more likely to give up their individuality and become overly fused with their relational system. The fusion results in emotional reactivity to others and may lead to cut-off in relationships (Kerr & Bowen, 1988).

### Differentiation of Self and Asian Culture

Although Bowen argued that his mod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was universal (Bowen, 1978), his theory was constructed in the American culture where independence and individualism have been the core values of the dominant culture since the country's beginnings (McGill & Pearce, 2005). The emphasis of personal development is different between Asian and Western culture. Plath (1982) observed that Asian cultures define development in terms of capacity for connection, whereas Western cultures define it in terms of the capacity for differentiation.

The literatures sugges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erm of “meaning of self” between the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Chinese culture has a broader meaning of self (Lam, 1997, 1998). The Chinese self is not only a separate entity, but also includes a wide variety of significant others. The Chinese self is therefore “hammered in” and regulated by kinship organization (Hsu, 1963), and it is a “social self” (Yang, 1981). Thus, the concept of differentiation

of self could be more valid with individuals living in individualistic cultures than it is for Chinese living in a collectivistic culture.

The constru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BFST was not only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where individualistic values were encouraged, but was examined with samples consisting predominantly of White Americans (Farmer & Geller, 2005). Although there is a growing body of research that examines differentiation levels and the effect on individuals in Asian cultures (Chung & Gale, 2009; Tuason & Friedlander, 2000), the results were not consistent throughout. Tuason and Friedlander (2000) found no differences in the differentiation score in the Filipino samples in comparison to U.S. samples done by Skowron and Friedlander's (1998). In China and Taiwan, studies on college students found higher differentiation of self leads to better mental health (Yau, Liu, & Zhao, 2011; Wu, 2010; Ma, 2011), better sense of security (Wang & An, 2014), and better self-consistency and congruence (An, Qui, & Liu, 2012). In a study with 4000 Taiwan adolescents (13-15years), O-Yang and Wu (2012) found that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etter mental health in the Taiwan adolescents.

Some studies suggested higher differentiation of self may not always related to better mental health in Asian population. For instance, Choi (2002) studies on Korean American students' general psychological interdependence on their parents (rather than individualized from the family) was associated with positive college adjustment. Korean adolescents with more

intergenerational fusion tend to have higher self-esteem (Chun & MacDermid, 1997). Tafari and Marshall (2004) found Japanese college students have less need for and may be more averse to standing out for their own sake in comparison to Canadian college students. While research in comparing differentiation levels in Americans with that in Koreans and Filipinos (i.e., Chun & MacDermid, 1997; Chung & Gale, 2006; Chung & Gale, 2009; Tuason & Friedlander, 2000), there is a relative paucity of studies that have involved multiple Asian countries.

## **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ing in Asian Countries**

A few researchers have examined whet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were correlated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or family functioning. Studies on Chinese college students found differentiation of self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functioning (An, Qiu, & Liu, 2011) and negatively related to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conflict with parents (Na, et al., 2015). A qualitative study with 12 Chinese college students showed that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were more rational, adjusted their emotion more reasonably, and had better family connection when compared to students with low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 Qiu, & Wang, 2012).

In Taiwan, Wu (2002) studied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d found adolescents with higher differentiation predict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Shih, Wu, and Lin (2010) examined 423 Taiwan

high school students. They found that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differentiation not only reported higher individual functioning but also were less likely triangulated into their parents' relationship.

However, there have been inconsistent study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South Korean family functioning. Sim & Sin (1994), who studied 578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reporte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is related to lower levels of family functioning. Yet, a critique questioned the study did not use a reliable scale in measuring differentiation levels. Later, Chung and Gale (2009) used a more reliable family-of-origin scale (Hovestadt et al., 1985) and the differentiation level was measured with DSI-R (Skowron, & Schmitt, 2003).

Healthy family functioning could be defined divergently based on societal and cultural values. Family values of Asian families are different from Western families. Both Chinese and Korean culture were rooted in Confucian philosophy and embedded in a collective context, which is markedly different from Western Culture (Bond & Hwang, 1986; King & Bond, 1985). In the collectivistic society, togetherness, a clear hierarchy, and harmony among family members are highly valued, whereas independence, individualism, equality, and autonomy are often emphasized in Western cultures (Kim & Rye, 2005; Kim, 1997).

In Chinese culture, the idea of Chinese relationships are "familistic", which means that famil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all aspects of Chinese life (Hsu, 1971; Lang, 1946). There is

an attitude of family over others: there is a clear preference for relationships with those in the family and from those who are not (Lau, 1981). With the globalization trend in the world, some may argue Asian family value might be diminished, as the newer generation are more westernized. However, Lam & Chan-So (2015) founds that even in westernized Chinese people in Hong Kong, the value of family is still a dominant concept influencing their behavior. Therefore, Chinese individuals may not consider fusion with a family member, same as fusion with others (outside of family), in compared to Western individuals. Chinese individuals will consider family members part of their "self". What is going on with the family business, is also part of each individual's business. This value of family and self may be considered dysfunctional according to BFST, but it may be considered normal within the Chinese culture.

When considering these conflicting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Asian families, the current study is a valuable examination of how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s related to family functioning.

##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Family satisfac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are closely related with family functioning. Olson (2000) stated that family communication skills were positively related to healthy family functioning. The positive communication skills included clarity, empathy, and effective problem solving and allowed family members to flexibly adjust their family system as needed (Olson,

2000). Furthermore, healthy families who maintained balanced family cohesion and flexibility had higher family satisf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Olson, 2011). Researchers have also foun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y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satisfaction. In short, individuals who maintained healthier family functioning were more likely to use posi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to feel satisfaction in their family relationships (Craddock, 2001; Loredio, Di Nuovo & Visani, 2013).

### Focus of the Present Stud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provide evidence whether the claims of widely used Bowen Family System Theory of the universality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ts relationship with healthy family functioning, is in fact accurate cross-culturally.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two hypotheses strictly based on the Bowen family systems theory. With the hypotheses, levels of 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Chinese in China, Koreans in South Korea, Taiwanese in Taiwan, and White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were compared: (1) Individuals with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will report healthier family functioning, more positive family communication, and greater family satisfaction across the four national groups; (2) White American group living in the individualistic culture will have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than three Asian groups living in the collectivistic culture.

## Method

### Participants and Procedures

The inclusion criteria for this study were 1) individuals who are 18 years or older, and 2) Chinese living in China, Korean living in South Korea, Taiwanese living in Taiwan, and White America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ough universities in South Korea, China, Taiwan, and the U.S. Individuals chose to complete the survey website through a link on the e-mail advertisement or completed a paper survey. The Chinese and Taiwanese paper survey were done in classroom settings. The participants took the survey anonymously with no compensation.

When the current study takes the standard  $\alpha$ -level of .05 and recommended statistical power of .80 ( $\beta = .20$ ), the recommended sample size per group is 45 cases per four-group plan to detect a medium effect size ( $r = .25$  for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ohen, 1992).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was proper to maintain adequate statistical power with a total of 685 participants including 372 Chinese individuals, 99 South Koreans, 118 Taiwanese individuals, and 96 White American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ranged in age from 18 to 29 years ( $M = 21.3$ ,  $SD = 2.5$ ).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single, college students/graduates, and living alone or with roommates. Except the White American sample, there were more male participants than female participants in the three Asian group sample. Table 1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sample.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for the Sample

(N=685)

|                                                                 | Korean<br>(n = 99) | Taiwanese<br>(n = 118) | Chinese<br>(n = 372) | White US<br>(n = 96) |
|-----------------------------------------------------------------|--------------------|------------------------|----------------------|----------------------|
| <b>Age</b>                                                      |                    |                        |                      |                      |
| 18-29                                                           | 99 (100%)          | 118 (100%)             | 372 (100%)           | 96 (100%)            |
| <b>Gender</b>                                                   |                    |                        |                      |                      |
| Female                                                          | 35 (35%)           | 50 (42%)               | 102 (27%)            | 50 (52%)             |
| Male                                                            | 64 (65%)           | 68 (58%)               | 270 (73%)            | 46 (48%)             |
| <b>Highest Education</b>                                        |                    |                        |                      |                      |
| Currently enrolled in a college & College degree                | 67 (68%)           | 114 (96%)              | 349 (94%)            | 80 (83%)             |
| Currently enrolled in a graduate school & Post-college degree   | 20 (20%)           | 2 (2%)                 | 13 (3.4%)            | 16 (17%)             |
| Missing                                                         | 12 (12%)           | 2 (2%)                 | 10 (2.6%)            |                      |
| <b>Living Status</b>                                            |                    |                        |                      |                      |
| Living alone or with roommate(s)                                | 22 (22%)           | 93 (79%)               | 196 (53%)            | 73 (76%)             |
| Living with family member(s) (e.g., a partner, parent(s), etc.) | 77 (78%)           | 25 (21%)               | 176 (47%)            | 23 (24%)             |
| <b>Relationship Status</b>                                      |                    |                        |                      |                      |
| Single                                                          | 59 (60%)           | 84 (72%)               | 280 (75%)            | 44 (46%)             |
| Dating or married                                               | 40 (40%)           | 34 (28%)               | 92 (25%)             | 52 (54%)             |

## Measures

### Differentiation Level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 (DSI-R; Skowron & Schmitt, 2003) was used to measure individual's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The DSI-R has 46 items with four subscales including "I" Position, Emotional Reactivity, Fusion with others, and Emotional Cut-off. A higher score on the DSI-R indicates greater ability to take "I" positions in relationships, a greater differentiation level with less emotional reactivity, less fusion with others, and less emotional cutoff. The English version of DSI-R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Chinese through translation-back translation method by six bilingual Korean, Chinese, and Taiwanese graduate students. Participants completed the DSI-R in their own language. The DSI-R was tested with individuals in the US and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 with a total test coefficient alpha of .92. Four subscales used in the study showed good reliability: "I" Position ( $\alpha = .81$ ), Emotional Reactivity ( $\alpha = .89$ ), Fusion with Others ( $\alpha = .86$ ), and Emotional Cutoff ( $\alpha = .89$ ) (Skowron & Schmitt, 2003). Several studies have self-translated DSI-R into Chinese and Korean language. These studies tested

self-translated versions of DSI-R with individuals living in China, Taiwan, and South Korea and reported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Lam & Chan-So, 2015; Wu, 2010; O-Yang & Wu, 2012; Kim, Prouty, Smith, Ko, Wetchler & Oh, 2015). Table 2 shows the reliability of the four subscales for the four national groups of participants in the current study.

#### Family Functioning

Family functioning of participants was measured with an English, Chinese, or Korean version of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IV; Olson, 2011). The Korean and Chinese versions of the FACES-IV were developed through translation-back translation method (see [http://www.facesiv.com/pdf/translation\\_guidelines.pdf](http://www.facesiv.com/pdf/translation_guidelines.pdf)). Total Circumplex ratio of the FACES-IV was used for this study. When the total ratio is one or higher, family functioning is viewed as more balanced and functional. The FACES-IV has six subscales and previous research has established high internal consistency for them (Olsen, 2011): Balanced Flexibility = .84, Balanced Cohesion = .89, Chaotic = .86, Enmeshed = .77, Disengaged = .87, and Rigid = .82. Table 2 shows th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of the six subscales for the four groups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 Family Communication

Family communication was measured with an English, Chinese, or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10-item Family Communication scale based on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Barnes & Olson, 1985). The measure was also already translated into Korean and Chinese through the translation-back translation method (see [http://www.facesiv.com/pdf/translation\\_guidelines.pdf](http://www.facesiv.com/pdf/translation_guidelines.pdf)). A higher score on this scale indicates more positive communication in family system.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good ( $\alpha = .90$ ) with a national sample of 2465 individuals with a good test re-test reliability ( $\alpha = .86$ ) (Olson, 1995). In the present study, this scale had a good reliability for South Koreans, Taiwanese individuals, Chinese individuals, and White Americans in the U.S.,  $\alpha = .93$ ,  $\alpha = .92$ ,  $\alpha = .89$ , and  $\alpha = .93$  respectively.

#### Family Satisfaction

Family satisfaction was assessed with an English, Chinese, or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10-item Family Satisfaction scale (Olsen, 1995). The Korean and Chinese versions of the Family Satisfaction scale were developed through the same translation-back translation method (see [http://www.facesiv.com/pdf/translation\\_guidelines.pdf](http://www.facesiv.com/pdf/translation_guidelines.pdf)). A higher score on the scale indicates greater satisfaction in family system.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good ( $\alpha = .92$ ) based on a sample of 2465 family members with a good test re-test reliability ( $\alpha = .85$ ) (Olsen, 1995). In this study, this scale had a good reliability for South Koreans, Taiwanese individuals, Chinese individuals, and White Americans in the U.S.,  $\alpha = .93$ ,  $\alpha = .95$ ,  $\alpha = .88$ , and  $\alpha = .93$  respectively.

Table 2. Reliability (Cronbach's alpha) of the DSI-R and FACES-IV for the Four National Groups ( $N = 685$ )

| Subscales |                      | Korean<br>( $n = 99$ ) | Taiwanese<br>( $n = 118$ ) | Chinese<br>( $n = 372$ ) | White US<br>( $n = 96$ ) |
|-----------|----------------------|------------------------|----------------------------|--------------------------|--------------------------|
| DSI-R     | Emotional Reactivity | 0.84                   | 0.79                       | 0.61                     | 0.9                      |
|           | "I" Position         | 0.77                   | 0.73                       | 0.51                     | 0.77                     |
|           | Emotional Cut-off    | 0.75                   | 0.76                       | 0.57                     | 0.84                     |
|           | Fusion with Others   | 0.73                   | 0.68                       | 0.57                     | 0.76                     |
| FACES-IV  | Balanced Cohesion    | 0.83                   | 0.87                       | 0.72                     | 0.82                     |
|           | Balanced Flexibility | 0.74                   | 0.82                       | 0.77                     | 0.74                     |
|           | Enmeshed             | 0.73                   | 0.78                       | 0.63                     | 0.81                     |
|           | Disengaged           | 0.73                   | 0.63                       | 0.5                      | 0.71                     |
|           | Chaotic              | 0.76                   | 0.69                       | 0.61                     | 0.74                     |
|           | Rigid                | 0.76                   | 0.74                       | 0.82                     | 0.73                     |

## Results

###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the four different national groups. An ANCOVA is utilized when meas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dependent variable and covariates in a fixed variable in a study (Field, 2013). In this study, the fixed variable was the country groups,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the covariates were age, gender, education, relationship status, and living status. Results indicated that the four country groups had significantly different mean scores in thei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F(3, 624) = 11.13, p < .001$  (see Table 3). Planned contrasts showed that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in the White American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Korean and Chinese groups,  $t(673) = 5.78, p < .001$  and  $t(673) = 4.61, p < .001$ , respectively. However, the

Taiwanese group and the White group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gard to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p > .05$ . The results parti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1: White American group living in the individualistic culture will have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than three Asian groups living in the collectivistic culture.

Among three Asian groups, the Taiwanese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than the Korean and Chinese groups,  $t(673) = -4.89, p < .001$  and  $t(673) = 3.38, p < .001$ , respectively. The Korean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than the Chinese group  $t(673) = -3.05, p < .001$ . (see Figure 1). Among the control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 levels, living status, and relationship status) in the regression analysis, gende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ifferentiation levels of the White American group ( $\beta = -.27, t = -2.54, p < .05$ ). That is, male participants had higher scores on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than female participants. Also, living statu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in Chinese participants, ( $\beta = -.24$ ,  $t = -2.66$ ,  $p < .01$ ), meaning that Chinese individuals living with family including partner(s), parents, and/or other family members had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than those who lived alone or with roommates.

##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 Family Functioning

A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MANCOVA) is an appropriate analysis when there are a fixed variable, covariates, and several dependent variables. Instead of using several ANCOVAs, MANCOVA not only shows any relationship among dependent variables but also lowers the change of making a Type I error (Field, 2013). In the current study, the MANCOVA was conducted with four country groups as the fixed variable and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s. The covariates wer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ge, gender, education, relationship status, and living status.

Pillai's trace showed significant effects of differentiation levels on family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meaning that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regardless of the different country groups,  $V = .07$ ,  $F(3, 619) = 14.87$ ,  $p < .001$ . The result supported hypothesis 2: Individuals with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will report healthier family functioning, more positive family communication, and greater family satisfaction across the four national groups. Significant univariate between-group effects were found for family functioning,  $F(3, 673) = 13.33$ ,  $p < .001$  (see Table 3). Planned contrasts showed that the White America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family functioning than the Korean, Taiwanese, and Chinese groups,  $t(681) = 5.98$ ,  $p < .001$ ,  $t(681) = 4.90$ ,  $p < .001$ , and  $t(681) = 4.13$ ,  $p < .001$ , respectively. Among three Asian groups, the Korean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family function than Chinese group,  $t(681) = -3.43$ ,  $p < .01$ . The Taiwanese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hinese and Korean groups for the family function,  $p > .05$ .

### Family Communication

Significant univariate between-group effects were found for family communication,  $F(3, 673) = 5.93$ ,  $p < .001$  (see Table 3). The planned contrast showed that the White America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family communication than the Korean and Taiwanese groups  $t(681) = 3.01$ ,  $p < .01$  and  $t(681) = 3.99$ ,  $p < .001$ . However, the Chinese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White American group on the family communication,  $p > .05$ . Also, the Chinese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Korean and Taiwanese groups for family communication  $t(684) = -3.31$ ,  $p < .01$  and  $t(684) = 4.58$ ,  $p < .001$ . The Korean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aiwanese group for the level of family communication  $p > .05$ .

### Family Satisfaction

There was significant univariate between-group effects on family satisfaction,  $F(3, 673) = 3.54$ ,  $p < .05$  (see Table 3). In the results of the planned contrast, White America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family satisfaction than the Korean and Taiwanese groups,  $t(681) = 2.75$ ,  $p < .01$  and  $t(681) = 2.85$ ,  $p < .01$ , respectively. Also, the Korean and Taiwanese groups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s than the Chinese group for the family satisfaction  $t(684) = -2.91$ ,  $p < .01$  and  $t(684) = -3.12$ ,  $p < .01$ , respectively. The Chinese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White group ( $p > .05$ ) and the Korean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aiwanese group for the level of family satisfaction ( $p > .05$ ).

### Subscale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Functioning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four subscales of differentiation (Emotional Reactivity, I-Position, Emotional Cutoff, and Fusion with Others) and family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Across all four groups, when individuals had lower levels of Emotional Cutoff in family relationships, they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see Table 4). For the Korean and White American groups, lower levels of Emotional Reactivity in family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higher level of family functioning,  $r = .33$ ,  $p < .01$  and  $r = .22$ ,  $p < .05$ , respectively. The White American group showed that taking more

I-Po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mily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r = .24$ ,  $p < .01$ ,  $r = .25$ ,  $p < .01$ , and  $r = .26$ ,  $p < .05$ , respectively. Taking more I-Position was also positively related with family satisfaction in the Korean group ( $r = .28$ ,  $p < .01$ ), family functioning in the Chinese group ( $r = .36$ ,  $p < .001$ ), and family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Taiwanese group ( $r = .19$ ,  $p < .05$  and  $r = .31$ ,  $p < .01$ , respectively. Interestingly, the Chinese group showed that Fusion with Others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s of family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r = -.30$ ,  $p < .01$  and  $r = -.33$ ,  $p < .001$ , respectivel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negative association, a regression analysis was additionally conducted with control variables (age, gender, education, relationship status, and living status). The results showed that Fusion with Others in the Taiwanese group had significant and negatively association with their family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beta = -.22$ ,  $t = -2.08$ ,  $p < .05$ ,  $\beta = -.37$ ,  $t = -3.66$ ,  $p < .001$ , and  $\beta = -.394$ ,  $t = -3.95$ ,  $p < .001$ , respectively.

### Control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mily functioning in the Chinese group ha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gender and living status,  $\beta = -.24$ ,  $t = -4.04$ ,  $p < .001$  and  $\beta = -.16$ ,  $t = -3.05$ ,  $p < .01$ , respectively. That is, male participants in China reported better family functioning than female participants. Also, Chinese individuals living alone or with

roommates reported better family functioning than those who lived with family including partner(s), parents, and/or other family members.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control variables on family functioning in Korean, Taiwanese, and White American groups.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in Four Groups**

|                         | Korean<br>( <i>n</i> = 97) | Taiwanese<br>( <i>n</i> =116) | Chinese<br>( <i>n</i> =369) | White US<br>( <i>n</i> = 95) | F(3, 624) |
|-------------------------|----------------------------|-------------------------------|-----------------------------|------------------------------|-----------|
|                         | M ( <i>SD</i> )            | M ( <i>SD</i> )               | M ( <i>SD</i> )             | M ( <i>SD</i> )              |           |
| Differentiation of Self | 148.33 (26.78)             | 165.49 (24.24)                | 157.21 (18.91)              | 174.44 (30.79)               | 11.13***  |
| Family Functioning      | 1.90 (0.71)                | 2.01 (0.87)                   | 2.18 (0.91)                 | 2.70 (1.09)                  | 10.37***  |
| Family Communication    | 47.44 (21.01)              | 44.39 (25.70)                 | 56.95 (26.13)               | 59.55 (28.89)                | 6.39***   |
| Family Satisfaction     | 34.00 (24.92)              | 33.65 (24.42)                 | 42.52 (26.19)               | 44.60 (29.52)                | 3.54*     |

Note. \**p* < .05. \*\**p* < .01. \*\*\**p* < .001.

**Table 4. Correlations of Study Subscales of Differentiation for the Four National Groups**

|                      | Korean Group<br>( <i>n</i> =97) |       |       | Taiwanese Group<br>( <i>n</i> =116) |        |         | Chinese Group<br>( <i>n</i> =369) |        |       | White US Group<br>( <i>n</i> =95) |       |       |
|----------------------|---------------------------------|-------|-------|-------------------------------------|--------|---------|-----------------------------------|--------|-------|-----------------------------------|-------|-------|
|                      | FF                              | FC    | FS    | FF                                  | FC     | FS      | FF                                | FC     | FS    | FF                                | FC    | FS    |
| Emotional Reactivity | .33**                           | 0.16  | 0.19  | 0.13                                | -0.01  | -0.05   | 0.02                              | 0.08   | 0.05  | .22*                              | 0.13  | 0.11  |
| I-Position           | 0.08                            | 0.19  | .28** | 0.15                                | .19*   | .31**   | .36***                            | 0.07   | 0.05  | .25*                              | .24*  | .26*  |
| Emotional Cutoff     | .36**                           | 0.11  | 0.01  | .36***                              | 0.12   | -0.02   | .23***                            | .36*** | .18** | .37***                            | .33** | 0.14  |
| Fusion with others   | 0.12                            | -0.09 | -0.03 | -0.17                               | -.30** | -.33*** | -0.02                             | -0.08  | -0.04 | 0.03                              | 0.03  | -0.01 |

Note. FF = Family Functioning, FC = Family Communication, & FS = Family Satisfaction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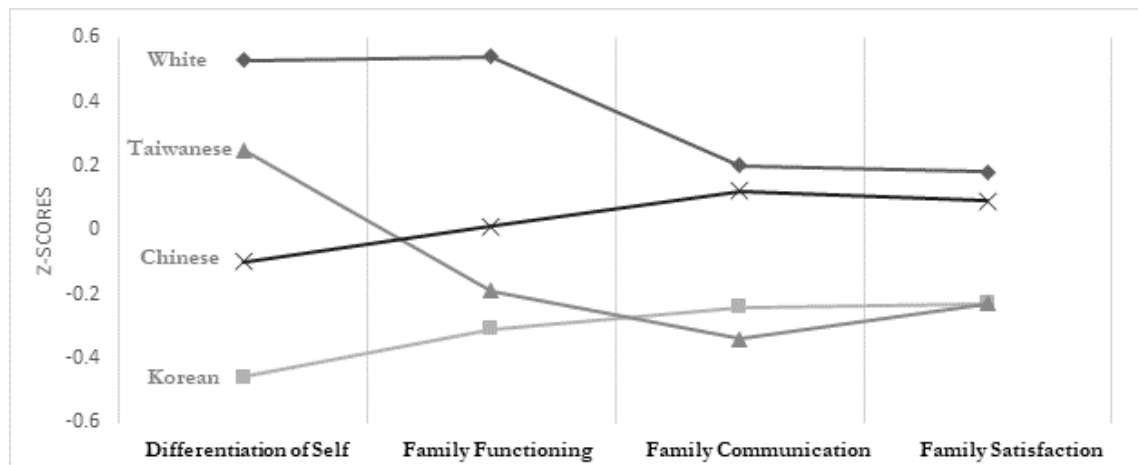


Figure 1.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Four National Groups. Note. The original mean scores of differentiation levels and family functioning were adjusted with Z-score transformations. Raw mean scores are presented in the Table 4.

## Discuss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differentiation of self in Bowen Family Systems Theory has the same association with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the Chinese living in China,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Taiwanese living in Taiwan, and White Americ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 support the concept of BFST that a higher level of differentiation is associated with healthier family functioning, even in collectivistic culture. We also found consistent with the BFST theory: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current studies done separately in China, South Korea and Taiwan (An, Qiu, & Liu, 2011; An, Qiu, & Wang, 2012; Wu, 2002; Chung & Gale, 2009).

When examining the subscales in differentiation, we foun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among the four countries groups. For the Korean and White American groups, lower levels of Emotional Reactivity in family relationships were related with the higher level of family functioning. The White American group showed that taking a more I-Po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mily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Taking a more I-Position was also positively related with family satisfaction in the Korean group, family functioning in the Chinese group, and family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Taiwanese group. Interestingly, the Chinese group showed that Fusion with Other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s of family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After control variables for age, gender, education, relationship status, and living status, results showed that Fusion with Others in

the Taiwanese group had negatively association with their family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ven within three Asia countries, there are still some cultural differences among them when examining the subscales of differentiation.

The second aim of the study is to compare levels of 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Chinese, South Korean, Taiwanese and White American group. We found that the four country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The White America group reported highest in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The Taiwanese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s in differentiation among the three Asian group but report lowest on levels on family satisfac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The Korean group report lowest in levels of differentiation. Among the three Asian group, the Chinese group report highest in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the Korean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family function than Chinese and Taiwanese groups. The Taiwanese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hinese group for the family function. This indicates that even within the three Asian countries, there are still cultural differences. Each country's young adult may have a different level as influenced by the western culture. The level of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may be different across the Asian countries.

Gende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ifferentiation levels of the White American group. That is, male participants had higher scores on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than female participants. We did not find gender difference in term of differentiation among the three Asian country groups. Our result showed differently from previous studies done in a Chinese populati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les is higher than in females are (Yau, Liu, & Zhao, 2011; Wu, 2010). It is suggested that in Chinese society, expectation toward male and female can be different. Males are encouraged to be independent, while females are encouraged more 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imacy. However, we did not find this gender difference in the Chinese, Taiwanese, and Korean groups. One reason may be that there a higher proportion of male participants in the Asian group (male percentage: Korean 65%, Taiwan: 58%, China:73%), which may make it hard to compare the gender difference. The second assumption is that there might be more equality in gender expectation with the current young generation of college students in the studied Asian countries.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we found family functioning in the Chinese group ha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gender and living status. Male participants in China reported better family functioning than female participants. Also, Chinese individuals living with family including partner(s), parents, and/or other family members had better family functioning than those who lived alone or with roommates.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control variables on family functioning in Korean, Taiwanese, or White American groups. We also notice with the one child policy in China, there are relatively more male participants in the Chinese group.

##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The cultural values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of the participants were not measured in this study. Therefore, it was not identified whether th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differentiation among the three Asian country groups and the White American group were due to cultural factors. Also, the study participants are mostly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mean age of the study is 21 years old), and a large percent of Asian participants were mostly male. The result may not represent either an older age group, or different education levels in the Asian countries.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more diversity in sampling, such as equal distribution in gender, bigger range in age group, different education level, SES, and those living in rural versus urban region.

Another limitation was the self-report measures (online and paper-pencil survey) used in this study. There might be a social desirability effect, due to the fact that the paper and pencil survey and online survey were mostly recruited from university class settings.

We also found that the DSI-R (Skowron & Schmitt, 2003), and certain subscales (enmeshed, disengaged, and chaotic) in FACES-IV (Olson, 2011). Cronbach' alphas is lower than generally accepted as a cut-off point of .7 in the China group participants. Therefore, the DSI-R and FACE-IV may not accurately measure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functioning in the China group. Specifically, in DSI-R scale, 9 out of 46 items require participants to rate their experience with their partners or spouses. However, most Chinese

participants were male, young college students. Seventy five percent of Chinese participants reported single in relationship status, they were either currently not in a relationship, or it is also likely many of these participants have not had any experi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Single Chinese participants might feel frustrated answering the DSI-R scale, which in turns might lead to failure to provide accurate response, and cause a thread of reliability in the DSI-R scale. Previous studies with Chinese populations that used their own Chinese translated DSI-R scale, reported high reliability and validity (Lam & Chan-So,2015; Wu, 2010; Wu & Wang, 2010). We compared our Chinese translated DSI-R with published Chinese translated DSI-R (Lam & Chan-So, 2015) and found not much difference. However, in the participants recruited for these studies, over 50% were currently in relationship and 70% were females. Wu and Wang (2010) studied on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they changed the partner/spouse related items, to inquire about the college students experience with their partners or close friends. This addressed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in using direct translations of western developed measurements, there may not be a consideration of the contextual factors across culture. We suggest omitting some items from the original western measurement, that may not fit the participant's situations. Such as using a revised version culturally sensitive DSI-R scale, that haves tes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 a Chinese college student population (Wu & Wang, 2010). Future study might need to develop a more valid or culturally sensitive scale on measuring

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ing with the Asian country. We acknowledged the challenge of finding a reliable instrument in measuring across multiple country groups. We may not only rely on self-report measurement to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ing. Many scholars suggested employ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ith a cultural sensitivity (Seponski, Bermudez, & Lewis, 2013; Wu & Wang, 2008). Therefore, future studies should incorporate qualitative data collected from interviews and observations in order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Asian countries.

### **Clinical Implications**

Despite the cross-cultural applicability of BFST concepts is proven in this study, there are still differences across each country group, even within the Asian countries. When working with clients on their levels of differentiation and family relationships, clinicians should be sensitive not only to a client's culture (individual/collectivistic), but also should consider the client's broader psychosocial system context, such as country of origin, age, cultural norms, family life stage, and gender.

Although the concept of differentiation of self is now widely used in the mental health field in Asia, counselors should be sensitive to the cultural norms and avoid pathologizing or facilitating change toward the Western ideal (Yan & Lam, 2000). In accessing a client's level of 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ing, we

should not only rely on current measurement developed in the Western world, but counselors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possible cultural differences: what does the idea of "self" versus "differentiation of self" mean to the client, and what is the meaning of differentiation in the context of the client's culture. Counselors can also explore with Asian clients on what are the clients' idea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and how does the clients find balance between the individual needs and the family needs.

Our study also suggested family functioning may not only rely on an individual's differentiation. It may also be influenced by other contextual factors, such as the differentiation level of other family members, gender, and whether or not the client is living with family members. Lal and Bartle-Harling (2011) suggested that an individual's differentiation of self does not predict his or 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nor should it take an individual's partner or an other system into account. Hence, in working with Asian clients and their family relationship, we suggest not only assessing the client's differentiation level, but should also assess the differentiation level of other family members.

###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provide evidence on widely used Bowen Family System Theory, that claims the universality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ts relationship with healthy family functioning. By examining across three different collectivistic countries and one individualistic

country,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BFST that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However, we also notice differences within the studied countries in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functioning. Limitations of utilizing western constructed measurement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We hop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encourage clinicians to be culturally sensitive, when utilizing western theory in working with different Asian individuals, couples, and families. Further, this study also encourages future researchers and clinicians not to over generalize utilizing measurements and interventions across different Asian country groups.

## References

- An, Q., Qui, J., & Liu, Y. (2011). Mediating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relation of family function to self-consistence and congruence in college students. *Chinese Mental Health Journal*, 25(11), 851-855.
- An, Q., Qiu, C., & Wang, W. (2012). Features of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 qualitative analysis.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 (5), 713-726.
- An, Q., Qiu, C., & Liu, Y. (2012).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differentiation of sel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self consistency and congruence.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3), 381-383.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Special issue: Fami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6, 438-448.
- Bond, M. H., & Hwang, K.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pp. 213 - 266).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NY: Jason Aronson.
- Choi, K. H. (2002). Psychological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mong Korean American students: The roles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68-475.
- Chun, Y., & MacDermid, S. M. (1997). Perceptions of family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451-462.
- Chung, H., & Gale, J. (2006). Comparing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Korean and European American Stud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 367-381.
- Chung, H. J., & Gale, J. (2009). Family functioning and self-differentiation: A cross-cultural examinatio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1, 19-33.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15-159.
- Craddock, A. E. (2001).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family functioning:

- A test of Tiesel and Olson's revision of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Family Studies*, 7, 29-39.
- Farmer, C., & Geller, M. (2005). Therapy with couples, using psychodrama methods and Bowen Therapy.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 Sociometry*, 58, 70-85.
- Field, A. (2013).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ess, P. M., & Hess, H. J. (2001). Parenting in European American/White families. In N.B. Webb (Ed.), *Culturally diverse parent-child and family relationships: A guide for social workers and other practitioners* (pp. 307-333).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su, F. L. K. (1963). *Clan, caste and club: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Hindu, and American ways of life*. Princeton, NJ: Van Nostrand.
- Hsu, F. L. K. (1971). Filial piety in Japan and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1), 67 - 74.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A., Ch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287-297.
- Lau, S. K. (1981). Chinese familism in an urban-industrial setting: The case of Hong Ko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977 - 992.
- Kim, S. C. (1997). Korean American families. In E. Lee (Eds.), *Working with Asian Americans: A guide for clinicians* (pp. 126-135).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im, B. C., & Rye, E. (2005). Korean families. In M. McGoldrick, J. Giordano, & N. Garcia-Preto (Eds.), *Ethnicity & Family Therapy* (pp. 349-37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im, H., Prouty, A. M., Smith, D., Ko, M., Wetchler, J.L., & Oh, J. (2015). Differentiation and healthy family functioning of Koreans in South Korea, South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White American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1), 72-85.
- King, A. Y. C., & Bond, M. H. (1985). The Confucian paradigm of Man: A sociological view. In W. S. Tsang & D. Wu (Eds.), *Chinese culture and mental health* (pp. 29 - 45). London: Academy Press.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Kohler, R. E. (1997). *The use of Bowen family systems theory with the elderly alcohol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Los Angeles, California.
- Lam, C. M. (1997).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study of Chinese adolescent developmen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4(2), 95 - 113. doi: 10.1023/A:1024553132465.
- Lam, C. M. (1998).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Canadian-Chinese immigrant families: A theoretical framework. *Canadian Social Work Review*, 15(2), 177 - 191.
- Lam, C. M., & Chan-So, P. (2015). Validation of the Chinese vers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C-DSI). *Journal of Marital*

- and Family Therapy*, 41, 86-101. doi: 10.1111/jmft.12031.
- Lang, O. (1946). *Chinese family and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al, A., & Bartle-Haring, S. (2011). Relationship among differentiation of self, relationship satisfaction, partner support,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hronic lung disease and their partne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7, 169 - 181.
- Lee, E., & Mock, M. R. (2005). Asian families. In M. McGoldrick, J. Giordano & N. Garcia-Preto (Eds.), *Ethnicity & family therapy* (pp.269-289). New York, NY: Guilford.
- Loriedo, C., Di Nuovo, S., & Visani, E. (2013). FACES-IV: *Italian reliability and validity*. Retrieved from the Life Innovations, Inc. website: [http://www.buildingrelationships.com/pdf/italy\\_facesiv\\_2013.pdf](http://www.buildingrelationships.com/pdf/italy_facesiv_2013.pdf).
- Ma, C. Y.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self-differentiation, stress, and health of college students in Taiw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 McGill, D. W., & Pearce, J. K. (2005). American families with English ancestors from the colonial Era. In M. McGoldrick, J. Giordano & N. Garcia-Preto (Eds.), *Ethnicity & family therapy* (pp. 520-533). New York, NY: Guilford.
- Na, L., Liu, D., Wu, M., & Fang, W. (2015). Parental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among College students living dorm: Mediation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Studies of Psychology and Behavior*, 13(2), 145-152.
- Olson, D. H. (1995). *Family satisfaction scale*.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144-167.
- Olsen, D. H. (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7, 64-80.
- O-Yang, Y., & Wu, L. (2012). An exploration on the causal model between parent's self-differentiation and adolescent's general health. *Bulletin of Educational Psychology*, 43(3), 567-590.
- Plath, D. W. (1982). Resistance at forty-eight: Old age Brinkmanship and Japanese lifecourse pathways. In T. K. Harevan & K. J. Adams (Eds.), *Aging and life course transitions: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 Pratt, D. D. (1991). Conceptions of self with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ontrasting foundations for adul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285 - 310.
- Seponski, D. M., Bermudez, J. M., & Lewis, D. C. (2013). Creating culturally responsive family therapy models and research: Introducing the use of responsive evaluation as a method.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9, 28 - 42.
- Sim, H. S., & Sin, Y. K.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types and self-differenti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 89-103.
- Shih, F., Wu, Li., & Lin, S. (2010). A

- correlational study on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health for students in senior high and vocational high schools in Taiwan. *Bulletin of Educational Psychology*, 41(4), 823-846.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 209-222.
- Taforodi, R. W., & Marshall, T. C. (2004). Standing out in Canada and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72 (4), 785-814.
- Tuason, M. T., & Friedlander, M. L. (2000). Do parents' differentiation levels predict those of their adult children? And other tests of Bowen theory in a Philippin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7-35.
- Wang, Y., & An, Q. (2014). Sense of security,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s.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5), 877-880.
- Wu, C. (2002). *Th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family system differentiation, ego development and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nhua University, Taiwan.
- Wu, Y., & Wang, G. (2008). Evaluation of self-differentiation research in foreign country. *Medicine and Society*, 21(1), 44-46. (Chinese title).
- Wu, Y., & Wang, G. (2010). Revision of Self-Differentiation for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search*, 3(4), 40-45.
- Wu, Y. (2010). Self-differentiation status for college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with mental health. *Medicine and Society*, 23 (12), 90-93.
- Yang, K. S. (1981). Social orientation and individual modernity among Chines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159 - 170.
- Yan, M. C., & Lam, C. M. (2000). Repositioning cross-cultural counsel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ternational Social Work*, 43(3), 480-493.
- Yau, Y., Liu, L., & Zhao, X. (2011). Linking self-differentiation and mental health in lower-grade college students with different gender: Moderation role of self-esteem. *Chinese Mental Health Journal*, 25(11), 851-861.
- Yegdich, T. (1998) Paradox as symptom in the borderline patient's struggle for self-differentiation.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4, 15-27.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0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4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8일

## 4개국(한국, 중국, 대만, 미국) 거주자들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김 혜 진

고 메 이

오 제 은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본 연구는 자아분화가 건강한 가족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과 한국, 대만 및 미국에 거주하는 685명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가족기능, 가족의사소통과 가족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ANCOVA와 MANCOVA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국가 그룹은 자아분화 수준에서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그룹에 관계없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기능과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적용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아분화, 가족기능, 가족의사소통, 가족만족도, 다문화 연구, 일변량 공분산분석, 다변량공분산분석, 아시아인,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김 민 선\*

전 순 영\*\*

데이브레이크대학교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시의 S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일반아동 16명을 각 8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주 1회, 90분씩 12회기를 진행하였다. 아동의 창의적 인성을 측정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2011)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용 창의적 인성 검사' 도구를 사용한 결과로 양적 분석하였으며,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단계 및 회기별 결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 호기심, 과제집착, 독립성, 위험 감수, 사고의 개방성, 심미성 모두 사후 점수가 향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질적 분석 결과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초기 단계보다 종결 단계에서 작품 활동 시 적극적 관찰 및 자기표현이 나타났다. 회기가 더해질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하는 태도와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언어적 표현 및 새로운 활동 및 관계에 대한 수용의 태도가 향상되었다.

주요어 : 창의적 인성, 집단미술치료,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초등학생

\* 제1저자: 김민선,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부부가족상담대학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전순영,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주임교수, (07072)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38 106동 1605호, E-mail: syoung59@hanmail.net

인지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이 시대는 창의력과 인성을 포괄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상을 추구한다.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단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융합적 창의성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공선명, 2018). 또한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과 올바른 가치관이 없이는 타인과 소통하기 힘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창의적 인재로 보기 힘들다(임혜숙, 2012).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미래를 주도할 인재는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인문, 예술, 소양 등과 같은 다양하고 통합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선진국들은 이를 반영하여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국가 교육과정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민귀영, 김찬호, 2016). 창의적 인성이란 창의성에 대한 인지 중심의 접근을 선택하는 대신 정의적 측면으로 창의성을 규정하는 시도로서 창의성 발현을 위한 개인의 동기와 성격 등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창의적 인간의 성격적 특성을 말한다(하주현, 2006). 이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기에 앞서 생각하는 성향으로 연결된다.

표현, 공감, 감성, 배려, 이해, 놀이 등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미술은 창의적 인성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대영, 2011). 창조적 활동을 통한 내적 표현이 가능한 미술치료는 내적 치유와 함께 아동의 잠재된 창의적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창의적 인성과 미술치료는 개인의 성품에 따른 독창성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 또한 용기와 칭찬을 주는 안전한 집단에서 미술치료를 진행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 사고 발현에 영향을 주어 자기표현을 통한 공감과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 인성 향상을 돕는 것이 집단미술치료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집단미술치료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또래와 협동 작업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존중 및 지지를 경험하게 한다.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되는 집단미술치료는 인내와 자기 확신에 대한 창조적 과정이 일어난다(Rimm, 1983). 집단미술치료는 작품 활동을 통해 즐거움이 제공되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이용하여 창의성을 높이며 능동적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미술치료는 협동과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창조적 발상이 표현되고, 심리적 이완을 경험하므로 타인을 이해하는 사회성 향상을 돕는다. 이러한 집단미술치료의 경험은 자기 성찰을 통한 타인을 이해하며 '우리'라는 틀 속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한다(최외선, 201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어느 정도 언어능력을 지니고 청소년이나 성인만큼 언어 표현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친숙한 그리기, 만들기 등 미술은 내면을 표현하는데 자유롭다(박문희, 2010).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미술치료는 자기표현 및 갈등 조절은 자아 성장을 촉진하며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박정연, 이근매 2006).

또한 아동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인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동화이다. 아동은 동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창의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꿈을 전달하는 공감적 소통의 형태로 작용한다. 동화는 아동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식의 폭을 넓히는 문화, 타인과 의사소통 발전을 위한 언어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아동은 동화를 읽고 확장형 질문을 통해 그림 표현을 했을 때 창의적 표현을 한다(Coger & White, 1982). 동화를 통해 상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도덕적 가치 판단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다(이경화, 2005). 동화는 창조적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사고의 확장 경험을 통해

창의적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내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간접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집단미술치료를 동화를 활용하는 것은 아동에게 내적 동기와 흥미를 제공하며 타인에 대한 방어를 감소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즉, 창의적 인성 향상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표현의 자율성 증진과 아동의 내적 불안과 갈등을 동화에 적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연동을 다루며 창의적 인성 향상을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해 집단미술치료에 동화를 결합한 융합적이고 창의적 접근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동화를 활용한 미술치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DHD아동(김윤지, 2015), 다문화아동(박문희, 2010), 돌봄교실 아동(최연희, 2019), 치매노인(김도영, 2015) 등 특수한 환경 및 대상의 치료적 차원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인 일반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한 연구는 유아교육 및 교육 중심 프로그램 및 교수법 연구들이(이기정, 2018; 황혜영, 2017) 있으며, 미술치료 접근으로는 창의 인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고정은, 2013; 박진희, 2012)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창의적 인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인성의 의미와 특성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적용하여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의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창의적 인성을 향상을 위해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통제집단보다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지

양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및 단계별 질적 분석을 통해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I시 G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가정에서 본 연구의 참여 희망 여부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총 1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정서 및 신체, 인지발달의 어려움이 없고 심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을 8명을 무선으로 배치하였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대상에서 동의를 받고, 차후 통제집단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설명하였다.

### 측정 도구

#### 창의적 인성 검사

본 연구에서 창의적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주현(2011)이 개발한 창의적 인성 검사(CPS: Creative Person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으로 호기심, 과제집착, 독립성, 위험 감수, 사고의 개방성, 심미성 6개의 요인,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597~.779 이고,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81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Likert 방식을 사용하여 '매우 아니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4점

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창의적 인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76으로 나타났다.

####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는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제외하고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총 12회기로 주 1회 90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창의적 인성 검사(CPS: Creative Personality Scale)의 하위요인에 근거하여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 및 도덕성 발달 단계를 참고하여 동화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동화 이야기가 문학적, 예술적, 창의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동의 정서적, 창의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덕적, 논리적,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반영된 작품이어야 한다. 셋째, 미적 가치를 중심으로 그림과 배경, 사건, 인물 등의 형식적 요소들이 구성된 동화책이어야 한다.

위의 선정 기준을 근거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사서 추천 도서 목록'과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어린이 도서 목록' 참고하여 아동문학의 가치를 인정받은 수상 작품 및 전통적 우수도서 선정 도서 중에 창의성과 창의적 인성 관련 동화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동화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 2인과 초등학교 도서관 5년 이상 경력 사서교사 1인, 5년 이상 경력 동화 구연 전문가 1인의 자문을 통해 동화선정의 적절성을 검토받은 후, 본 연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주제와 적합성을 수련 감독 미술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동화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창의적 인성개발을 위한 교수 방법과 다

양한 창의적 사고기법(임혜숙, 2012)을 참고하였다.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을 단계 및 회기별 적용을 통해 동화와 미술치료의 창의적 융합 치료로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동화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질적 분석을 통합하여 결과분석을 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은 실제 수준의 인식론 수준에서 적합하며 실제 연구가 적용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타당성 및 실증적 결과도출로서 이점이 많다(성용구, 2014).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결과도출에 양적·질적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높였다.

첫째,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양적 분석은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과 함께 Window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험의 효과성 분석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맨-휘트니 검증(Mann-Whitney U test)을 통해 Z통계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통해 Z통계량을 사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질적 분석은 Merriam(1997)이 주장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 이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 호기심, 과제집착력, 위험감수,

표 1.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 단계<br>회기    | 주제             | 목표                                     | 활동 내용                                                                                                                                                              | 매체                                        |
|-------------|----------------|----------------------------------------|--------------------------------------------------------------------------------------------------------------------------------------------------------------------|-------------------------------------------|
|             | 사전검사           | 창의적 인성 검사와 집단 규칙 정하기                   |                                                                                                                                                                    | 검사 도구, 연필,<br>지우개                         |
| 초기<br>단계    | 1 바로<br>나처럼    | 호기심을 통한<br>자기표현                        | 「바로 나처럼」 동화 읽고 생각을 나누며 나의 멋진<br>모습을 만들고 소개한 후 느낌 나누기                                                                                                               | 모루, 점토, 가위,<br>도화지                        |
|             | 2 우리들의<br>종소리  | 심미적 경험을<br>통한 표현                       | 「우즐리의 종소리」 동화 읽고 악보에 ‘종’ 그림으로<br>자기표현 후 느낌 나누기                                                                                                                     | 악보, 작은 종,<br>색채 도구                        |
|             | 3 어처구니<br>가면   | 호기심 자극,<br>창의적 표현,<br>사고의 확장           | 「어처구니 이야기」 동화 읽고 다양한 표정을 표현<br>하며 나만의 가면 만들기, 가면을 쓰고 궁금증을 동<br>작으로 표현하고 느낌 나누기                                                                                     | 종이상자,<br>색채도구, 풀,<br>가위                   |
| 중기<br>I 단계  | 4 안녕,<br>나의 나무 | 주도적 자기<br>인식 및 주체적<br>표현               | 「안녕, 나의 장갑나무」 동화 읽고 독창적으로 표현<br>을 위해 매체를 스스로 선택하여 나만의 나무를 표<br>현 후 느낌 나누기                                                                                          | 색채도구,<br>수수강, 점토<br>클립, 이쑤시개              |
|             | 5 나의<br>빨랫감    | 주도적<br>자기표현,<br>주체적<br>문제해결력           |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동화 읽고 부정적<br>감정을 빨랫감으로 표현하고 긍정적 감정을 줄로<br>연결하여 공동작품으로 빨랫줄을 만들고 나의 빨랫<br>감을 넣어주며 느낌 나누기                                                           | 색채도구, 가위,<br>풀, 색도화지,<br>집게, 줄            |
|             | 6 어둠 속<br>반짝임  | 두려움 경험,<br>새로운 변화<br>경험, 창의적<br>시도 표현  | 「우물 속 도마뱀」 동화 읽고 반짝이를 넣은 풍선에<br>나의 두려움을 표현 후 풍선을 터트리기, 검정 도화<br>지 위 반짝이를 통해 우리들의 세상을 꾸며보고 느<br>낌 나누기                                                               | 색채도구, 풍선<br>검정도화지,<br>반짝이, 풀,<br>상자       |
| 중기<br>II 단계 | 7 행복 버스        | 다양한 생각<br>수용 및 타인<br>이해, 주체적<br>자기 확신  | 「행복을 나르는 버스」 동화 읽고 나의 행복에 대해<br>이야기 나누며 나만의 버스 만들기, 행복한 얼굴을<br>그려주고 용기와 칭찬의 글 적어주어 행복 버스 주<br>인공 얼굴을 태워주기, 나의 버스가 도착했을 때 친<br>구들이 그려준 나의 얼굴들을 보며 작품 활동 후<br>느낌 나누기 | 색채도구,<br>이쑤시개,<br>우드락, 풀<br>가위, 색종이       |
|             | 8 우리들의<br>햄버거  | 새로운 생각을<br>수용, 타인 이해<br>및 수용           | 「텅 빈 냉장고」 동화 읽고 주제를 생각하고 스스로<br>매체 정하기, 나의 장점의 재료들을 표현하고 소개<br>한 후 그 재료를 이용하여 함께 먹을 음식 만들고<br>감상 후 느낌 나누기                                                          | 색채 도구, 전지,<br>색종이<br>털실, 풀,<br>클레이        |
|             | 9 나의 꿈<br>뜨개질  | 주의 집중력<br>향상, 창의적<br>인내심 촉구            | 「뜨개질 할머니」 동화 읽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꿈,<br>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종이 접시에 그리고 실을<br>이용하여 스트링 아트로 표현하기, 작품 소개 및 작<br>품 활동 느낌 나누기                                                         | 종이 접시, 색실,<br>가위<br>테이프, 매직               |
| 종결<br>단계    | 10 나의<br>사탕 변신 | 성취감 자세<br>탐색, 창의적<br>몰두 경험             | 「사탕 공장에 가지마」 동화 읽고 내가 노력해야 할<br>것을 그림이나 글로 창의적으로 표현한 후 느낌 나<br>누기                                                                                                  | 색채 도구,<br>투명 반구,<br>색종이, 풀                |
|             | 11 색깔<br>마법사   | 독창적 자기<br>인식, 타인의<br>입장 사고하는<br>개방성 경험 | 「색깔을 훔치는 마녀」 동화 읽고 나를 상징하는 것<br>을 검정 선으로 그린 후 나만의 한 가지 색이 주는<br>감정의 이름 정한 후 서로 작품을 돌려가며 자신이<br>가진 색으로 완성해서 돌려받은 나의 작품에 대해<br>느낌 나누기                                | 색채 도구,<br>스티커, 도화지                        |
|             | 12 우리들의<br>노래  | 타인 이해를<br>위한 주도적<br>자기표현               | 「고래들의 노래」 동화 읽고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을<br>스크래치 종이에 고래로, 배려의 마음을 은박종이에<br>바다 표현한 후 느낌 나누기                                                                                     | 색채 도구,<br>스크래치 종이,<br>물풀, 가위, 전지,<br>은박종이 |
|             | 사후 검사          | 창의적 인성 검사                              |                                                                                                                                                                    | 검사 도구<br>연필, 지우개                          |

주. \*  $p < .05$ , \*\*  $p < .01$

심미성, 사고의 개방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관찰 기록을 했으며 실험집단 참여 아동의 부모들을 통한 피드백을 받았다. 질적 분석의 질을 높이고자 치료자와 관찰자, 부모 참여의 관찰 기록, 면담, 검사를 통해 타당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창의적 인성 검사 하위요인 변화를 분석하였고 아동의 행동 및 언어 표현, 미술작품 등의 사진 및 녹취를 통해 분석하였다.

## 결 과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 연구 양적 분석을 위한 아동의 창의적 인성 검사의 동질성 검사 결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 아동의 창의적 인성 양적 분석 결과 변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창의적 인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창의적 인성 검사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호기심( $Z=2.539$ ,  $p<.05$ ) 과제집착력( $Z=2.501$ ,  $p<.05$ ), 위험감수( $Z=2.680$ ,  $p<.01$ ), 심미성( $Z=2.682$ ,  $p<.01$ ), 사고의 개방성( $Z=2.558$ ,  $p<.05$ ), 독립성( $Z=2.448$ ,  $p<.05$ ), 창의적 인성 전체( $Z=2.670$ ,  $p<.01$ )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인성 전체( $Z=2.670$ ,  $p<.01$ )와 각 요인들은 사전보다 사후에 점수가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

표 2. 창의적 인성 검사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 하위요인      | 집단 | n | 사전   |      | 사후   |      | Z       |
|-----------|----|---|------|------|------|------|---------|
|           |    |   | M    | sd   | M    | sd   |         |
| 호기심       | 실험 | 8 | 2.41 | 0.52 | 3.15 | 0.34 | 2.539*  |
|           | 통제 | 8 | 2.38 | 0.36 | 2.38 | 0.23 | .000    |
| 과제집착력     | 실험 | 8 | 2.78 | 0.48 | 3.36 | 0.47 | 2.501*  |
|           | 통제 | 8 | 2.79 | 0.30 | 2.71 | 0.09 | -.070   |
| 위험 감수     | 실험 | 8 | 2.19 | 0.62 | 3.28 | 0.46 | 2.680** |
|           | 통제 | 8 | 2.54 | 0.37 | 2.54 | 0.53 | 1.837   |
| 심미성       | 실험 | 8 | 1.96 | 0.51 | 3.22 | 0.37 | 2.682** |
|           | 통제 | 8 | 2.24 | 0.60 | 2.52 | 0.60 | 1.667   |
| 사고의 개방성   | 실험 | 8 | 1.89 | 0.42 | 3.28 | 0.57 | 2.558** |
|           | 통제 | 8 | 2.04 | 0.57 | 2.25 | 0.29 | 1.057   |
| 독립성       | 실험 | 8 | 2.25 | 0.59 | 3.17 | 0.71 | 2.448*  |
|           | 통제 | 8 | 1.82 | 0.61 | 1.68 | 0.45 | -.857   |
| 창의적 인성 전체 | 실험 | 8 | 2.25 | 0.15 | 3.08 | 0.34 | 2.670** |
|           | 통제 | 8 | 2.30 | 0.09 | 2.30 | 0.09 | 1.7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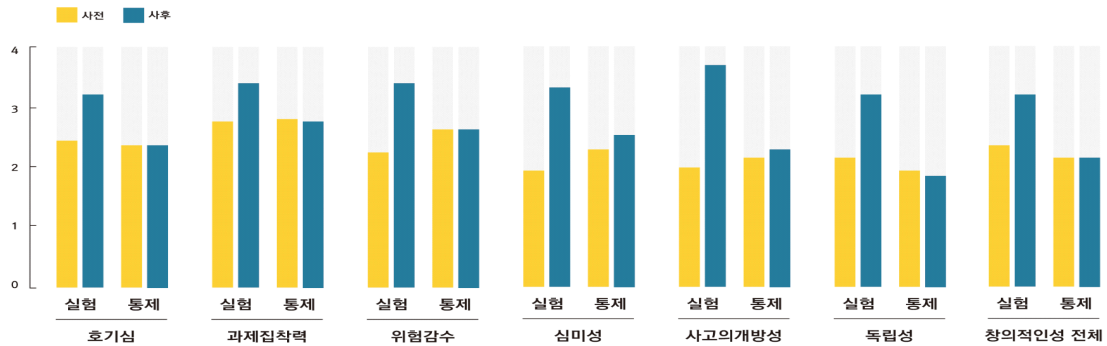


그림 1. 창의적 인성 검사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사 결과 그래프

단은 사전·사후 검사에서 호기심, 과제집착력, 위험감수, 심미성, 사고의 개방성, 독립성 및 창의적 인성 전체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른 그래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의 회기 및 단계별 창의성 인성 질적 분석 결과 변화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통계적 검증에 따른 결과가 갖는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료자와 관찰자, 부모 참여 관찰 기록, 면담, 검사를 통해 창의적 인성 검사 하위요인을 토대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 및 언어 표현, 태도, 미술작품 등의 사진 및 녹취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의 회기 및 단계별 창의적 인성 변화는 표 3과 같다.

그림 2와 같이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의 단계별 작품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단계는 창의적 표현보다는 주어진 매체 안에서 비슷한 자기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기 I 단계부터 새로운 매체를 경험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도가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개

성 있는 자기표현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중기Ⅱ 단계 작품을 보면 색감이 진해지고 빈 곳이 없이 표현한 것을 보아 과제집착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모방이 가능해진 작품이 나왔다. 종결 단계의 대표적 작품은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바다를 표현했으며 나만의 ‘고래’로 독립성을 표출했다. 이는 동화의 이야기로 자기 생각을 나누며 다른 사람의 작품과 어우러진 공동작품을 통해 사고의 개방성 및 집단미술치료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 논 의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개념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구자가 개발한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의식이 발달하여 정서 및 감정 인식이 가능한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기에 적용한 본 연구는 창의적 인성 발현을 위해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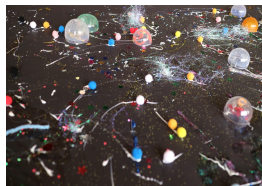
표 3. 회기 및 단계별 창의적 인성의 변화 내용 및 기대 효과

| 단계<br>(회기)           | 창의적 인성<br>하위요인 | 변화 내용 및 기대 효과                                                                                                                                                                                                                                                                                                                                                                        |
|----------------------|----------------|--------------------------------------------------------------------------------------------------------------------------------------------------------------------------------------------------------------------------------------------------------------------------------------------------------------------------------------------------------------------------------------|
| 초기 단계<br>(1~2회기)     | 호기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상황에 무관심하고 부정적 표현이 많으며 질문이 거의 없음</li> <li>• 자신 없는 태도로 주변을 살피고 소극적이고 수동적 태도를 보임</li> <li>•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함</li> <li>• 다소 산만한 태도로 궁금증을 표현함</li> <li>• 다양한 매체의 접근을 통해 질문을 유도하여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음</li> <li>• 다양한 질문을 통한 감정 표현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음</li> <li>•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능동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
|                      | 심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을 의식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li> <li>• 예술적 활동에 관심이 거의 없음</li> <li>• 미술을 통해 감정 표현을 기대할 수 있음</li> <li>• 안전한 집단 경험으로 자율적 감정 표현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
| 중기 I 단계<br>(3~6회기)   | 위험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고 익숙한 상황을 좋아하고 확인받고자 함</li> <li>• 새로운 매체에 관심이 소극적이고 새로운 상황을 어색해함</li> <li>• 실패의 위험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한 성취감 경험</li> <li>• 안전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기대할 수 있음</li> <li>• 위험한 상황을 통해 집단응집력 경험</li> <li>• 사고의 개방성 영역을 확대함으로 적극적 의사 표현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
|                      | 독립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에 대해 민감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li> <li>• 문제 상황이 닦혔을 때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임</li> <li>• 실수를 경험하였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음</li> <li>•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객관적 자기 평가가 어려움</li> <li>• 집단미술치료 활동적 가치를 통해 의사 표현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li> <li>• 타인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기대할 수 있음</li> <li>• 주체적 미술 활동을 통해 자기감정을 표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
| 중기 II 단계<br>(7~10회기) | 사고의 개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의견과 실수를 이해하며 받아들이</li> <li>•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임</li> <li>•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 칭찬하며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움</li> <li>• 매체에 대한 적극적 관찰과 활용에 대해 고민함</li> <li>•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며 개방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음</li> <li>•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표현함</li> <li>• 긍정적 모방과 창의적 표현을 통해 사고의 융통성 기대할 수 있음</li> <li>• 타인을 이해하고 실수를 용납함으로 배려심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
|                      | 과제집착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한 것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가능하며 포기하지 않음</li> <li>•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노력과 집중을 보이며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함</li> <li>•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성취감 경험하며 창의적 몰두를 경험할 수 있음</li> <li>• 새로운 매체에 대한 호기심을 과제집착력으로 연결됨</li> <li>• 사고의 개방성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

|       |         |                                                                                                                                                                                                                                                                                                                                                               |
|-------|---------|---------------------------------------------------------------------------------------------------------------------------------------------------------------------------------------------------------------------------------------------------------------------------------------------------------------------------------------------------------------|
| 종결 단계 | 호기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에 대한 적극적 관찰 모습을 보임</li> <li>다른 사람의 작품 및 미술치료 매체 활용에 대해 궁금해함</li> <li>궁금한 것을 알고자 하며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태도가 보임</li> <li>당연한 것도 궁금해하며 탐구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li> <li>새로운 상황에 대해 관찰하며 표현의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
|       | 과제집착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꼼꼼한 작품 표현으로 수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li> <li>말없이 작품완성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임</li> <li>작품 표현에 집중하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짐</li> <li>완성된 작품에 대해 성취 경험을 표현함</li> <li>즐거움으로 집중하여 끝까지 과제를 해내려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음</li> <li>창의적 몰두 경험을 통한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 경험</li> <li>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음</li> <li>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
|       | 위험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 사용하는 매체에 과감성을 보이며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함</li> <li>새로운 상황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함</li> <li>다른 사람에게 자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li> <li>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즐겁게 도전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음</li> <li>익숙한 상황을 뛰어넘는 모험심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
|       | 심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비로운 매체에 관심을 표현하며 미술을 좋아함</li> <li>작품의 아름다움에 언어적 표현이 자연스러움</li> <li>음악을 들었을 때 몸의 표현이 자연스러움</li> <li>작품 표현에 있어 예술적 안목이 있음</li> </ul>                                                                                                                                                                                    |
|       | 사고의 개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수정함</li> <li>새로운 활동을 기꺼이 수용함</li> <li>다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고 제한에서 벗어나 표현함</li> <li>새로운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며 잘 어울림</li> <li>구체적 감정 표현이 가능해짐</li> <li>자신과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li> <li>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
|       | 독립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 자기표현이 가능함</li> <li>자기 평가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표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li> <li>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작품을 평가함</li> <li>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임</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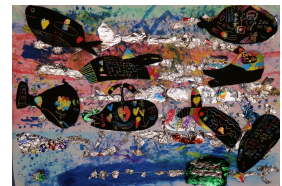
〈초기 단계〉



〈중기 I 단계〉



〈중기 II 단계〉



〈종결 단계〉

그림 2.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의 단계별 대표작품

적 인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아동의 창의적 인성 전체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인성 전체와 하위요인들은 모두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 호기심, 과제집착, 독립성,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 심미성에 모두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향상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집단은 창의적 인성 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창의적 인성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 접근의 효과성을 증명한 박진희(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고정은(2013)이 연구한 아동의 창의적 인성 개발을 위한 미술 놀이 치료적 접근의 초등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유아의 자존감 및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한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증명한 황혜영(2017)의 연구 결과와 의미를 같이 한다.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 결과를 살펴보면 호기심은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통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호기심의 증가는 동화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 탐색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주체적인 선택과 표현은 아동의 호기심에 자극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동화가 흥미 유발 및 창의적 사고를 자극이 되어 창의성의 호기심에 영향을 끼친다는 Torrence(1962)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호기심은 내적 동기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은정(2016)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과제집착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은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에서 창의적 작품 활동을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 경험을 통해 과제에 대한 집착력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전하고 즐거운 상호작용의 경험과 협동 활동을 통해 끈기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김미애(2014)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창의적 인성이 학습몰입과 학습 동기와 높은 상관을 보인 서은정(2020) 연구 결과와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 과제집착력의 향상은 의미를 같이 한다.

위험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통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위험감수의 증가는 동화 속 주인공의 삶을 아동에게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적 발상을 통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공감 능력을 길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을 때 긍정적 자기확신 및 자신감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맹지나(2010)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심미성은 유의미한 통계 효과가 있었다. 이는 음악, 이야기, 몸동작 등 예술적 통합 활동이 안전한 집단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보며 이는 감정 표현 및 배려를 할 수 있고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을 주었다. 이 결과는 음악, 춤, 극본, 연기 등 총체적 예술을 경험하는 뮤지컬 공연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남혜영(2017) 연구에서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인 심미성 변화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고의 개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사고의 개방성 증가는 타인을 문제를 이해하며 포용하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다양한 감정의 민감성을 창의적 작품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 발견과 해

결 과정이 개방적인 창의적 사고와 상관이 있다는 하주현(200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미래문제해결 교수학습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박소영(2018) 연구에서 사고의 개방성을 통한 창의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연구 결과와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독립성은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들이 통제집단 아동들보다 유의미한 ( $Z=2.448, p<.05$ )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탐색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박지희(2014)의 연구와 의미를 같이 한다.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상상력을 자극하였으며 다양한 매체 탐색을 통해 호기심 영역을 발달시켰다. 이는 호기심 충족을 위한 위험감수를 경험한 결과 이타적 안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남혜영(2017) 연구 결과와 의미를 같이하며 본 연구는 창조적 작품 활동을 통해 자기 탐색 및 표현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타인을 배려하는 열린 사고로 개방성을 높이고 능동적 독립성을 통해 문제해결력 향상에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김선진(2015)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창의적 인성 함양의 중요성이 제시되었고 문제 발견, 해결책 발견, 실행발견 능력 향상을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료 회기 및 단계별 과정에서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결과는 이와 같다. 1~2회기 초기 단계는 매체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흥미 유발 및 신뢰감 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자신의 장점을 찾는 과정을 찾아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긍정적 자기 인식을 경험하였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위험감수는 미술이라는 예술적 영역

의 심미적 경험을 통해 다음 회기를 기대하는 언어적 표현 및 표정으로 호기심을 통한 자기표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뮤지컬동아리 활동이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 중 특히 위험감수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 남혜영(2017)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예술적 안목이 있고 감성적이며 예술 활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아동이 자기 표현력이 높다는 하주현(2011)의 연구와 의미를 같이 한다.

중기Ⅰ 단계는 3~6회기로 자기 인식 경험을 통해 주제적 문제해결력을 추구하고 창의적 시도를 통한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들의 질문이 초기 단계보다 많아졌으며 매체 탐색의 적극성과 표현에 대한 자율적 자세를 통해 아동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립성은 과제집착력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제집착력과 독립성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조은정(2016)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김상수, 김영천(2011)의 연구에서 밝힌 합리적 사고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능력의 의사결정 능력의 중요성과 의미가 상통한다. 익숙한 상황에서 벗어나 모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내적 안정감을 통해 집단응집력도 경험하였다.

중기Ⅱ 단계는 7~10 회기가 진행되었으며 사고의 개방성을 통해 배려하는 행동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습득되며 동화 및 작품에 대한 창의적 몰두를 경험하고 인내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공동작품 활동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태도는 사고의 개방성 요인의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사고를 활용한 유아의 주장이 창의적 인성을 높였다는 임채은(2019)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동화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강보경(2013)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종결 단계 11~12회기는 창의적 인성의 통합 경험을 통해 공동작품을 통한 긍정적 상호 보완 및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졌으며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다. 이점은 문제해결력 증진에 있어 창의적 기법의 다양한 시도와 활용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여 문제해결력을 증진 시킨 창의적 기법 활용의 김정민(2017)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심미적 요소의 창의적 확장은 예술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관찰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예술 및 작품 활동에 대한 몰입의 즐거움으로 유도하여 과제집착력을 향상될 수 있다. 창의적 몰두를 통한 창의적 작품의 결과는 타인의 평가 보다 자신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집단미술치료 단계별 질적 분석 결과 중 3, 4, 7 회기 미술치료 활동 중 자기 생각을 도출하는 창조적 활동의 다양성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창의적 표현이 감소하는 시기를 공식적 학교 입학 시기로 보고 권위에 대한 수용과 적응 및 타협의 사회적 요구가 독창적 표현의 감소 이유임을 밝힌 Torrance(1962)의 주장이 뒷받침된다. 본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는 점에서 창의적 표현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창의적 인성의 발현을 위한 권위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함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전연미(2021) 연구 결과에 동의가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 또는 가족 미술치료를 통한 아동의 창의적 인성 향상에 미치는 다각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상 및 상징화 과정, 해석과정이 치료 효과(Rubin, 2005)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연구자로서 임상적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들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창의적 접근의 행동 변화는 아동의 긍정적 성장 및 창의적 인성 발달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창의적 인성 향상에 효과가 있기에 융합적이고 확장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전체 아동으로 대상을 확장 시키고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가 입증된 선행연구와 함께 미술치료 연구가 계속될 때 인지적 발달만 중요시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창의, 인성, 융합 교육과정을 적용한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교육 현장의 질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가 후속 연구 자료가 되어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강보경 (2013). **창의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은 (2013). **창의적 인성 개발을 위한 초등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미술 놀이 치료적 접근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선명 (2018). **메이커 활동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창의성과 창의적 사고 과정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영 (2015). **전래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 (2014). **표상적 사고 전략을 활용한 명화 감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미술 능력, 언어 및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수, 김영천 (2011). **창의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서울: 청람.
- 김선진 (2015). **유아의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지 (2015).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7). **창의 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혜영 (2017). **고등학교 뮤지컬동아리의 프로젝트 학습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지나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나눔 교육 활동이 유아의 나눔에 대한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귀영, 김찬호 (2016).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38(3), 99-118.
- 박문희 (2010). **그림동화를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무성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18). **미래문제해결 교수학습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연, 이근매 (2006). **집단미술치료가 유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2(2), 53-83.
- 박지희 (2014). **유치원 교사 핵심역량에 기초한 현직 교사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34(5), 207-228.
- 박진희 (2012). **미술치료적 접근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 인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입체조형 만다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정 (2020). **중학생이 지각하는 창의적 인성,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용구 (2014). **교육 연구를 위한 양적 질적 연구의 혼합방법**.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30(2), 163-181.
- 이경화 (2005). **유아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과학 동화 활용 CPS프로그램의 효과**. 교육방법연구, 17(2), 265-282.
- 이기정 (2018).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 발달과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및 창의적 인성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대영 (2011).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정보원.
- 임채은 (2019). **그림책을 활용한 하브루타 활동이 유아의 주장성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숙 (2012). **창의적 인성개발**. 서울: 한국학술정보.

- 전연미 (2021). **부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신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정 (2016). **토의 토론 활동을 통한 자기 결정성 동기와 창의적인성 향상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 (2019). **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돌봄교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 김갑숙, 서소희, 홍인애 (2011). **창의성과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열두달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하주현 (2006). 예술교육과 창의성. **문화예술교육연구**, 1(1), 95-116.
- 하주현, 유경재, 한윤영 (2011). **창의적 인성 검사 3종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혜영 (2017).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 인간 존중과 생명 · 환경 주제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ger, L. I., & White, M. R. (1982). *Readers theatre: A dramatic approach literature*. Scott Foresman & Co.
- Rimm, S. (1983). *Preschool and Kindergarten Interest Descriptor art therapy*. Watertown, WI : Educational Assessment Service, Inc
- Rubin, J. (2005). *Child art therapy*.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Torrance, E. P. (1962). *Guiding Creative Talent*. NJ: Prentice-Hall Inc.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1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4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8일

##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Using Fairy Tales on Creative Personality of Children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Kim, Min Seon

Chun, Soon Young

Daybreak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fairy tales on the creative personality of children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o this end, 16 of the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cated in S-gu and I-si were indiscriminate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8 control groups. From May to August 2018, a weekly-90 minute-12 sessions of learning time were provided. In order to measure children's creative personality, quantitative research using the 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 developed b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was conducted, and qualitative analysis using collective art therapy using fairy tales was conduc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quantitative research, curiosity, occupational coercion, independence, risk-taking, thinking openness, and aesthetics scores were increased through the group art therapy using fairy tale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ctive observational attitudes and expressions were found when making works in the final stage, not in the initial stage of the group art therapy using fairy tales. As the sessions continued, the attitude of challenging even if there was a possibility of failure, expressing the beauty of the work in words, and accepting new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improved.

*Key words: Creative Personality, Group Art Therapy, Group Art Therapy Using Fairy Tales, Child, Elementary schoolchildren*



# 중학생의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관계: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

장 소 천\*

서울시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불안정애착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남녀 중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불안정애착, 기본심리욕구만족, 인터넷중독성향에 대한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불안정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인터넷 중독성향과는 정적으로, 기본심리욕구만족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기본심리욕구만족은 인터넷 중독성향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불안정애착이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셋째,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인터넷 중독성향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이 낮은 경우,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불안정애착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활용한 개입의 성공 가능성을 의미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불안정애착, 기본심리욕구,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성향, 인터넷 과의존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소천, 서울시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센터, (14241)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4, 109-1402, Tel: 02-2616-2923, E-mail: socheon@daybrek.edu

청소년기는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심리적, 생물학적,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은 기존 세대와의 갈등, 학업 부담, 성인 역할에 대한 준비 등 아동기 때와는 다른 다양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할 만한 사회기반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 기반 활동들은 청소년들에게 학습적 도움, 정보제공, 오락적 즐거움, 좌절감 및 공격적 욕구 발산, 또래 관계에 대한 갈등 해소 등과 같은 다양한 만족감과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이용의 다양한 순기능의 이면에는 병리적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문제도 있어서 그 사용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왔다(신성만, 고영삼, 2017). 2017년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의 병리적인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치유서비스 이용에 거부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과의존’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신성만 외, 2017), 본 논문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성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가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이 95%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5732>에서 2019. 02. 11 인출)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관련법에 의거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유아동부터 60대 이상의 대상자 중 스마트폰 이용자의 23.3%가 과의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청소년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35.8%를 차지하고 있

으며, 청소년 중 중학생의 의존율은 39.6%로 초등학생,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계기로 영상, 미디어, 게임 이용의 증가로 인해 2020년 전체 과의존 증가폭은 전년 대비 3.3%로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고, 이 중 청소년은 전년 대비 5.6%나 상승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화진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의존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사회적 과제이지만, 인생에서 청소년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때,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선행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과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권정혜(2005), 김영혜(2010), 유성희(2009) 한유진과 최나야(2009)는 불안정 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 밀접한 상관성을 밝혀냈다. 애착이란 유아의 한 사람 또는 특정인과의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결합(bonding)을 뜻하는 것으로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이나 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Bowlby, 1951). 애착의 유형은 크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구분되며, Hazan과 Shaver(1987)은 안정(secure) 애착, 불안(anxious) 애착, 회피(avoidant) 애착으로 구분하였다.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면, 부정적 신념이 발달하고, 유전적, 생물학적 취약성 및 환경적 위험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 병리를 일으킬 수 있다(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이나 품행장애, 주의력 장애, 성적 관계 문제, 우울증, 자살 등의 행동장애나 정신 병리에 취약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안정 애착형성은 청소년의 행위 중독의 발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불안정 애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지에 관련 매개 변인 연구들도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매개 변인들은, 대인관계유능성(강정훈, 2012), 정서조절능력(김서현, 2011), 소외감(성윤지, 2011),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경선, 이지연, 장진이, 2013), 외로움(이현덕, 홍혜영, 2011), 자기조절력(한유진 외, 2009) 등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에 대상의 주체인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심리내적 환경에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경로를 탐색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박승민(2005)은 인정의 욕구, 보상 욕구, 관계의 욕구 등과 같은 심리 내적 기제들을 인터넷 중독과 연관 지어 이해하였고,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2012)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강화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중독에 이르게 하며, 이지혜(2012)는 현실에서의 욕구 만족이 어려운 경우 그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만족시키려 중독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인간의 내적 욕구와 동기는 인터넷 중독성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통합하고 성장하려는 경향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경향성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는데(Deci & Vansteenkiste, 2004), 타고난 내적 동기의 발현을 촉진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라는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어야 한다(Deci & Ryan, 2000). 기본심리욕구만족을 지지해주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동기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 조절하는 자기결정을 이루고(Reeve, 2005) 역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유능감과 관계성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기본심리욕구가 좌절

된 환경에서 성장한다면 성장 정체, 다양한 정신건강문제, 불행감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고(Deci et al., 2004)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성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사용을 통해 추구하는 만족감, 유능감, 사회적 지지, 자기정체감 등은 일종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기체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정민선 외, 2012), 주로 현실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된 청소년들이 그 좌절감을 채우고자 인터넷에 몰입한다고 하겠다(Alex & Jefferey, 2001).

기본심리욕구만족과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만족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정민선 외, 2012), 현실 세계에서의 기본심리욕구만족이 낮을수록, 가상세계에서의 기본심리욕구만족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은 높아진다(이지혜, 2012). 또한 기본심리욕구만족이 낮은 집단은 인터넷에 강박적인 몰두를 보이면서 문제가 생기지만(Przybylski, Rigby & Ryan, 2010), 기본심리욕구만족이 높은 집단은 건강하게 인터넷과 비디오게임을 이용하며(Laferriere, Vallerand & Donahue, 2009), 기본심리욕구 중 특히 자율성이 저해될 때 인터넷 몰입도가 상승된다는 연구 결과(김은영, 2012)도 있다.

기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Deci & Ryan, 2000), 이 세 가지 욕구가 균형 있게 만족될 때 심리 내적으로 성장하고 통합되며 타인 및 타집단과의 상호교류도 증진된다(Deci & Ryan, 2002). 연구자들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에 영향을 주는 사회 맥락적 요인으로 애착에 주목해왔고, 연구를 통해 아동의 신희, 정서적 욕구, 행동에 민감한 양육자는 유아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함을 밝혔다(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이를 바탕으로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여 유능성과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낌으로써 관계성을 충족시키지만, 주 양육자가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아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율성과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조화진, 서영석, 2011). La Guardia 등(2000)은 대학생들의 안정 애착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Deci 와 Ryan(2000)은 애착과 기본심리욕구만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Wei 등(2005)에 따르면, 불안정 애착은 기본심리욕구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안정애착, 기본심리욕구만족, 인터넷 중독성향 간에 추론되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본심리욕구만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발달과정 중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지속적으로 좌절된 사람은 외적인 보상이나 동기를 추구하여 좌절된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므로(Deci & Ryan, 2000), 이는 가상세계 욕구만족을 추구하는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 연령대에서 인터넷 중독률이 가장 높게 보고된 중학생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을 대상으로, 불안정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인터넷 중독성향, 기본심리욕구만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인터넷 중독성향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매개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그 관련성이 입증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를 가정한 경쟁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기본심리욕구만족(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인터넷 중독성향 간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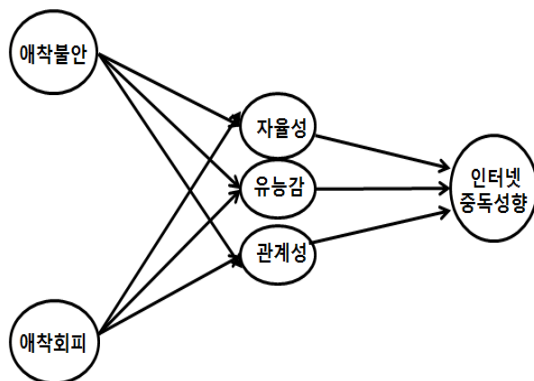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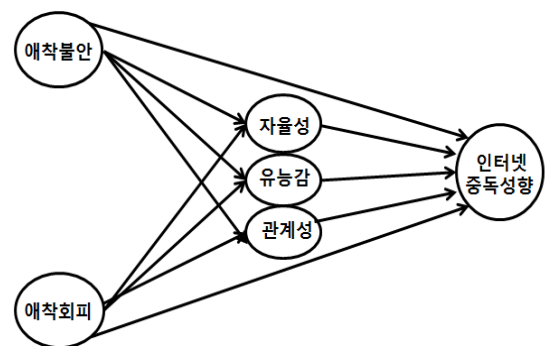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을 위하여 4개의 중학교와 사설 어학원, 봉사동아리 등에 585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572(98.6%)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92부를 제외한 최종 480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측정 도구

#### 불안정애착 척도

Brennan, Clark과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Brennan과 Waller(2000)가 개정한 친밀관계경험애착척도(ECR-Revised, ECR-R)를 김성현(2004)이 번안 타당화하여, 박지선(2008)이 청소년용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황아람(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애착불안 .91, 애착회피 .8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 전체 .93, 애착불안 .92, 애착회피 .89로 나타났다.

#### 기본심리욕구만족 척도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Deci와 Ryan(2002)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인 BPNS(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general version)를 토대로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청소년 대상으로 번안,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며, 본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는 자율성 .70, 유능감 .75, 관계성 .79, 본 연구에서

는 전체 .91, 자율성 .79, 유능감 .88, 관계성 .82로 나타났다.

#### 인터넷 중독성향 척도

인터넷 중독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사용하던 K척도를 참고하여, 2011년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I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 등 총 15문항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 천은주(2013)는 전체 .82, 일상생활장애 .81, 가상세계지향성 .86, 금단 .52, 내성 .85, 본 연구에서는 전체 .88, 일상생활장애 .76, 가상세계지향성 .76, 금단 .58, 내성 .77으로 나타났다.

###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과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AMOS 22.0을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된 연구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주요 연구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수인 Pearson  $r$ 값을 추정하였다.

불안정애착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하였다. 이때 연구모형 내 포함된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만족은 세 하위구성개념을 포함하는 단일 구성개념이므로, 비록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지만 각 구성개념은 이론적으로 서로 강한 상관을 갖기 때문에 모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잔차 간 상관경로를 포함하여 이론적 관련성을 반영하였다.

모형 검증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가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추정하고 경쟁모형들과의 모형 비교를 통해 연구자의 가설에 맞는 모형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모형 내에 포함된 개별 경로들의 계수 값과 유의도를 확인하고 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간접경로의 유의성 판정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Bootstrapping을 거쳐 편향이 교정된 95% 신뢰구간 추정을 통해 효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추정된 모형들 중 적합한 모형의 선택에서 카이제곱 검증은 영가설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본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여러 적합도 지수들 중에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이다(홍세희, 2000).

## 결 과

연구를 위해 설문에 참여한 48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와 변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한 왜도(〈2〉)와 첨도(〈4〉)는 표 2에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 구분          |          | 빈도(N) | 비율(%) | 구분       |          | 빈도(N) | 비율(%) |     |     |      |
|-------------|----------|-------|-------|----------|----------|-------|-------|-----|-----|------|
| 성별          | 남        | 264   | 55.0  | 심심할 때 습관 | 56       | 11.7  |       |     |     |      |
|             | 여        | 216   | 45.0  |          | 오락, 게임   | 181   | 37.7  |     |     |      |
| 학년          | 1학년      | 199   | 41.5  |          | 웹서핑-정보검색 | 119   | 24.8  |     |     |      |
|             | 2학년      | 225   | 46.9  |          | 학습       | 66    | 13.8  |     |     |      |
|             | 3학년      | 56    | 11.7  |          | 채팅       | 21    | 4.4   |     |     |      |
| 이용 빈도       | 매일       | 139   | 29.0  |          | 스트레스 해소  | 22    | 4.6   |     |     |      |
|             | 1주일 4-5회 | 105   | 21.9  | 동기 목적    |          | 웹툰    | 7     | 1.5 |     |      |
|             | 1주일 2-3회 | 130   | 27.1  |          |          | tv 시청 | 2     | .4  |     |      |
|             | 1주일 1회   | 24    | 5.0   |          |          | 노래, 춤 | 1     | .2  |     |      |
|             | 거의 안 함   | 81    | 16.9  |          |          | 뉴스    | 1     | .2  |     |      |
|             | 무응답      | 1     | .2    |          |          | 영화    | 1     | .2  |     |      |
| 이용 시간       | 1시간 미만   | 124   | 25.8  |          | 쇼핑       | 1     | .2    |     |     |      |
|             | 1-2시간    | 194   | 40.4  | 소설       |          | 1     | .2    |     |     |      |
|             | 2-3시간    | 119   | 24.8  |          |          | 자기계발  | 1     | .2  |     |      |
|             | 4-5시간    | 30    | 6.3   |          |          |       | 매우 통제 | 37  | 7.7 |      |
|             | 5시간 이상   | 13    | 2.7   |          |          |       |       | 통제  | 152 | 31.7 |
| 이용 장소       | 집        | 402   | 83.8  |          | 부모 태도    |       |       |     | 보통  | 253  |
|             | pc방      | 62    | 12.9  | 권장       |          |       |       |     | 25  | 5.2  |
|             | 학교       | 5     | 1.0   | 매우 권장    |          | 13    |       |     | 2.7 |      |
| 기타 (친구 집 등) |          | 11    | 2.3   | 총        |          | 480   | 100.0 |     |     |      |

제시하였으며, 그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hi^2$ 과 TLI, CFI, RMSEA를 측정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CFI, TL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의 경우에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mediocre fit),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전 개별 문항의 파달링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그림 3과 같이 전체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chi^2=291.31$ ,  $df=62$ ,  $CFI=.94$ ,  $TLI=.92$ ,  $RMSEA=.08$ ).

표 4의 측정모형 내 개별 구성개념을 추정하는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요인부하량을 바탕으로 분산추출지수와 개념신뢰도를 추정한 값은 다음과 같다. 모든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잠재변수에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p<.001$ ), 이때 분산추출지수가 .5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개념 신뢰도의 경우 자율성이 .67로 낮게 나타났으며, 판별타당성의 경우도 AVE 값이 상관계수<sup>2</sup>를 넘어서고, 상관계수 $\pm 2 \times SE$ 가 1을 포함하지 않아 분석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불안정애착    | -        |          |          |          |          |          |          |         |         |         |         |      |
| 2. 애착불안     | .878***  | -        |          |          |          |          |          |         |         |         |         |      |
| 3. 애착회피     | .834***  | .467***  | -        |          |          |          |          |         |         |         |         |      |
| 4. 기본심리욕구만족 | -.621*** | -.491*** | -.579*** | -        |          |          |          |         |         |         |         |      |
| 5. 자율성      | -.515*** | -.491*** | -.385*** | .807***  | -        |          |          |         |         |         |         |      |
| 6. 유능감      | -.449*** | -.310*** | -.472*** | .867***  | .511***  | -        |          |         |         |         |         |      |
| 7. 관계성      | -.617*** | -.452*** | -.618*** | .849***  | .527***  | .647***  | -        |         |         |         |         |      |
| 8. 인터넷 중독성향 | .298***  | .310***  | .192***  | -.411*** | -.443*** | -.273*** | -.327*** | -       |         |         |         |      |
| 9. 일상생활장애   | .289***  | .298***  | .189***  | -.369*** | -.424*** | -.229*** | -.282*** | .892*** | -       |         |         |      |
| 10. 가상세계지향  | .269***  | .246***  | .213***  | -.399*** | -.435*** | -.239*** | -.342*** | .664*** | .486*** | -       |         |      |
| 11. 금단      | .224***  | .241***  | .135***  | -.350*** | -.312*** | -.280*** | -.292*** | .760*** | .507*** | .438*** | -       |      |
| 12. 내성      | .206***  | .228***  | .117***  | -.268*** | -.312*** | -.167*** | -.199*** | .892*** | .770*** | .476*** | .541*** | -    |
| M           | 116.27   | 56.56    | 59.71    | 78.64    | 26.56    | 25.02    | 27.07    | 26.40   | 8.59    | 3.19    | 7.19    | 7.42 |
| SD          | 31.25    | 19.52    | 16.93    | 14.36    | 5.70     | 6.17     | 5.19     | 8.10    | 3.11    | 1.47    | 2.41    | 2.83 |
| 왜도          | -.07     | -.01     | .15      | -.12     | -.38     | -.23     | -.18     | .41     | .57     | 1.09    | .37     | .50  |
| 첨도          | -.08     | -.69     | .14      | -.20     | .04      | -.12     | -.63     | -.71    | -.52    | .35     | -.57    | -.60 |

주. \*\*\*  $p<.00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모형      | $\chi^2$   | df | CFI  | TLI  | RMSEA |
|---------|------------|----|------|------|-------|
| 1. 측정모형 | 291.310*** | 62 | .944 | .918 | .084  |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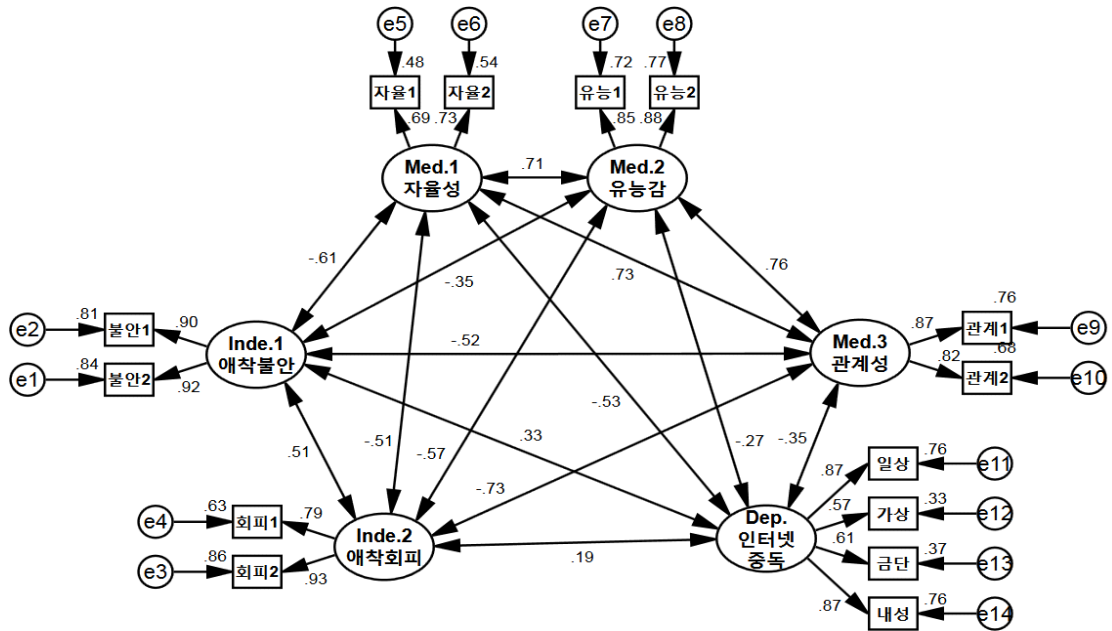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검증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분석 결과

|           |      |     | 요인 부하량 | 분산추출지수 | 개념 신뢰도 |
|-----------|------|-----|--------|--------|--------|
| 불안정 애착    | 애착불안 | 불안1 | .90    | .83    | .91    |
|           |      | 불안2 | .92    |        |        |
|           | 애착회피 | 회피1 | .79    | .75    | .85    |
|           |      | 회피2 | .93    |        |        |
| 기본 심리욕구만족 | 자율성  | 자율1 | .69    | .51    | .67    |
|           |      | 자율2 | .73    |        |        |
|           | 유능감  | 유능1 | .85    | .75    | .86    |
|           |      | 유능2 | .88    |        |        |
| 인터넷 중독성향  | 관계성  | 관계1 | .87    | .72    | .83    |
|           |      | 관계2 | .82    |        |        |
|           |      | 일상  | .87    |        |        |
|           |      | 가상  | .57    |        |        |
|           |      | 금단  | .61    | .55    |        |
|           |      | 내성  | .87    |        |        |

## 연구모형 검증

다음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개별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된 전체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4와 같이 애착과 기본심리욕구만족, 그리고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인과관계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정한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 매개변인이 포함된 상황에서 총 효과의 부분효과로서의 직접효과를 가정하지 않았으므로 연구모형은 완전매개모형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애착과 기본심리욕구만족의 경우, 비록 상위구성개념이 존재하지만 하위구성개념들이 제시하는 설명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개별적인 잠재변인으로 가정하고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성향 만을 단일한 구성개념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론적 관련성이 있는 애착과 기본심리욕구만족은 구성개념 간 상관을 가정하였으며, 다만 기본심리욕구만족의 경우 다른 외생변인의 영향을 받는 내생변인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잔차 간 상관을 가정하여 이를 모형 내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그림 5는 연구모형의 경쟁모형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부터 기본심리욕구만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중독성향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까지 포함하고 있다(부분매개모형).

두 검증모형은 표 5에서처럼 안정적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완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두 개의 직접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모형이 자유도 2 손실 대비  $\chi^2$  감소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약이 적은

본래 연구모형을 최종 채택하게 되었다( $\Delta\chi^2 = 1.621$ ,  $\Delta df = 2$ ,  $p < .05$ ).

채택된 모형 내 포함된 개별 경로들의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불안의 경우 자율성 ( $\beta = -.48$ ,  $p < .001$ )과 관계성( $\beta = -.20$ ,  $p < .001$ )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유능감( $\beta = -.09$ ,  $p > .05$ )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착회피는 세 변인을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26$ ,  $\beta = -.52$ ,  $\beta = -.63$ ,  $p < .001$ ). 또한 매개변인 중 자율성은 인터넷 중독성향을 낮추고( $\beta = -.68$ ,  $p < .001$ ), 반대로 유능감은 인터넷 중독성향을 높이며( $\beta = .22$ ,  $p < .05$ ), 관계성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1$ ,  $p > .05$ ). 상관을 가정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경우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r = .51$ ,  $p < .001$ ), 자율성과 유능감( $r = .64$ ,  $p < .001$ ), 자율성과 관계성( $r = .58$ ,  $p < .001$ ), 유능감과 관계성( $r = .61$ ,  $p < .001$ ) 역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자율성에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영향(-.48)을, 애착회피는 유능감과 관계성에 각각 부적으로 큰 영향(-.52, -.63)을 미치고 있다. 또한 매개변인 중 자율성은 부적으로 큰 영향(-.68)을, 유능감은 중간크기의 영향(.22)을, 관계성은 부적으로 거의 미미한 영향(-.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경로계수 값들을 바탕으로 애착불안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 원천별로 분리하여 추정된 효과의 비표준화 점추정치와 표준오차, 그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 모형             | $\chi^2$   | df | CFI  | TLI  | RMSEA |
|----------------|------------|----|------|------|-------|
| 1.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 | 292.931*** | 64 | .944 | .920 | .083  |
| 2.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 | 291.310*** | 62 | .944 | .918 | .084  |

주. a. \*\*\*  $p < .001$

리고 Bootstrapping을 통해 추정된 편향이 교정된 95%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불안에서 시작한 영향력은 표 6에 제시된 대로 세 간접효과 중 자율성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327, p < .05$ ). 그리고 애착회피 역시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애착불안에서와 같이 자율성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177, p < .01$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애착불안이 자율성을 거치는 간접효과(CI: .103, .237)와 애착회피가 자율성을 거치는 간접효과(CI: .050, .172)는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추정된 방향으로 효과가 일반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의 하위구성개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율성을 감소시켜서 인터넷 중독성향을 심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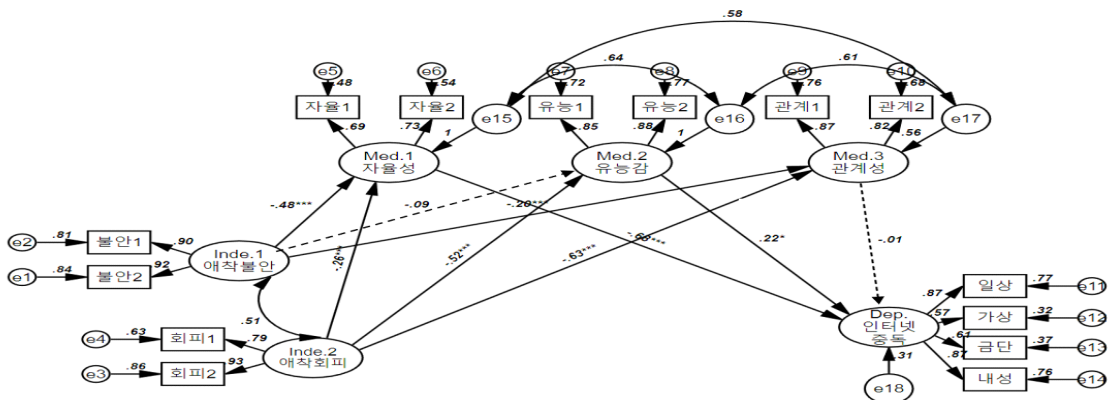


그림 4. 완전 매개모형(연구모형)

주. \* $p < .0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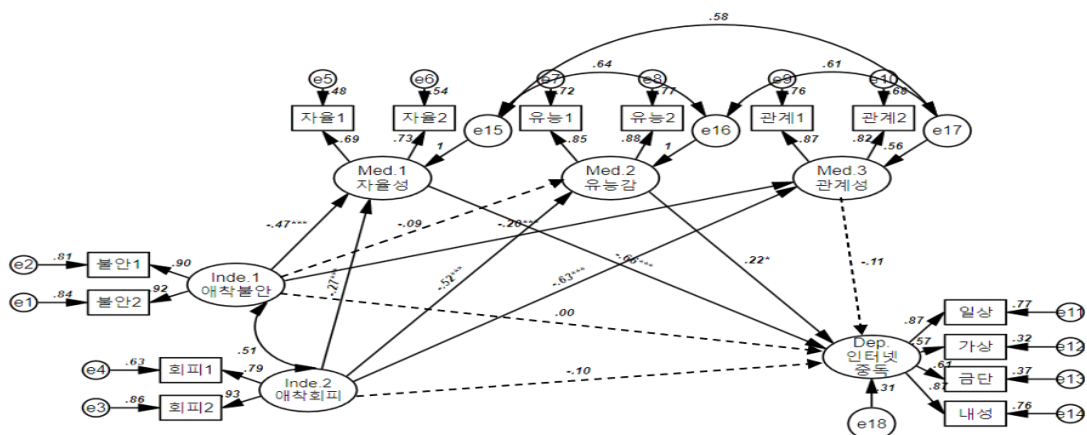


그림 5. 부분매개모형(경쟁모형)

주. \* $p < .05$ , \*\*\* $p < .001$

표 6. 애착불안과 인터넷 중독성향의 관계에서 효과 추정치

| 경로   |                  | B     | SE   | 95% CI<br>(Bias-corrected) |      |
|------|------------------|-------|------|----------------------------|------|
| 간접효과 | 애착불안→자율성→인터넷중독성향 | .327* | .042 | .103                       | .237 |
|      | 애착불안→유능감→인터넷중독성향 | -.020 | .014 | -.046                      | .001 |
|      | 애착불안→관계성→인터넷중독성향 | .002  | .014 | -.021                      | .027 |

주. \*  $p < .05$ 

표 7. 애착회피와 인터넷 중독성향의 관계에서 효과 추정치

| 경로   |                  | B      | SE   | 95% CI<br>(Bias-corrected) |      |
|------|------------------|--------|------|----------------------------|------|
| 간접효과 | 애착회피→자율성→인터넷중독성향 | .177** | .038 | .050                       | .172 |
|      | 애착회피→유능감→인터넷중독성향 | -.114  | .043 | -.145                      | .002 |
|      | 애착회피→관계성→인터넷중독성향 | .006   | .048 | -.069                      | .094 |

주. \*\*  $p < .01$ 

##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불안정애착과 기본심리욕구만족, 그리고 인터넷 중독성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중학생의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기본심리욕구만족, 인터넷중독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은 기본심리욕구만족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부적 상관을, 인터넷 중독성향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특성으로 설명하면 타인의 관심과 사랑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내적작동모델을 지닌 애착불안은 자신의 흥미와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타인의 욕구와 요구에 자신을 맞추므로 자율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애착회피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거절의 경험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신만을 의지하므로 관계성과 높은 부적 상관을 이룬다고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이 기본심리욕구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Wei 등(2005)의 연구, 불안정 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밝힌 유성희(2009), 김영혜(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미충족된 애정과 지지를 인터넷이 제공하는 만족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행동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애착불안은 자율성과, 애착회피는 관계성과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황아람(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만족은 인터넷 중독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기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만족되어야 할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현실에서 좌절되었을 때, 그 결핍을 인터넷 속 가상세계에서라도 만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몰입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은 인터넷중독성향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만족이 낮은 사람은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를 가상에서라도 만족시키고자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Alex & Jefferey, 2001; Przybylski et al., 2010), 남자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만족이 인터넷 중독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정민선 등(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모형검증을 한 결과,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었지만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율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통해 중학생들의 불안정애착으로 인한 자율성의 저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를 좌절시키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관계에서 고립되는 부적응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로 술선수범적이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힘들게 되어 인터넷 중독성향을 상승시키는 주요 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 자율성이 낮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의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자율성 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시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가능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개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면, 이는 중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성향 문제에서 불안정애착 자체가 직접적인 인터넷중독성향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자율성의 결핍을 통해 유발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아졌다는 김은영(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감은 오히려 인터넷 중독성향을 증가시키는 정적 효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기본심리욕구만족이 인터넷중독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Przybylski et al., 2010; 이지혜, 2012; 정민선 외, 2012)과 어려움 극복 유능감과 자기주장 유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진다는 연구(이만제, 2009)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자율성, 관계성과 더불어 인터넷 중독성향과 부적 상관관계였던 유능감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자율성으로 인해 영향력이 약화 되어 효과의 방향이 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가정과 인터넷 활동에 뛰어난 기량을 보여 주위의 인정을 받은 청소년이 더욱 인터넷에 몰입함으로써 중독성향이 상승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따라서 유능감과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하여 종단연구 및 중독 집단과의 비교분석 등의 탐색을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인터넷 중독성향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립변인인 불안정애착의 출발점이 '양육자와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볼 때, 관계성의 역할이 다른 두 하위변인인 자율성과 유능감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서승연, 이영호, 2007)와 관계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김은영, 2012)와 일치한다. 이것은 현실에서 관계성 욕구가 결핍된 청소년이 더 많은 관계 만족을 추구하고자 인터넷에 몰입함으로써 중독성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본 가정과 불일치한 부분으로 차후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불안정애착은 기본심리욕구만족을 낮추고, 낮아진 기본심리욕구만족은 인터넷 중독성향을 상승시키므로, 인터넷 중독성향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세 변인에 대한 통합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이 낮은 경우,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불안정애착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활용한 개입의 성공 가능성을 의미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아울러 자율성의 확보는 유능감과 관계성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선행조건이 되므로, 치료를 위한 상담 개입이나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대상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중 자율성을 통해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때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자율성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계성을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일반 학생들뿐 아니라 인터넷 과의존 학생들까지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인들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것의 활용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KBS 뉴스(2019. 02. 11.).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1위 국가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5732>에서 2019. 02.11. 인출.
- 강정훈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권정혜 (2005). 인터넷 게임중독: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67-280.
- 김서현 (2011). **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혜 (2010). 부정적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85-900.
- 김은영 (2012).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12-316.
- 박승민 (2005). **온라인 게임 과다 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승연, 이영호 (2007).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391-405.
- 성윤지 (2011). **청소년의 소외감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성만, 고영삼 (2017). **‘인터넷 중독’의 대체 용어로서 ‘인터넷 과의존’의 개념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유성희 (2009). **성인여성의 애착유형과 중독성향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 이지연, 장진이 (2013). 부모와의 애착과

-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91-106.
- 이만제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지능 및 대인관계성향 차이. **한국컨텐츠학회지**, 9(11), 201-211.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지혜 (2012). **현실에서의 기본심리욕구충족 정도와 인터넷 과다사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덕, 홍혜영 (2011).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의 관계: 외로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 271-294.
-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청소년의 기본욕구 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소미터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0(1), 159-174.
- 조화진, 서영석(2011).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 천은주(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연구**, 35-38.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4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4-27.
- 한유진, 최나야 (2009).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기조절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7(3), 171-18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아람 (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ex, S. H. & Jefferey, P. (2001). Internet Addiction: College student case study using best practice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 312-327.
- Bowlby, J. (1953). *Child care and the growth the lov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the repor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Brennan, K. A., Clark, C. I.,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Y: Guilford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 D.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3-33).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 Vansteenkiste,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 basic need satisfacti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in positive psychology. *Ricerche di Psicologia*, 27(1), 17-34.
- Fraley, R. C., Brennan, K. A. & Waller N. G.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Lafemiere, M. K., Vallerand, R.J., Donahue E.G. (2009).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loving: the role of pass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2, 285-290.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Perris, C., Arrindell, W. A., E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England: John Willy & Son
- Przybylski, A. K., Rigby, C. S. & Ryan, R. M. (2010). A motivational model of video game engagement.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4(2), 154-166
- Reeve, J. (2011). 동기와 정서의 이해[*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4th Ed.)*]. (정봉교, 윤병수, 김이영, 도승이, 장형심 공 역). 서울: 박학사(원전은 2005년 출판).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2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9일

##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Insecure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Jang, So Cheon

Boramae I Will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insecure attach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role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The first result is that anxious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have demonstrat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the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has shown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Second, insecure attachment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but has an indirect effect on it through basic psychological need as a mediator variable.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was ident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en autonomy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was lowe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secure attachment in this study showed higher tendency of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s, Insecure attach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ternet overdependence*

#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가족상담센터 방문 기혼자를 대상으로

진 신 남\*

신 혜 진\*\*

송 은 정\*\*\*

염 화 숙\*\*\*\*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구성심리상담  
센터

한국가족  
상담센터

부산시  
서구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 및 원가족내 부모-자녀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 부부가족상담센터에 내방한 기혼자 323명을 대상으로 SPSS 22.0과 매개회귀분석(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족상담센터 방문 기혼자의 성인애착은 부부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애착은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부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 및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부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부부생활적응,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

\* 제1저자: 진신남,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상담사

\*\* 제2저자: 신혜진, 구성심리상담센터 상담사

\*\*\* 제3저자: 송은정, 한국가족상담센터 상담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염화숙, 부산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49206) 부산시 서구 시양로 125 1층  
E-mail: ghktnr32@naver.com

인간은 사랑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고,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충족하기를 원하며(Johnson & Whiffen, 2003), 가족이라는 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오늘날 사회문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체계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반면 부부의 갈등은 가정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박진희, 함경애, 천성문, 2020). 즉, 부부관계의 질은 부부의 행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친다. 부부관계의 질은 부부간의 애정, 배려, 동등한 관계, 만족감, 개인적인 성장 등 정서적 충족감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Bowman & Spanier, 1978), 이런 요소들의 충족이 낮아질 때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부부갈등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결혼생활로 연결된다.

2021년 1분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혼은 2만 5206건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 3.5% 증가하였다. 특히 3월 이혼은 작년 3월에 비해 24.4% 증가하여, 2018년 10월(26.3%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조선일보, 2021. 05. 26). 최근 코로나로 인해 법정 재판과 이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잠재적 이혼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 가정 해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부부의 문제는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이어져 자녀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진희, 함경애, 천성문, 2020). 이처럼 부부갈등이 자녀에게로 이어져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갈등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므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

로 바뀌어 가고 있어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부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족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은 주로 부부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권정혜, 채규만, 2000, Molero, Shaver, Fernández, & Recio, 2017), 그 중 성격차이, 성생활, 의사소통, 처가/시가와의 관계, 본가/친정과의 관계, 경제문제, 자녀양육태도, 배우자의 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 등을 원인으로 보고한다(김아영 조영주, 2018). 이와 더불어 부부사이의 친밀감 부재, 빈약한 의사소통기술 혹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양식, 성인애착, 부부 부적응 등도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권정혜, 채규만, 2000; Molero, Shaver, Fernández, & Recio, 2017). 상담센터를 방문한 내담자들은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대부분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갈등이 지속되고 더욱 악화된다고 보고한다. 부부가족상담자들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 내담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상담에서의 효과로 이어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실증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부부문제는 다른 가족관계 문제와 중첩되어 나타나고 또 다른 가족문제의 원천으로 작용하므로(박혜인, 2000) 부부갈등을 돕기 위한 개입은 부부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부부들이 자신들의 부부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김영희, 1999) 방향으로의 접근이 중요하므로 특히 원인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적응에 어떠한 원인들이 작용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부생활적응이란 결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과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개인적인 불안, 결혼 만족, 부부간의 응집성,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한다(Spanier, 1976).

부부생활적응은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부만족도, 부부일치도, 부부결합, 애정표현, 부부행복의 개념을 통합한 것이다(서미아, 2014). 적응적인 부부들은 부부의 애정문제 및 종교, 직업결정 및 관습 등에 대한 부부의 합의 수준이 높다. 그리고 친밀한 부부관계는 의견을 주고받거나 여가 및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는 등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결속력을 높이려 하고 현재 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부부생활적응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박미화, 홍지영 2019).

국내연구에서 나타난 부부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애착손상, 용서, 자기효능감, 자기자비, 삶의 질 등이 연구되었으며(구혜진, 서미아, 2017; 김주희, 박한중, 신혜숙, 한수경, 2018; 김혜숙, 2016; 박미화, 홍지영, 2019;) 대인 간 변인으로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대처방식, 원가족 건강성, 가족탄력성, 가족지지, 부부갈등, 탈중심화, 원가족 규칙, 일치성, 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곽민하, 전해성, 2016; 김주희, 박한중, 신혜숙, 한수경, 2018; 김인아, 2017; 김혜숙, 2016; 박미화, 홍지영, 2019; 현인순, 박용순, 송진영, 2015). 특히 개인 심리적 요인인 애착손상은 부부간의 불안정 애착을 유발하는 핵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서미아, 2016). 부부가족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이 주로 부부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면에는 부부가 서로에게 안정적인 애착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정서적 단절로 이어지고 이러한 단절이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미아, 2016). 따라서 부부가 서로 안정적인 애착으로 연결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로 이어지는 토대(이희숙, 박경, 2008)가 되기 때문에 애착은 부부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예측할 수 있다.

애착은 중요한 사람과 접촉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결합을 이루고자 하는 선천적인 욕구로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경우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경우 자신에 대한 정의도 부정적으로 내리는데 이러한 애착유형은 성인 애착으로 이어진다(구혜진, 서미아, 2017). 이는 영유아기에 형성된 애착 행동이 점차 성인기 애착 대상에게 가까워지고자 하는 형태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Bowlby, 1979; 전현득, 2020). 그래서 영유아기에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부부사이에서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여 애정 어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독립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존중하게 되므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인애착이란 성인기에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제공하는 특정한 근접성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개인의 안정된 경향성을 의미한다.(Sperling & Berman, 1994). 성인애착은 애착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기반한 개념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지속적이고 강한 유대의 감정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안정적 애착은 관계만족과 강한 정적 관계가 있고(심은정, 조영주, 박단비, 2019; 전민선, 2020) 결혼만족도에 직간접영향을 미친다(윤귀연, 손은정, 2014; 전민선, 2020). 애착과 관련한 연구에서 애착손상이 낮을수록 부부생활적응은 높았고, 애착손상이 높을수록 부부생활적응이 낮아 애착손상은 부부생활적응과 부적상관이며 결혼불만족을 높이는 요인(구혜진, 서미아, 2017)으로 나타났다. 애착성향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애착손상을 경험했을 경우 대인관계 민감성이 부족하고, 낮은 표현능력을 지녔고(Feeney, 1995) 배우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되거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여 결국 배우자를

오해하거나 불신하게 되고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렸다(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반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배우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사고와 감정에 대해 공감하며 온화하고 표현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정경아, 김봉환, 2010). 따라서 성인애착의 문제는 부부생활적응뿐만 아니라 부부의 의사소통과도 연관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부의 의사소통이란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 태도 등을 표현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과정(강정실, 2015)으로 부부간 상호작용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은 대인관계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 방법은 원가족으로부터 습득한 의사소통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Noller, 1995)는 점이다. 즉, 원가족과의 정서적 상호작용 패턴이 그대로 전수되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연결되어(김경자, 2004) 자신이 경험했던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향이 있다(하상희,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이란 가족구성원 간 경험, 신념, 감정 등을 공통화하거나 공유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하는 상징적 교환작용 과정(장혜순, 이만제, 2016)이며,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Galvin & Brommel, 1986; 유준호, 2012)이다. 즉, 의사소통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며 학습되는 것으로 부모 자녀와의 애착유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유형이 전수되어 나타나는 성인 애착 또한 의사소통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인간관계 기초를 형성하고 태도, 가치관, 성격의 핵심이 되는 자아개념 발달(백윤미, 유미숙, 2006)과 개인의 인성과 대인관계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반승원, 2013).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부모-자녀의 관계를 친밀하게도 하고 감정의 고립을 가져오기도 하며(오혜림, 이주영 2018), 자녀의 스트레스 인식이나 이에 대한 대처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원가족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부부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원가족은 가족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기초라고 정의하였으며,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사건을 새롭게 구성한 가족 안에서도 되풀이할 경향이 높다고 보았다(Stair, 1983). 그리고 개인의 원가족 역동이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역동의 기틀이 되는 이유는 부부 각자 자신의 원가족에서 하던 가족 간 상호작용을 부부관계에서도 다시 통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민희, 2016). 이는 부모님 부부관계의 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환경과 같이 가족의 복합적 환경이 결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았고 특히 남편과 아내 모두 가정환경과 결혼만족, 가정환경과 결혼 안정성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애착성향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Holman, Larson & Harmer, 1994)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원가족에서의 경험은 성인이 된 후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자 성공적인 결혼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김민희, 2016), 부부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변수(Stair, 1983; 김민희, 2016)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린 시절 원가족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성인이 된 후 부부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부부가족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은 대체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대화가 단절되어 있거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높다. 부부 갈등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한 내담자

들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어린 시절 부모-자녀 간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습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한다. 즉, 불안정한 가족관계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성격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해지는데 특히 부부관계에서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즉, 비난, 경멸, 방어, 냉담 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아영, 조영주, 2018). 그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이성친구와 더 친밀하고 안정된 성공적인 관계를 맺으며(Feeney & Noller, 1990), 부모와의 유대와 전생애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Berman & Sperling, 1994). 그러므로 원가족 내에서 형성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은 성인애착과 마찬가지로 이후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인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부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반면, 불안정적일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은 그 자체로 결혼만족도 상승을 예측하는 동시에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김수환, 이영호, 2021)시킨다. 따라서 의사소통방식은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족 상담에서는 원가족 내에서 형성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부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 애착손상이 있었더라도 원가족 내에서 형성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배우며 부부생활적응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원가족 내에서 형성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부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유형이 성인기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애착의 연속성을 검증한 연구(조영주, 최해림,

2001; Berman & Sperling, 1994)와 부모와의 유대와 전 생애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이(오가영, 한지현, 2019)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은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통해 고유한 방식과 상호작용패턴을 터득한 후 세대를 걸쳐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는 연구결과와 원가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배우자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강수경, 최지현, 정미라, 2015)는 연구결과도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기혼자의 성인애착이 부부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형성된 원가족 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해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상담센터를 내방한 기혼자를 대상으로 성인애착을 예측변인으로 부부생활적응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고,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과정이나 기제로서 원가족 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부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접근에 있어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 성인애착으로 인해 부부생활적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가족내에서의 의사소통 유형을 이해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생활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 장면에서의 대안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성인애착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부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성인애착과 부부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부부가족상담센터에 내방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 상담자에게 조사 실시 지침 및 안내사항을 전달하였다. 상담자는 내방한 기혼자와 사전면담 전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 및 결과처리 방법, 주의사항,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안내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21년 1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38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고 수거되었으나, 수집된 자료 중에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이 곤란한 57부를 제외한 32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전체 기혼자 323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기혼자 102명(32%), 여자 기혼자 221명(68%)로 여자 기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30대(47%), 40대(42%), 50대(11%)로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부부생활적응

부부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Spanier(1976)가 개발하고 Busby(1995)가 보완, 개정하고 최성일(2004)이 번안, 타당화한 부부생활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대한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 & Shaver(1998)가 개발하고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2007)이 개정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를 김혜진(2011)이 번안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대한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 부모-청소년자녀 의사소통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nes 와 Olson(1985)이 개발하고 Kim, Prouty, Smith, Ko, Wetchler, & Oh (2015)이 개정하고 번안 타당화한 부모-청소년자녀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대한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 결 과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와 각 변인들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고,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회귀

분석단계(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총 3단계의 조건이 충족될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 및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1단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끝으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은 재표집 횟수를 5,000회로 생성하도록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성인애착,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부생활적응의 관계

먼저 성인애착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부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부생활적응은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 $r=.343, p<.01$ ) 관계를 보였고, 성인애착과는 부적인 상관( $r=-.359, p<.01$ ) 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인애착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에

서는 부적상관( $r=-.233, p<.01$ ) 관계를 나타냈다.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Baron과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인애착을 예측변인으로, 부부생활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1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성인애착의 영향이 유의하며( $\beta=-.359, p<.001$ ), 12.9%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2단계 회귀방정식은 성인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투입되어( $\beta=-.233, p<.001$ )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분산 중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는 부부생활적응에 대한 성인애착( $\beta=-.295, p<.001$ )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 $\beta=.274, p<.001$ )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고 부부생활적응에 미치는 설명력은 20.0%였다. 더불어 3단계에서 성인애착이 부부생활적응에 영향력의 크기가 1단계에서의 영향력의 크기보다 그 절대값이 감소하여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3단계에서 성인애착의 부부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표 1. 주요변인간의 상관계수 및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                       | 1       | 2      | 3     |
|-----------------------|---------|--------|-------|
| 1. 성인애착               | 1       |        |       |
| 2. 원가족내<br>부모-자녀 의사소통 | -.233** | 1      |       |
| 3. 부부생활적응             | -.359** | .343** | 1     |
| 평균                    | 38.83   | 35.45  | 43.50 |
| 표준편차                  | 10.82   | 6.09   | 6.15  |

주. \*\* $p<.01$

표 2. 부부생활적응, 성인애착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단계 | 준거<br>변인              | 예측변인                  | $R^2$ | $F$       | $B$   | $SE$ | $\beta$ | $t$       | $VIF$ |
|----|-----------------------|-----------------------|-------|-----------|-------|------|---------|-----------|-------|
| 1  | 부부<br>적응              | 성인애착                  | .129  | 47.403*** | -.204 | .030 | -.359   | -6.885*** | 1.000 |
| 2  | 원가족내<br>부모-자녀<br>의사소통 | 성인애착                  | .054  | 18.384**  | -.131 | .031 | -.233   | -4.288*** | 1.000 |
| 3  | 부부<br>생활<br>적응        | 성인애착                  | .200  | 39.908*** | -.168 | .029 | -.295   | -5.734*** | 1.057 |
|    |                       | 원가족내<br>부모-자녀<br>의사소통 |       |           | .277  | .052 | .274    | 5.325***  | 1.057 |

주. \*\*\*  $p < .001$ 

이를 통해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성인 애착과 부부생활적응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성인애착이 부부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표본오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출함으로써 추정하는 방법으로 95% 신뢰구간

(Biased-corrected CI)을 제시하고, 그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애착은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생활적응으로 가는 매개효과( $B = -.036$ , 95% Bias-corrected CI =  $-.057 \sim -.01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은 (매개)를 통해 (종속)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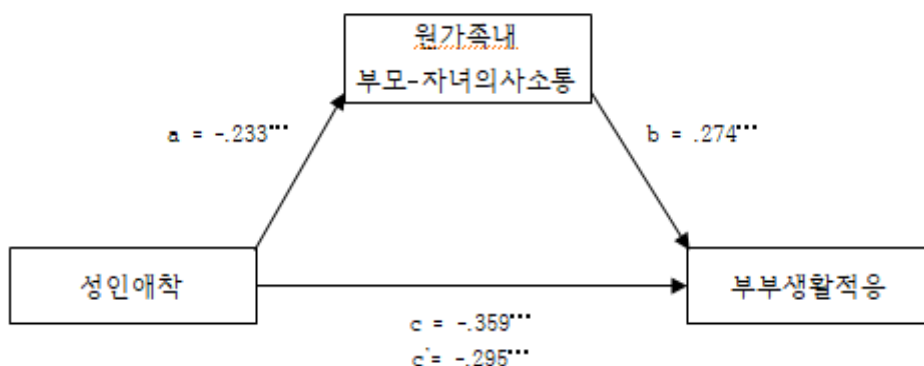


그림 1.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표 3.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Bootstrapping 결과

| 경로                              | <i>B</i> | <i>SE</i> | 95% 신뢰구간 |        |
|---------------------------------|----------|-----------|----------|--------|
|                                 |          |           | 하한       | 상한     |
| 성인애착 →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 → 부부생활적응 | -.0363   | .0102     | -.0567   | -.0171 |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가족상담센터를 방문한 기혼자의 부부생활적응에서 성인애착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이 지각하는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족상담센터를 방문한 내담자가 지각하는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 및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부생활적응은 성인애착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성인애착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부생활적응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이 부부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박상화, 하창순, 2016; 송두리, 문정숙, 김영희, 2012; 오종현, 2016)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손상이 높을수록 부부생활적응이 낮아지는 반면, 애착손상이 낮을수록 부부생활적응은 높아진다(Millikin, 2000)는 결과와 부부간의 애착손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에는 부부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서미아, 2014)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영유아기에 자신의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형성한 애착관계는 성인이가 되면서 주로 연인이거나 배우자를 주요한 애착 대상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어릴 적 애착유형을 반복

하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대상으로부터 안전감과 사랑을 느끼게 하여 부부생활적응을 높여준다. 또한 애착손상으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 상담자는 부부의 원가족 관계에서의 애착유형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관계에서 안전감과 연결감을 느끼며 관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애착의 대상이 되어 줄 수 있는 상담적 접근으로 부부생활적응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성인애착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나타난 부적 상관관계는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민희, 민경환, 2007; 장휘숙, 이영주, 2007)와 일치하는 것으로 원가족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의 관계를 친밀하게도 하고 감정의 고립을 가져오기도 한다(오혜림, 이주영 2018). 이러한 결과에서 성인기 부부관계에서도 어릴 적 애착유형을 반복하는 것과 같이, 어린 시절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부부관계에서 그대로 어린 시절 상처를 재연하게 되므로 의사소통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부부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마고 부부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대화법은 부부가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상처를 통해 끊어졌던 유대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돕는(Brown, 2009) 접근법으로 부부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용한 상담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부생활적응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형연구(김미순, 2014; 김진분, 최규련, 2007; 나양수, 2015; 이루진, 2008)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부부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부부의 대화 속에서 부정적, 고착된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는 부부 문제를 반복시킬 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주고받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Gottman & Silver, 2015). 그러므로 부부상담에서 원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경험하며 부부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이 부부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애착이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경유하여 부부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생활적응이 성인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에 의한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부부애착과 부부의사소통 간에 영향관계가 있고(김미나, 2008; 장문선, 2005), 부부의사소통능력은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상호작용 패턴이 이후 개인의 의사소통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부부친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성희, 2006; 전연진, 2002; 하상희, 2007)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성인애착이 안정적인 애착유형일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부부생활적응이 향상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의사소통에 대한 개입이 부부생활적응에 유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애착이 안정적인수록 배우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사고와 감정에 대해 공감하며, 온화하고 표현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정경아, 김봉환, 2010). 이는 원가족내 부모-자녀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부부 상호 간 대화가 많고, 언어 선택을 신중히 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응하여 부부의 행복감이 높아져(조유리, 김경신, 2000),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부부상담센터를 방문한 내담자를 상담할 때 부부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성인애착과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함께 고려하여 상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부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부부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의 부부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부부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의 부부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해 원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유형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식을 이해하고 그것이 부부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 개입 프로그램과 의사소통 접근법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부부가족상담센터를 방문한 내담자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폭을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월평균 수입, 학력,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세분화와 균등한 비율을 고려한 부부가족상담센터 내담자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에

착과 부부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표집이 부족하므로 보다 많은 대상을 통한 효과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부 생활적응은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루지 못한 중요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인지·정서·행동적 변인들을 포함시켜 부부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수경, 최지현, 정미라 (2015). 임신기 부부의 원가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3), 529-551.
- 강정실 (2015). 부부의사소통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6(5), 385-397.
- 곽민하, 전해성 (2016).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39-359.
- 구혜진, 서미아 (2017).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01-418.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 김경자 (2004). 기혼남성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3), 15-31.
- 김미나 (2008). 성인애착과 Sternberg의 사랑유형에 따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순 (2014). 목회자 부부의 의사소통능력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 (2016). 상담분야에서 중년기 대상 연구 동향: 국내 주요 상담 학술지를 중심으로 (2000년~2016년). **인문사회**21, 8(2), 1013-1029.
- 김민희, 민경환 (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김수환, 이영호 (2021).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 행동과 부부간 신뢰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1439-1459.
- 김아영, 조영주 (2018).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567-588.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6.
- 김인아 (201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9(3), 53-74.
- 김주희, 박한중, 신혜숙, 한수경 (2018). 자기효능감, 부부적응도 및 가족 지지가 난임 부부의 양생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동서간호학회지**, 24(1), 44-51.
- 김진분, 최규련 (2007). 군인부부의 의사소통과 직업만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4), 1677-1692.
- 김혜숙 (2016). 전립선 절제술 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의사소통이 부부 적응 및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과학연구**, 5(2), 55-65.
- 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중년기 기혼 여성의 성인애착 불안/회피와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행동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3(3), 267-297.

- 나양수 (2015). **일중독, 완벽주의, 일-가정 갈등 및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화, 홍지영 (2019).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659-689.
- 박상화, 하창순 (2016). 기혼자의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정서인식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6), 499-522.
- 박진희, 함경애, 천성문 (2020). 부부상담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부부상담의 치료적 요인연구. **상담학연구**, 21(1), 69-91.
- 박혜인 (2000).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가정폭력 자료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37-160.
- 반승원 (2013). **가족 커뮤니케이션이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끼치는 영향 -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자아분화도 매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윤미, 유미숙 (2006). 부모-자녀 촉진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9(3), 85-98.
- 서미아 (2014). 애착손상을 경험한 유방암 여성의 부부친밀감 및 정신건강에 대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361-384.
- 서미아 (2016). 애착손상을 경험하는 부부에 대한 정서중심치료가 부부애착에 미치는 효과-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적용하여. **가족과 가족치료**, 24(1), 47-71.
- 송두리, 문정숙, 김영희 (2012).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간의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1), 65-76.
- 심은정, 조영주, 박단비 (2019). 성인애착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6), 71-92.
- 오가영, 한지현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불안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47-64.
- 오종현 (2016). 원가족경험과 결혼만족 관계에 미치는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7(2), 509-532.
-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16.
- 오혜림, 이주영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23-46.
- 유준호, 홍은주 (2012). 조기유학에 의한 분거가족의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4(1), 39-59.
- 윤귀연, 손은정 (2014).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해석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71-271.
- 이루진 (2008).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 (2006). **이혼결심자의 원가족 경험에 대한 연구: 법원을 방문한 협의이혼 청구자들을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숙, 박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장문선 (2005). **결혼만족 및 우울에 대한 인지-대인관계 접근과 그 치료적 개입의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해순, 이만제 (2016). 가족의사소통패턴, 의사소

- 통 스타일 및 불안감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화법연구**, 0(31), 271-314.
- 장휘숙, 이영주 (2007).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17-32.
- 전민선 (2020).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역할과 가사분담 만족도의 조절역할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4), 1293-1308.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현득 (2020). 청년기 여성의 성인애착의 차원과 연애만족도: 정서표현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1), 1-18.
-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 조선일보 (2021). **1분기 혼인 17.6%줄고... 이혼은 3.5% 늘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10526n22499?mid=n1101> 2021. 05. 26. 인출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하상희 (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상희 (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26(2), 129-141.
- 현인순, 박용순, 송진영 (2015). 기능적 관점의 원가족 규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 48(12), 430-468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44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3-28.
- Bowlby, J. (1979). The bowlby-ainsworth attachment theor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4), 637-638.
- Bowman, H. A., & Spanier, G. B. (1978). *Instructor's Manual to Accompany Modern Marriage*. N.Y.: McGraw-Hill.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NY: Guilford Press.
- Brown, R.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Imago relationship therapy: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9년 출판).
- Busby, D. M., Christensen, C., Crane, D. R., & Larson, J. H.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Feeney, J. A. (1995). Adult attachment and emotional control. *Personal Relationships*, 2(2), 143-159.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 communication.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Gottman, J., & Silver, N. (2015). 가트맨의 부부감정치유[*What makes love last? How to build trust and avoid betrayal*]. (최성애 역). 서울: 을유문화사(원전은 2012년 출판).
-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N.Y.: Prentice-Hall.
- Holman, T. B. Larson, J. H., & Harmer, S. L.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1), 46-52.
- Johnson, S. M., & Whiffen, V. E. (Eds.). (2003).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H., Prouty, A. M., Smith, D. B., Ko, M. J., Wetchler, J. L., & Oh, J. E. (2015). Differentiation and healthy family functioning of Koreans in South Korea, South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white American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1), 72-85.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illikin, J. W. (2000). *Resolving attachment injuries in couples using emotionally focused therapy: A process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Tech, Virginia.
- Molero, F., Shaver, P. R., Fernández, I., & Recio, P. (2017). Attachment insecurities, life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from a dyadic perspective: The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3), 337-347.
- Noller, P. (1995). *Explaining family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28.
- Sperling, M. B., & Berman, W. H. (1994).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Y.: Guilford Press.
- Wei, M., Russell, D. W., Mallinckrodt, B., & Vogel, D. L. (2007).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hort form: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2), 187-204.
-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0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3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7일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the Family-of-Origi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Adaptation: For Married Individuals Visiting Family Counseling Centers

|                                                |                                        |                                   |                                        |
|------------------------------------------------|----------------------------------------|-----------------------------------|----------------------------------------|
| Jin, Shin Nam                                  | Shin, Hye Jin                          | Song, Eun Jeong                   | Youm, Hwa Suk                          |
| Hug mom hug-in Psychology<br>Counseling Center | Gusung Psychology<br>Counseling Center | Korea Family<br>Counseling Center | Busan Seogu Youth<br>Counseling Center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marital adapt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within the family-of-origi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adaptation. To this end, SPSS 22.0 and 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a quantitative study with 323 married individuals who visited Married Family Counseling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significance of a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using bootstrapping. First, the presenting study found that the adult attachment of married individuals visiting marital family counseling cent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arital life adaptation. Second, adult attachmen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within the family of origi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within the nuclear fami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arital adaptation. Finally, it was found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within the family of origin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adapt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valuable because it show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dult attachment, marital adapt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within the family of origin. It also revealed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the family-of-origin has a positive effect on enhancing marital adaptatio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escribed.

*Key words: Adult attachment, Marital adaptati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the family of origin*



## 국내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이 지 영\*

김 현 정\*\*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부경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수련생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담수련과정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0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관련 민간자격등록이 시작된 이후의 논문 중,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상담수련과정에 관한 14편의 국내학술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상담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연간 0편-3편이 발표되었으며, 선정된 논문들은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합의적 질적 분석의 연구방법 등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는 국내 상담관련 학부 재학부터 박사까지의 학위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이고, 상담수련과정을 경험했던 상담사들이다. 분석결과는 상담수련과정이 상담사의 개인적인 영역과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과정임을 보여주었고,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상담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상담수련과정, 슈퍼비전, 수련생 경험, 슈퍼바이저 경험

\* 제1저자: 이지영,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현정, 부경대학교,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E-mail : khjnu@hanmail.net

상담자는 수련과정을 통해 상담이라는 전문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는 뿐 아니라 상담자로서 가져야 할 상담자 자신에 대한 태도, 내담자에 대한 태도와 같은 인간적인 자질도 함께 키워야 한다(이미정, 2014). 이는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한 만큼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성장한 만큼 내담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전문가들은 자신의 실제 대인관계 방식이 상담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 또는 직장 등의 일상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내담자들에게는 상담자와의 관계 자체가 성취 경험 또는 상담의 성과가 될 수 있다(진보겸, 금명자, 주은선, 2019). 상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상담사로서 내담자를 돕기 위해 개인적 성장과 전문가적 성장의 과정을 통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이미정, 박승민, 2015). 상담자들이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임상적 분야에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 가치관의 탐색과 함께 교육, 슈퍼비전 및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최지원, 김수지, 2018).

상담자는 자신의 관계경험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자신의 과거 관계경험을 상기시키는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치료 장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치료에서 상담자로서의 윤리를 유지하고 비효율적이고 우발적인 개입으로 인한 부정적이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Rhodes et al., 2016). 이렇듯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관계의 경험은 상담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과 상담과정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수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돕기 위한 상담 수련에 관련된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상담사 자격 취득은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취득으로 구분되어 있다. 200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으로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관련 자격이 등록되었으며, 2011년 부부상담 관련 자격이 등록되었다. 민간자격취득을 위한 상담사 수련은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과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양성과정 등이 있다. 또한 상담의 대상에 따라 상담의 형태를 개인, 부부, 가족상담 등으로 구분할 지을 수 있는데, 상담사 수련과정도 개인, 부부, 가족상담사 수련과정으로 구분되어 진다. 국내에서는 상담사들이 대학원 교과과정뿐 아니라 개인분석, 집단상담, 슈퍼비전, 상담실습, 사례발표, 상담관련 세미나와 워크샵, 다양한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련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수련과정’을 앞서 언급한 다양한 교육과 임상수련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국내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학술논문의 연구 현황, 즉 연구주제, 연구방법과 결과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수련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방 법

### 분석대상 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지식베이스(DBpia)를 통해 국내학술지 등재 논문을 검색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연구

대상은 상담심리분야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등록이 시작된 2008년 이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부터 민간자격발급을 위해 국내 상담심리관련 학회 및 협회의 전문가 수련에 관한 시행세칙이 구성되고, 그 후 상담수련과정이 좀 더 구조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국내학술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으로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련된 주요 검색어로는 상담수련과정, 수퍼비전 경험, 교육 분석 경험, 수련생 경험, 수퍼바이저 경험, 부부상담사 수련 경험, 가족상담사 수련 경험 등을 주요 어휘로 연구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검색어로 검색한 논문의 연구방법은 모두 질적 연구로 검색되었다. 최종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상담수련과정(수퍼비전, 교육 분석 포함)에서 수련생으로서의 경험에 관한 국내학술지 등재 논문연구 총 14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 분석대상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 분석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표 1, 표 2, 표 3).

## 결 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련된 국내학술지 등재 논문 14편을 연도별 연구 출판 수, 연구대상자의 전반적 특징, 연구방법 및 결과 등의 하위요인으로 분석하였다.

## 전반적인 정리 및 정보

### 1) 연도별 연구 출판의 수

상담수련과정을 연구한 국내 학술지 14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출판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도별 연구 출판 수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 중에 2009년에 1건, 2014년에 3건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5년부터

표 1. 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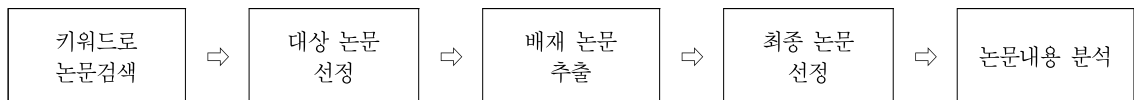


표 2. 분석대상 선정 기준

| 주요 검색어                                                                | 논문 선정 기준                           |
|-----------------------------------------------------------------------|------------------------------------|
| 상담수련과정, 수퍼비전 경험, 교육 분석 경험, 수련생 경험, 수퍼바이저 경험, 부부상담사 수련 경험, 가족상담사 수련 경험 | 상담수련과정(교육 분석, 수퍼비전 등)에서 수련생으로서의 경험 |

표 3. 분석대상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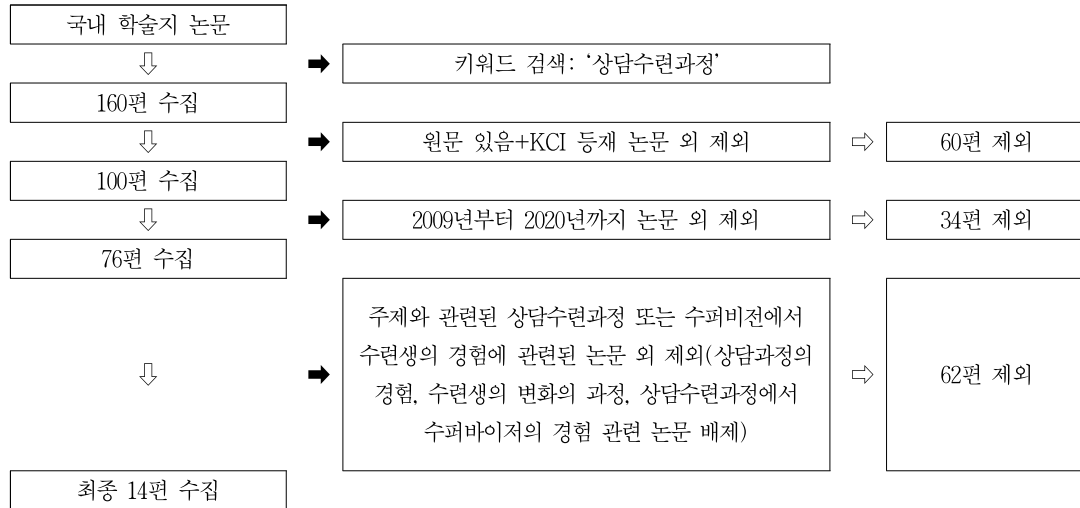


표 4. 연도별 연구 출판 수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출판수 | 1    | 0    | 0    | 0    | 0    | 3    | 1    | 1    | 2    | 0    | 3    | 3    |

2016년까지 매년 1건, 2017년에 2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건의 연구가 출판되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평균 0건, 2018년에도 0건의 연구 출판 수가 분석되었다.

자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상담수련기간은 0개월부터 10년까지이며,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학위수준은 학부 4학년부터 박사수료까지로 분포되어 있다.

## 2) 연구 대상자의 전반적 특징

연구 대상자의 전반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대상자는 5명부터 15명까지이며, 여

## 3) 연구방법 및 결과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방법 및 결과의 분석은 표 6과 같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전반적 특징

| 연구자(연도)                | 인원  | 성별                | 상담수련기간  | 연령     | 학위수준    |
|------------------------|-----|-------------------|---------|--------|---------|
| 홍지영, 하정(2009)          | 10명 | 여자(9명),<br>남자(1명) | 4년-8년   | 29-41세 | 석사졸업-박사 |
| 이미정(2014)              | 5명  | 여자(4명),<br>남자(1명) | 3-7년    | 41-62세 | 석사졸업 이상 |
| 박영미 외(2014)            | 9명  | 여자(9명)            | 1-4년 이하 | 28-44세 | 석사제학 이상 |
| 조윤지, 이은진,<br>유성경(2014) | 7명  | 여자(7명)            | 평균 33개월 | 27-45세 | 석사졸업 이상 |

| 연구자(연도)           | 인원  | 성별                 | 상담수련기간                        | 연령      | 학위수준                |
|-------------------|-----|--------------------|-------------------------------|---------|---------------------|
| 이미정,<br>박승민(2015) | 9명  | 여자(7명),<br>남자(2명)  | 5-10년                         | 41-62세  | 석사졸업-박사수료           |
| 김정연,<br>박명희(2016) | 8명  | 여자(8명)             | 교육분석:24-200회<br>수퍼비전: 35-120회 | 20대-40대 | 석사졸업-박사수료           |
| 김태은(2017)         | 5명  | 여자(5명)             | 0개월                           | 35세-47세 | 학부4학년-대학원<br>4학기 재학 |
| 이상학,<br>서영석(2017) | 10명 | 남자(10명)            | 1-3년 10개월                     | 28-42세  | 석사재학-박사재학           |
| 김선훈,<br>한영주(2019) | 12명 | 여자(10명),<br>남자(2명) | 1개월-2년 미만                     | 27-51세  | 석사재학                |
| 이두희,<br>장유진(2019) | 9명  | 여자(5명),<br>남자(4명)  | 수련생 경험<br>1회-15회 이하           | 30-42세  | 석사재학<br>3학기-석사졸업    |
| 조은숙, 하정(2019)     | 15명 | 여자(11명),<br>남자(4명) | 5년 미만                         | 34-60세  | 석사수료-박사             |
| 김명자,<br>김지연(2020) | 8명  | 여자(8명)             | 1-3년                          | 40-57세  | 석사재학 2학기-4학기        |
| 김주빈,<br>김현주(2020) | 5명  | 여자(3명),<br>남자(2명)  | 3년 이하                         | 28-43세  | 대학원 재학              |
| 이희정,<br>박명희(2020) | 15명 | 여자(15명)            | 0-1년 6개월                      | 20대-50대 | 석사재학-박사재학           |

표 6.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방법 및 결과

| 연구자                                           | 연구방법         | 자료수집                   | 연구결과                                                                                                                                                                                                                                                          |
|-----------------------------------------------|--------------|------------------------|---------------------------------------------------------------------------------------------------------------------------------------------------------------------------------------------------------------------------------------------------------------|
| 홍지영,<br>하정<br>(2009)                          | 근거이론         | 심층면담<br>60-90분         | 집단 수퍼비전에서 수련생으로서 발표를 하면서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을 드러내놓고 배워나간다는 중심현상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을 꾀하고, 의식의 변모,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획득한다고 보고함.                                                                                                                                |
| 박영미,<br>엄정혜,<br>정신아,<br>최명식,<br>신혜린<br>(2014) | 합의적<br>질적 분석 | 심층면담2,<br>4, 9시간<br>진행 | 대학상담소 레지던트 수련의 경험을 통해 언제든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전감을 경험하면서 상담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 상승, 다양하고 심각한 사례를 맡게 되었음. 상담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각과 수용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함.                                                                                                        |
| 이미정<br>(2014)                                 | 현상학적<br>연구   | 심층면담                   |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서로의 다름과 상처를 통찰하고, 어린 시절 경험과 부부관계 연관성을 인식, 배우자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경험을 보고함. 전문가로서의 경험으로는 부부상담에 자신감이 늘어나고, 내담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공감 능력이 증진되며, 부부관계 경험을 부부상담에 활용하게 되고, 부부상담을 통해 자신과 부부관계를 성찰하고, 역전이를 자각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
| 조윤지,<br>이은진,<br>유성경<br>(2014)                 | 근거이론         | 심층면담                   | 수퍼비전 과정에서 수련생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기에 관계의 벽에 부딪혀 한 개인 및 상담자로서 혼돈에 빠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수퍼바이저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게 되었다는 경험을 보고함. 하지만 또 다른 관계를 통해 위로받는 경험을 하였고, 수퍼비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깨닫게 되며 자기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
| 이미정,<br>박승민<br>(2015)                         | 현상학적<br>연구   | 심층면담                   |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의 자기 발달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서 자기분화를 이루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계의 연결이 회복됨을 경험함. 또한 상담자의 개인적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천적 지식이 상담자로서의 유능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확장시켰다고 보고함.                                                                        |

| 연구자                   | 연구방법         | 자료수집                          | 연구결과                                                                                                                                                                                                                                                                                                                              |
|-----------------------|--------------|-------------------------------|-----------------------------------------------------------------------------------------------------------------------------------------------------------------------------------------------------------------------------------------------------------------------------------------------------------------------------------|
| 김정연,<br>박명희<br>(2016) | 근거이론         | 심층면담<br>2-3회 진행               | 상담수련생들이 교육분석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의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란스럽고 험겨운 경험들이 분석과정에서 분석가와와 새로운 관계경험을 통해 험겨움을 이겨내고, 전문상담자로서 성장해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함.                                                                                                                                                                                                             |
| 김태은<br>(2017)         | 현상학적<br>연구   | 심층면담                          | 초심 아동상담 수련생의 수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련을 통해 상담의 지식과 기술향상으로 임상실습, 그리고 일상에서 상담성고를 체험하게 되었고, 아동상담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었으며, 아동상담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상담자로서 자기인식과 성찰의 기회를 얻었으며, 자기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좌절과 의심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함.                                                                                                            |
| 이상화,<br>서영석<br>(2017) | 현상학적<br>연구   | 심층면담<br>1시간<br>30분-2시간<br>30분 |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과정에서는 진로 탐색 후, 자신의 성격 및 가치관에 부합하는 상담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상담대학원에 진학하여 환경에 적응해나가면서 남성 상담자로서의 이점과 주변의 선입견,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함. 하지만 초심상담자로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제자리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함.                                                                                                                                |
| 김선훈,<br>한영주<br>(2019) | 근거이론         | 심층면담<br>1-3회,<br>회당<br>50~90분 | 상담 현장실습생들의 집단 슈퍼비전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계속 버텨가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함.                                                                                                                                                                                    |
| 이두희,<br>장유진<br>(2019) | 합의적<br>질적 분석 | 심층면담                          | 수퍼바이저 피드백에 대한 상담 수련생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례개념화, 자기성장, 개입방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교정적이거나 대안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함. 하지만 실제 상담과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상담자의 아이디어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의 피드백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으며, 피드백의 수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수퍼바이저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보고함.                                                                           |
| 조은숙,<br>하정<br>(2019)  | 근거이론         | 심층면담                          |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개적으로 상담자가 드러나면서 속수무책인 경험을 했지만 관점과 인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함. 또한 수퍼비전의 과정을 통해서 자발성과 창조성이 소생됨을 경험하였고, 방향을 잡고 깊이를 더하며 나아가게 되었다고 보고함.                                                                                                                                                                 |
| 김명자,<br>김지연<br>(2020) | 합의적<br>질적 분석 | 심층면담<br>45-100분               | 초보상담자가 상담수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자 역량 부족, 상담사로서 내담자를 구하기 어려움, 상담자로서의 역량 부족,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적 어려움과 수퍼비전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함. 또한 학회 및 수련기관의 교육체계에 대한 아쉬움, 사회경제적 부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 등의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함.                                                                                                       |
| 김주빈,<br>김현주<br>(2020) | 현상학적<br>연구   | 심층면담<br>1-2회,<br>90~120분      | 초심 상담자의 수련과정에서 자발적 중도탈락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련과정에서의 자기분석의 고뇌와 충족되지 않는 자기 돌봄의 욕구 등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고충, 완전해야만 할 것 같은 '상담자'라는 이름은 자신으로 향하는 질책의 시선으로 이어져서 닿을 수 없음을 향한 끊임없는 지향을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함. '이상만을 좇을 수 없는 현실'로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적 제약은 냉엄하게 인식되었고, 수련과정의 여러 활동에서 잠시 멈추어진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별이 될 줄 몰랐던 멈춤'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함. |
| 이희정,<br>박명희<br>(2020) | 근거이론         | 심층면담                          | 교육분석의 경험을 통한 변화의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과 신체화'와 '변화 기대와 현실 불일치로 조급함'의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교육 분석의 경험을 통해 궁극해하는 단계, 부딪히는 단계, 곁도는 단계, 몰입하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서 상담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교육 분석가의 수용과 전문적 자질, 가족, 친구, 동료의 지지로 인해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개인 및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함.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학술지에 출판된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총 14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4편의 논문은 모두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합의적 질적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각 연구들의 연구결과의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상담자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분화를 이루어가게 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고, 관계의 연결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으며(이미정 외, 2015),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현재 부부관계의 연관성을 인식한 후에 배우자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경험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이미정, 2014).

둘째, 상담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수련생으로서 수련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수퍼비전을 받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한계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계속 버텨가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성장을 경험하고 상담자로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경험을 보고하였다(김선훈, 한영주, 2019; 김태은, 2017; 조은숙, 하정, 2019; 홍지영, 하정, 2009).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함(김태은, 2017; 박영미, 엄정혜, 정신아, 최명식, 신혜린, 2014; 이미정, 2014; 이미정 외, 2015, 이상학, 서영석, 2017)에 따라 심각한 사례들을 맡게 되기도 하고(박영미 외, 2014), 상담과정에서 자발성과 창조성이 소생되었다는 경험을 보고하였다(조은숙 외, 2019).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퍼비전 과정을 통해 실제 상담의 사례개념화, 자기성장, 개입방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교정적이거나 대안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을 보고하였다(이두희, 장유진, 2019).

셋째, 개인적인 영역과 상담전문가로서 전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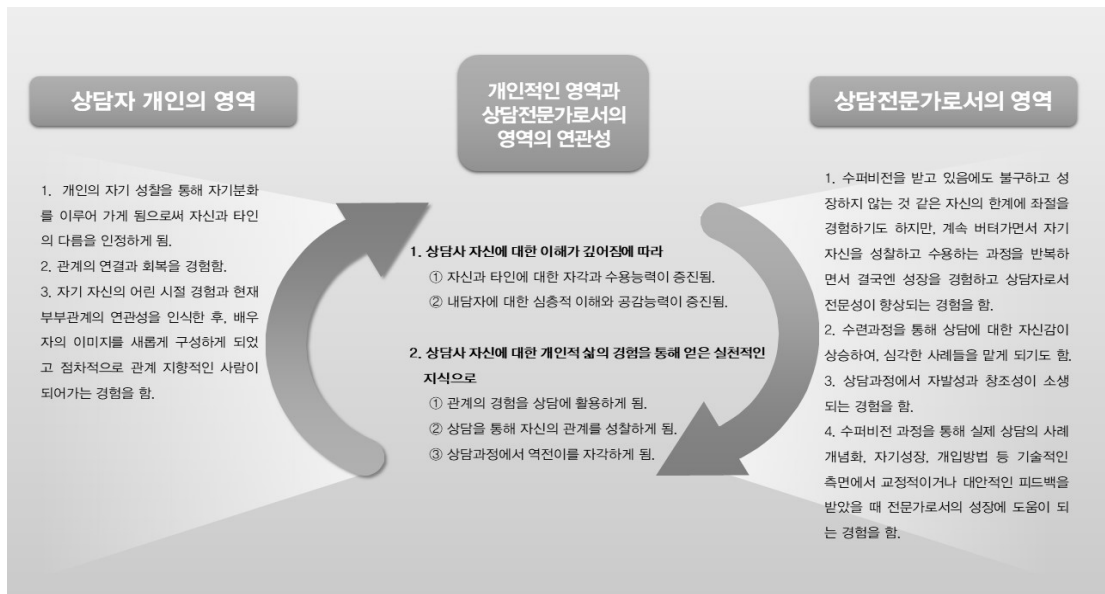


그림 1. 상담자 개인적인 영역, 상담전문가로서의 영역, 개인적인 영역과 상담전문가로서의 영역의 연관성

영역의 연관성을 경험한 내용으로는 상담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각과 수용능력, 내담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공감능력이 증진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박영미 외, 2014; 이미정, 2014; 이미정 외, 2015). 또한 상담사 자신에 대한 개인적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천적인 지식으로 관계의 경험을 상담에 활용하게 되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관계를 성찰하고, 역전이를 자각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홍지영 외, 2009; 이두희 외, 2019; 이미정, 2014).

상담자 개인적인 영역과 상담전문가로서의 영역, 개인적인 영역과 상담전문가로서의 영역의 연관성을 경험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그림 1과 같다.

넷째, 위와 같이 상담수련과정에서 개인적인 영역과 상담전문가로서 전문가적 영역에서 상담자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과정에서 수련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련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슈퍼바이저와 관계에서 벽

에 부딪히거나, 슈퍼바이저의 비난하는 태도로 인해 피드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후에 상담자로서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조운지, 이은진, 유성경, 2014), 자기 분석을 통한 변화의 과정에서 상담사로서 인격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 고충, 혼란스러움과 힘겨운 경험들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김정연, 박명희, 2016). 실제 상담과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슈퍼비전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피드백 등을 받을 때, 수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경험도 보고하였다(이두희 외, 2019). 또한 초심 상담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습자 역량 부족과 내담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상담자로서의 역량 부족, 변화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조급함, 학회 및 수련기관의 교육체계에 대한 아쉬움, 사회경제적 부담, 자격증취득에 대한 부담과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적 제약으로 진로에 대한 불안감 등의 경험을 연구결과로 보고하였다(김명자, 김지연, 2020; 김주빈, 김현주, 2020; 이희정, 박명희, 2020). 남성 상담사의 경우



그림 2.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 분석

여성이 많은 분야에 남성 상담사로서 주변의 선입견과 성역할의 갈등 등을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이상학 외, 2017).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슈퍼비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깨닫게 되며 자기성찰을 하게 되었다는 결과(조운지 외, 2014)와 성장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힘겨운 경험들을 이겨내고 상담전문가로 성장해감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보고하였다(김정연 외, 2016).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결과 중 상담수련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모두를 경험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수련생들이 상담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수련경험에서의 의의를 찾아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담전문가로서의 유능성과 내담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수용과 공감 능력이 증진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그림 2와 같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수련과정에 관한 논문 14편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담수련과정이 상담자의 전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성장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수련과정에서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수용과 공감능력이 증진되고, 상담자 개인적인 부부관계까지 연결되어 배우자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점차적으로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관계경험과 성장의 경험은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와의 관계에 활용되기도 하고, 내담자와 역전을 자각하게 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상담자의 자기효

능감은 부부관계 및 가족의 심리적 건강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가족상담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의 부부관계 및 가족의 심리적 건강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김수지, 정문자, 2010)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가족치료훈련의 개인적 효과에 관한 연구(Paul et al., 2011)에 따르면 수련생들은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의식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영역과 전문적인 영역 모두에 적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상담자로서의 성장과정에서 개인적인 영역과 전문적인 영역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수련과정에서 상담자의 개인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과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 상담수련과정에서의 수련생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상담수련과정이 수련생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수련을 통해 상담자 자신의 자기분화 수준이 깊어지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증진되었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증진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상담수련과정이 상담자의 개인적인 영역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홍영식, 한재희,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상담수련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인격적인 측면의 태도와 관련하여 수련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슈퍼비전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거나 공격적으로 말과 질책을 들었던 경험(김명자 외, 2020; 이두희 외, 2019; 조운지 외, 2014), 성의가 없었다고 느꼈던 경험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슈퍼바이저가 수련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경우 슈퍼비전 과정을 힘들어 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홍영식, 한재희,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련과정에서 슈퍼바이저와 수련생 간의 진솔한 관계, 충분히 좋은 슈퍼비전 관계를 맺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수련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슈퍼바이저들의 관점의 차이로 인한 혼란, 구체적인 기법 교육 부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피드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였는데 부정적인 경험 이후,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숙고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부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것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상담사 수련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슈퍼비전에서 윤리가 강조되는데(강이영, 금명자, 조민희, 2018), 수련생과 슈퍼바이저의 사이에는 권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수련생은 슈퍼바이저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이 내담자에게까지 끼칠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의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초심수련생의 경우 수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중도탈락하게 되는 경험들도 보고하고 있다(김명자 외, 2020; 김주빈 외, 2020; 이희정 외, 2020). 이는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수련 과정에 참여했지만 진로에 대한 불안감, 상담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의 어려움,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련과정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빈 외, 2020). 대기업 및 학교, 공공기관에 고용된 상담사는 소수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는 어려우며, 직장을 얻었다고 해도 계약직이거나 급여가 박봉인 경우가 많다는 인식은 수련생들이 상담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복지가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담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수련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수련과정이 상호역동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련생들의 입장에서만 검토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슈퍼바이저가 경험한 상담수련생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며, 슈퍼바이저가 경험한 수련생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연구가 2014년에 최초로 발표되었다(이소연, 최바울, 이정선, 서영석, 2014). 수련과정의 질적인 향상과 계속적인 수련생의 성장을 위해서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경험한 수련과정의 경험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김명자, 김지연 (2020). 초보상담자가 상담수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9), 325-353.
- 김선훈, 한영주 (2019). 상담 현장실습생들의 집단 슈퍼비전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20(3), 243-264.
- 김수지, 정문자 (2010). 가족상담자의 상담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1(3), 1289-1303.
- 김정연, 박명희 (2016).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들의 교육분석 경험에 대한 변화과정. **상담학연구**, 17(4), 71-93.
- 김주빈, 김현주 (2020). 초심상담자의 수련과정 자발적 중도탈락 경험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하여. **질적탐구**, 6(3), 269-304.
- 김태은 (2017). 초심수련생의 아동중심상담 수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

- 지, 38(5), 81-94.
- 박영미, 엄정혜, 정신아, 최명식, 신혜린 (2014). 대 학상담소 레지던트 상담자의 수련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간이해**, 35(1), 107-128.
- 이두희, 장유진 (2019). 슈퍼바이저 피드백에 대한 상담 수련생의 인식과 경험. **상담학연구**, 20(3), 217-242.
- 이미정 (2014). **상담수련과정에서 기독교인 상담사의 자기 발달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 (2014).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81-99.
- 이미정, 박승민 (2015).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의 자기 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6(1), 1-29.
- 이상학, 서영석 (2017).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985-1026.
- 이소연, 최바울, 이정선, 서영석 (2014). 슈퍼바이저가 경험한 상담수련생의 전문적 역량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45-270.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 이희정, 박명희 (2020). 초심 상담수련생의 교육분석 경험을 통한 변화과정: 첫 내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87-113.
- 조윤지, 이은진, 유성경 (2014). 상담심리치료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41-877.
- 조은숙, 하정 (2019).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49-76.
- 진보겸, 금명자, 주은선 (2019). 실제관계(Real Relationship)에 관한상담전문가의 인식과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373-401.
- 최지원, 김수지 (2018). 한국 가족치료의 현황과 실제에 관한 연구: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학회지**, 26(4), 709-728.
- 홍영식, 한재희 (2012). 상담 슈퍼비전에서 상담자의 자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387-1406.
- 홍지영, 하정 (2009).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로서의 경험. **상담학연구**, 10(3), 1427-1451.
- Rhodes, P., Nge, C., Wallis, A., & Hunt, C. (2011). Learning and living systemic: Exploring the personal effects of family therapy training.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3(4), 335-347.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1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4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7일

##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trainees' experiences in the counseling training process

Lee, Ji Young

Kim, Hyeon Jun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upl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trainees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the experiences of trainees in the counseling training process and to present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a more effective counseling training process. Among the papers since the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s regist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family counseling began in 2008, 14 domestic academic papers on the counseling training process from 2009 to 2020 were selected as analysis target papers. 0-3 studies on the experience of counseling trainees were published annually, and the selected papers were analyzed as phenomenological studies, evidence theory, and research methods for consensus qualitative analysis. Participants in the study have degrees from undergraduate to doctoral degrees related to counseling in Korea, and are in their 20s to 60s, and counselors who have experienced counseling training cours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unseling training process is an effective process to support growth in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areas of counselors, and that they are experiencing the process of growth despite negative experiences.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training courses that support the growth of counselors and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Key words:* Counselor training course, Supervision, Trainee experience, Supervisee experience

# 성인기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정 미 영\*      하 영 윤\*\*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본 연구는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 경험회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성인 6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11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그 하위요인들(경험하기, 행동하기) 각각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과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은 정적 상관,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와는 부적 상관, 경험회피와 외상 후 성장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하위요인 중 경험하기는 부분매개효과가, 다른 하위요인인 행동하기는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상 후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치료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고통 감내력, 경험회피, 외상 후 성장

\* 제1저자: 정미영,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부부가족상담대학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하영윤,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부부가족상담대학원 연구지도교수,

E-mail: youngyoon@daybreak.edu, Homepage: www.daybreak.edu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2020)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는 인원은 2015년 7,268명에서 2019년 10,570명으로 45.4% 증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2021)가 발간한 재난 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국내 대형 재난 사고는 101건, 자연 재난은 11건이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를 포함해 1,182명으로, 이는 한국에서 평균 6개월마다 10명 이상이 재난 피해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 속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일상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들은 그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경미한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불안정한 정서와 심적 고통을 크게 느끼기도 하며 심할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으로 부정적 심리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외상사건이다(Tedeschi & Calhoun, 2004; 박소윤, 2015에서 재인용). 외상(truma)이란 사전적 의미는 '몸의 곁에 생긴 상처를 통틀어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2021)'을 의미하나, 심리학적으로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입은 심리적 상처를 의미한다(권석만, 2013).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들을 마주한다.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오기도 하지만 빨리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반면에, 어떤 사건들은 너무 충격적이면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마음에 고통과 혼란을 주며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박소윤,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상의 정의를 DSM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서 바라보는 정의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에서 보는 정의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먼저, DSM-5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근거에 따르면, 외상 사건이란 신체적 상해, 성폭력, 죽음의 위협, 죽음 또는 죽음과 같이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사건들(예: 교통사고, 화재, 폭행, 자연재해 등)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외상 후 성장 이론에서 바라보는 외상은 DSM-5에서 설명하는 외상보다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넓으며 다양하다(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Tedeschi와 Calhoun(1995)은 외상을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며,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세상을 이해하는 도식에 도전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의미한다. 즉 외상 후 성장의 외상 사건은 자연 재해, 화재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질병, 신체적·정신적 학대, 이혼, 이별 등 주관적으로 '인생의 위기'라 지각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포함하게 된다(송승훈, 2007). 또한, Herman(1992)는 사건 자체와 함께 외상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외상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연구자는 외상사건 자체보다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하기도 하였다.(Micale, Lerner, 2001)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 수준이 삶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경우,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가와 관련 없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지은혜, 조용래,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상이란 개인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 충격적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심리적 상처로 정의하여 외상사건 자체보다 외상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였는지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외상사건은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며, 지각하는 고통 수준이 삶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충격적인 경우에

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전철은, 현명호, 2003; 지은혜, 조용래, 2009). 이를테면, 개인의 심리적인 고통이 극대화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므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되기도 한다(송현, 2011). 그러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하기도 한다(Linley & Joseph, 2004; Park & Helgeson, 2006). 개인이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은 고통 및 성장에 개인차가 있으며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 고통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한노을, 2008). 예를 들어, 중요한 관계 상실, 단절,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 등 외상경험은 삶의 단편적인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실 경험 전보다 삶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Jonoff-Bulman, 1992).

외상 사건 후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단순히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최승미, 2008에서 재인용). 또한 외상 후 성장은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결과이며 의미 있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Tedeschi & Calhoun, 2004), 긍정적인 변화에는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탄력성의 증가, 삶의 질 향상,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도전정신 증가 등이 있다(Meyerson et al., 2011; 박모란, 201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영향을 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며 개인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겪은 뒤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에 '외상 후 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는 사건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을 성장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스트레스 사건 자체는 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반면, 개인의 적응력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Billings & Moow, 1981), 외상 사건을 경험하기 전 가지고 있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변인 및 고통의 인내가 대처과정과 외상 후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사건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박모란, 2013). 또한 외상 경험은 다른 외상 경험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과 유지, 예방 및 완화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김에스터, 2015). 이렇듯 개인의 특성과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개인의 전략들은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외상 후 성장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외상 상황에 대한 적응적 대처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의 특징으로는 자가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및 삶에 관한 철학의 변화가 있다(Tedeschi & Calhoun, 1998).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은 자가지각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외상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강점과 잠재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통제감이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Tedeschi & Calhoun, 1996; 최중현, 2015에서 재인용). 즉, 자기 지각의 변화로 인하여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신선영, 2009). 외상 후 성장의 결과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자기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며(박소윤, 2015), 이러한 자기 지각의 변화로 인하여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극복했으니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Aldwin, Levenson, & Spiro, 1994). 또한 외상 후 성장은 대인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친밀감, 신뢰, 이타심의 증가, 자기 노출의 증가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외상 사건에 대해 자신만의 이해가 생기며,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위로와 정서적 공감,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즉, 대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및 교류가 늘어나며 좀 더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다(Tedeschi & Calhoun, 2004; 최종현, 2015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외상 후 성장은 삶에 관한 철학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고통, 죽음과 같은 실존적, 영적 물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Yalom & Liberman, 1991).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는 삶에 대하여 큰 감사와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박소윤, 2015에서 재인용). 외상 사건 이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하던 삶 속에서 죽음, 이별, 고통 등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실존적, 종교적, 영적으로 생각하게 된다(Tedeschi & Calhoun, 1996). 즉, 외상 사건으로 인한 고통스런 경험은 삶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인간의 유한성, 실존적 문제에 대하여 내면적으로 하여금 폭 넓은 관점과 깨달음을 가지게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보람(2012)은 소방대원, 암환자, 성폭력피해자, 북한 이탈주민, 입양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 후에 의미 있는 성장이 나타남을 보고 하였고, 김희정(2008)의 연구에서는 종교, 외향성, 개방성, 자기존중감 등이 외상 후 성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윤명숙, 김남희(2013)는 이혼,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성장 연구에서 성별, 삶의 의미, 자아탄력성 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개인적 변인들 중 하나로 고통 감내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Anestis et al., 2007; Nock & Mendlers, 2008; Hawkins et al., 2013). 고통 감내력이란 부정 정서를 조절하여 자신이 목표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고통스러운 내적 경험을 견디내는 개인의 지각된 능력을 말한다(Simons & Gaher, 2005). 고통 감내력은 어떤 순간에 경험하는 특정한 정서가 이끌어 가는대로 행동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가치에 맞게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반응선택능력'이다(Hayes, et al., 1999). 고통 감내력은 부정적인 내적 정서 및 고통을 조절하여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안계훈, 20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통 감내력이 높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정지현, 2013).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높으면 사회적 수행불안 및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추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하연, 2012).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통 감내력이란, 인지·행동적 요인으로 부정 정서를 견디고 정서를 조절하여 자신이 목표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고통 감내력은 상담, 연구, 임상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고통 감내력이 정신건강 및 다양한 정신병리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Linehan, 1993; 정지현, 2013; 박영례, 2016에서 재인용), 임상연구에서는 고통 감내력이 범진단적 적용 가능성을 지닌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 권희주, 2014에서 재인용).

외상 후 성장과 고통 감내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Mathew 등(2014)은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간에 개념 연관이 존재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와 고통 감내력 간에 부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즉 고통 감내력이 낮으면 외상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에 반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키며,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박모란(2013)은 그의 연구에서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빠르게 해결하고 고통에 대한 감내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였다. 이렇듯 고통 감내력과 외상 스트레스를 연결시킨 선행연구들에서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변인임이 시사되고 있지만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경험회피가 부각되고 있다. 경험회피는 특정한 사적 경험(사고, 기억, 정서, 신체적 감각, 행동 경향성)의 형태, 빈도, 맥락을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한아름, 2016에서 재인용). 경험회피의 개념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는 불쾌한 경험과 접촉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이며, 둘째는 불쾌한 경험이나 사건을 바꾸고자 행동하는 것이다. 즉 경험회피의 첫째 개념이 회피적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둘째 개념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회피는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원하지 않는 개인적 경험들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과 이러한 경험을 거부하며 접촉하지 않으려는 태도, 부정적 경험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

이때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통제하려고 할수록

통제하려는 생각 및 감정, 신체반응은 오히려 통제되지 않거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회피는 부정응적 현상을 보인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따라서 과도한 경험회피는 다양한 부정응적 증상을 보이며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피슬빛, 2016). 이러한 맥락에서 경험회피는 흡연, 불안, 우울, 물질사용,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 및 심리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경험으로부터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대처방식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경험회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험회피는 다양한 정신장애와 정적인 관련이 있고 안녕감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shdan & Breen, 2007). 경험회피는 감정을 무시, 억누르려하는 것이 연관된 생각을 촉진시켜 우울과 같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Gross & Levenson, 1997; Wenzlaff & Luxton, 2003; Wenzlaff & Wegner, 2000).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경험회피 수준이 높았고, 이를 매개로 강박신념이 증가됨을 밝혔다(Briggs & Price, 2009). 추상엽, 임성문(2010)의 연구에 의하면, 경험회피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직접 매개하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훈진(2009)의 연구 결과에서 경험회피는 지각된 신체 건강, 안녕감,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허연주, 이민규(2015)의 연구에서는 경험회피가 생활스트레스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역제의 역효과, 회피를 작용하여 생각, 감정, 신체반응을 오히려 증가시켜 우울과 신체화 증상을 포함하는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경험회피는 우울, 불안, 섭식장애와 같은 정신병리, 사회불

안, 심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등과 폭넓게 연구되어 왔고, 이를 통해 개인이 보이는 적응적인 행동 결과들과 부적인 관계성이 있음이 시사되어 왔다.

경험회피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경험 회피 성향이 높고 외상의 심각도가 높을 때 외상 후 성장은 낮게 지각하고, 경험 회피 성향이 낮고 외상 심각도가 높을 때 외상 후 성장이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ashdan & Kane, 2011). 이렇듯 경험회피와 외상 후 성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어 경험회피가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모란, 2013).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 고통 감내력은 경험회피와 관련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통 감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경험회피를 더 많이 하였고(박영례, 2016; 안계훈, 2014), Williams(2012)은 낮은 고통 감내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높은 경험회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Inversion et al., 2012; Mullance,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험회피(오영아, 2009; Lee et al., 2010; Buhr, Dugas, 2002; Santanello, Gardner, 2006)와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 간의 부적 상관을 입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 경험회피와 외상 후 성장, 그리고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 간의 이론적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 변인의 관계적 방향성을 살펴보고, 변인 간 구조를 밝힌 연구는 드물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연구로는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 및 경험회피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문하은, 2015)와 특정한 직업과 신분을 가진 대상으로 변인 특성을 살펴본 연구(임미라, 2017)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 경험회피 변인들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세 변인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를 통한 이론적 추론을 바탕으로 성인기의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 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성인기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외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개인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외상 경험을 극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있어서 필요한 적응 기제를 강화하고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성인기의 고통 감내력, 경험회피, 외상 후 성장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성인기의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경험회피가 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교, 회사의 홍보 및 지인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설문지 수행과 온라인 설문지 수행을 통해 2018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지필 설문지 500부를 수집하였고, 온라인 설문지 177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66부를 제외한 611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비율은 남성이 244명(39.9%), 여성이 367명(60.1%), 연령

대는 20대 165명(27%), 30대 123명(20.1%), 40대 183명(30%), 50대이상 140명(22.9%)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경험한 외상경험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86명(14.1%), 사고 및 상해는 57명(9.3%), 재정적 어려움 57명(9.3%), 배신 충격 55명(9%),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54명(8.8%), 학업 과업문제 52명(8.5%)순으로 나타났다.

## 측정 도구

### 외상 경험 질문지

연구 참가자들이 경험한 외상 사건의 종류, 발생 시기, 외상경험에 대한 주관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2007)이 사용하고 신성영(2009)이 보완한 외상경험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5문항으로 16가지 주요 외상 사건 목록에서 본인이 경험한 외상 사건을 모두 표시한 뒤, 이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사건을 외상 사건으로 정의하고,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외상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와 최근에 그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에 대하여 7점 척도(1:전혀 고통스럽지않다~7:매우 고통스럽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고통 감내력 척도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Simons와 Gaher(2005)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박성아(2010)가 번안 및 타당화한 고통 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DTS)를 사용하였다. 조절, 감내력과 몰두, 평가, 3가지 하위요인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을 견디내는 능력, 즉 고통 감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아(2010) 연구에서 DTS의 신뢰도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 경험회피 척도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Hayes, Strosahl과 Wilson 등(2004)이 제작한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16: AAQ-16)를 사용하였고,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회피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 생각,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기' 7문항, '원치 않는 내적 사건에 직면했을지라도 행동하기' 9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하는 경향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경험회피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현미(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2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4이다.

### 외상 후 성장 척도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데 있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2007)이 수정, 보완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성장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자기지각의 변화 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5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2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2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외상 경험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다중 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 외상 후 성장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고통내력과 경험회피, 외상 후 성장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경험하기, 행동하기) 각각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회의 단순 회귀분석과 1회의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 이하 VIF)을 산출하여 10을 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에 이용한 고통 감내력, 경험적 회피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경험하기, 행동하기), 외상 후 성

장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범위, 실제 점수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고통감내력( $M = 3.32$ ,  $SD = .56$ )은 응답범위를 기준으로 중간 정도였다. 경험적 회피( $M = 3.80$ ,  $SD = .62$ ), 외상 후 성장 ( $M = 3.09$ ,  $SD = .87$ ) 또한 중간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분포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pm 2$ , 첨도가  $\pm 7$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통 감내력, 외상 후 성장, 경험회피 간의 상관관계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 외상 후 성장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고통 감내력의 경우 외상 후 성장( $r=.17$ ,  $p<.001$ )과의 정적 상관이, 경험회피( $r=-.57$ ,  $p<.001$ ), 와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경험회피는 고통 감내력( $r=-.57$ ,  $p<.001$ ), 외상 후 성장( $r=-.26$ ,  $p<.001$ )과의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성장은 고통 감내력( $r=.17$ ,  $p<.001$ )과의 정적 상관이, 경험회피( $r=.26$ ,  $p<.001$ )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표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N=611$ )

|            | 1       | 2       | 3 |
|------------|---------|---------|---|
| 1. 고통 감내력  | 1       |         |   |
| 2. 경험회피    | -.57*** | 1       |   |
| 3. 외상 후 성장 | .17***  | -.26*** | 1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절차로, 우선 1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매개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영향을 동시에 확인한다. 이때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beta$ 의 절대값)에 비해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beta$ 의 절대값)가 감소하여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부분매개함을,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고통 감내력이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분석으로는 고통 감내력에서 경험회피로 가는 경로(a)와 경험회피가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인 매개(간접)효과(ab)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Hayes(2012)의 PROCESS(Version 2.11) 매크로(모델 4)를 통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전체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1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이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7.84$ ,  $p<.001$ ),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고통 감내력의 설명량은 2.8%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7$ ,  $p<.001$ ). 즉, 고통 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이 매개변인인 전체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98.97$ ,  $p<.001$ ), 전체 경험회피에 대한 고통 감내력의 설명량은 32.9%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통 감내력이 전체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57$ ,  $p<.001$ ). 즉, 고통 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경험회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과 매개변인인 전체 경험회피가 동시에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2.81$ ,  $p<.001$ ),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의 설명량은 7.8%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체 경험회피는 부적으로( $\beta=-.25$ ,  $p<.001$ )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때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전반적인 경험회피가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전체 경험회피 및 외상 후 성장의 중다회귀분석

(N = 611)

| 단계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B    | SE  | $\beta$ | t         | R <sup>2</sup> | F         |
|----|--------|---------|------|-----|---------|-----------|----------------|-----------|
| 1  | 고통 감내력 | 외상 후 성장 | .26  | .06 | .17     | 4.22***   | .028           | 17.84***  |
| 2  | 고통 감내력 | 경험회피    | -.64 | .04 | -.57    | -17.29*** | .329           | 298.97*** |
| 3  | 경험회피   | 외상 후 성장 | -.35 | .07 | -.25    | -5.20***  | .070           | 22.81***  |
|    | 고통 감내력 |         | .04  | .07 | .03     | .5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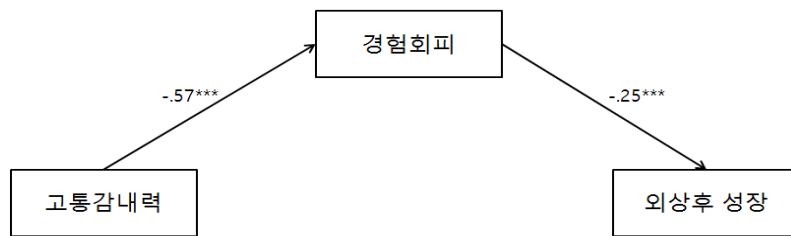
주. \*\*\* $p < .001$ .

그림1.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주. \*\*\* $p < .001$ .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또한 1단계에서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17에서 3단계에서 .03으로 그 절대값이 감소함과 동시에 3단계에서의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통해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경험회피가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고통 감내력이 전체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전체 경험회피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지만, 매개효과 자체의 유의

성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고통 감내력이 전체 경험회피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222$ , 95% Biased CI = .129 ~ .328). 즉, 고통 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경험회피가 낮아지게 되어서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전체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트스트래핑 결과

| 경로                       | B    | SE   | 95% 신뢰구간<br>(95% Biased-corrected CI) |      |
|--------------------------|------|------|---------------------------------------|------|
|                          |      |      | 하한                                    | 상한   |
| 고통 감내력 → 경험 회피 → 외상 후 성장 | .222 | .051 | .129                                  | .328 |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

##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하기의 매개효과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경험하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2와 같다.

우선 1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이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7.84$ ,  $p<.001$ ),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고통 감내력의 설명량은 2.8%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7$ ,  $p<.001$ ). 즉, 고통 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이 매개변인인 경험회피의 하

위요인인 경험하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38.37$ ,  $p<.001$ ), 경험하기에 대한 고통 감내력의 설명량은 28.1%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통 감내력이 경험하기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53$ ,  $p<.001$ ). 즉, 고통 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회피에 있어서 경험하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과 매개변인인 경험하기가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03$ ,  $p<.001$ ),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고통 감내력과 경험하기의 설명량은 4.1%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통 감내력( $\beta=.10$ ,  $p<.05$ )는 정적으로, 경험하기( $\beta=-.13$ ,  $p<.01$ )는 부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하기가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표 4. 고통 감내력, 경험하기 및 외상 후 성장의 중다회귀분석

(N = 611)

| 단계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B    | SE  | $\beta$ | t        | $R^2$ | F         |
|----|--------|-------|------|-----|---------|----------|-------|-----------|
| 1  | 고통 감내력 | 외상후성장 | .26  | .06 | .17     | 4.22***  | .028  | 17.84***  |
| 2  | 고통 감내력 | 경험하기  | -.84 | .06 | -.53    | 15.44*** | .281  | 238.37*** |
| 3  | 경험하기   | 외상후성장 | -.13 | .05 | -.13    | -2.83**  | .041  | 13.03***  |
|    | 고통 감내력 |       | .15  | .07 | .10     | 2.10*    |       |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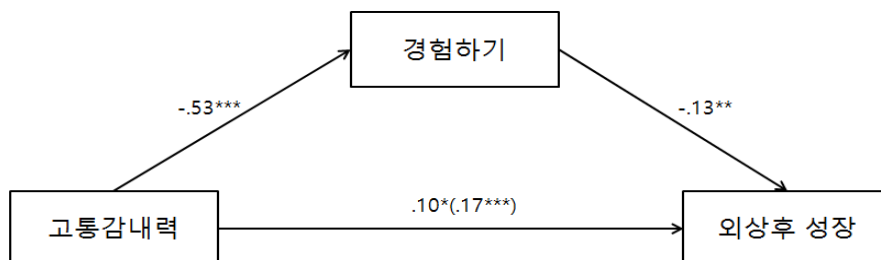


그림 2. 경험하기의 매개효과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괄호 안은 1단계의 회귀계수임.

표 5. 경험하기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트스트래핑 결과

| 경로                      | <i>B</i> | <i>SE</i> | 95% 신뢰구간<br>(95% Biased-corrected CI) |      |
|-------------------------|----------|-----------|---------------------------------------|------|
|                         |          |           | 하한                                    | 상한   |
| 고통 감내력 → 경험하기 → 외상 후 성장 | .110     | .043      | .028                                  | .196 |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17에서 3단계에서 .10으로 그 절대값이 감소함과 동시에 3단계에서의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통해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경험하기가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고통 감내력이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경험하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동시에 경험하기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지만, 매개효과 자체의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고통 감내력이 경험회피의 하위요인 중 경험하기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110$ , 95% Biased CI=.028~.196). 즉,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회피의 경험하기가 낮아지게 되어서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행동하기의 매개효과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행동하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3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이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7.84$ ,  $p<.001$ ),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고통 감내력의 설명량은 2.8%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7$ ,  $p<.001$ ). 즉, 고통 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이 매개변인인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행동하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49.76$ ,  $p<.001$ ), 행동하기에 대한 고통 감내력의 설명량은 19.7%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통 감내력이 행동하기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44$ ,  $p<.001$ ). 즉, 고통 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회피에 있어서 행동하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고통 감내력과 매개변인인 행동하기가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5.05$ ,  $p<.001$ ),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고통 감내력과 행동하기의 설명량은 7.6%로 나타났다.더불어 행동하기는 부적으로( $\beta=-.24$ ,  $p<.001$ )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때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았다. 즉, 행동하기 수준이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통 감내력, 행동하기 및 외상 후 성장의 중다회귀분석

(N = 611)

| 단계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B    | SE  | $\beta$ | t        | R <sup>2</sup> | F         |
|----|--------|---------|------|-----|---------|----------|----------------|-----------|
| 1  | 고통 감내력 | 외상 후 성장 | .26  | .06 | .17     | 4.22***  | .028           | 17.84***  |
| 2  | 고통 감내력 | 행동하기    | -.48 | .04 | -.44    | 12.24*** | .197           | 149.76*** |
| 3  | 행동하기   | 외상 후 성장 | -.35 | .06 | -.24    | -5.60*** | .076           | 25.05***  |
|    | 고통 감내력 |         | .09  | .07 | .06     | 1.3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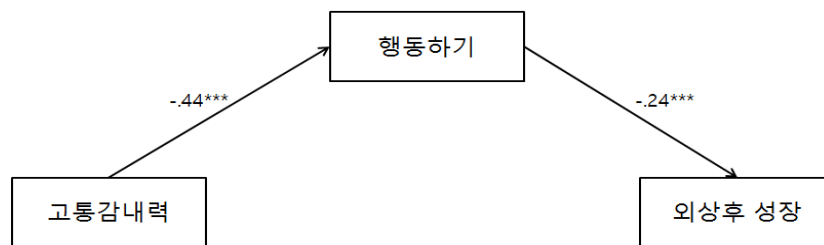
주. \*\*\* $p < .001$ .

그림 3. 행동하기의 매개효과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또한 1단계에서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17에서 3단계에서 .06으로 그 절대값이 감소함과 동시에 3단계에서의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통해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행동하기가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고통 감내력이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행동하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동시에 행동하기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지만,

매개효과 자체의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고통 감내력이 경험회피의 하위요인 중 행동하기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169$ , 95% Biased CI .101~.245). 즉, 고통 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회피의 행동하기가 낮아지게 되어서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행동하기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트스트래핑 결과

| 경로                      | B    | SE   | 95% 신뢰구간<br>(95% Biased-corrected CI) |      |
|-------------------------|------|------|---------------------------------------|------|
|                         |      |      | 하한                                    | 상한   |
| 고통 감내력 → 행동하기 → 외상 후 성장 | .169 | .037 | .101                                  | .245 |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 논 의

본 연구는 성인기의 고통 감내력, 외상 후 성장, 경험회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통 감내력, 외상 후 성장, 경험회피의 세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고통 감내력이 높은 사람이 외상 후 성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사건 경험에 대해 지각한 위협과 위협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지각 정도도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Park, Cohenm,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2004)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외상에 지각된 위협의 정도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지각 정도도 크다고 보고한 연구(윤명숙, 박은아, 2011; 전보람, 2012)와 일치한다. 고통 감내력 중 부정 정서를 완화하는 정서 조절력이 높은 경우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게 보고한 선행연구(Banik & Gajdošová, 2014) 및 정서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Manne et al., 2004)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고통 감내력이 낮은 사람은 고통의 경험에 민감성이 높으며, 부정적 정서를 이겨내기 어렵기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부적응반응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연구(Hawkins et al., 2013)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외상 사건 경험이 고통을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로 대처하는 내담자들에게 고통 감내력 증진을 위한 개입을 한다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데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고통 감내력이 클수록 경험회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를 감내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수록 경험회피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과 경험회피와 정적 상관으로 보고한 연구(안계훈, 2014; 한아름, 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를 덜 한다는 선행연구(정지현, 권석만, 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더불어 낮은 고통 감내력이 회피적 대처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Leyro 등(2010)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불안 민감성이 높을수록 경험회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안혜진, 2017)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고통 감내력이 높으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나 감정의 회피적 대처를 덜 할 수 있으며,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견디는 능력이 작을수록 부정적 정서강도를 높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Simons & Gaher, 2005; 박성아, 2010)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건, 사고, 감정들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회피의 선택을 낮추고, 고통 감내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험회피와 외상 후 성장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경험회피가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회피 성향이 낮고, 주관적인 외상의 심각도가 높다고 지각한 대학생들의 외상 후 성장이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Kashdan & Kane, 2011)와 일치한다. 외상 후 부정적 인지 수준이 낮은 경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박지은, 2014)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낮은 수준의 경험회피를 보고한 외상 사건 경험자가 외상 후 성장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박모란, 2013)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상담 장면

에서 원치 않는 사건이나 경험에 직면한 내담자에게 경험회피를 낮추는 개입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상경험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성인에게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 왜곡시키기보다는 개인의 삶의 위기 후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방면의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외상 후 성장을 조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는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고통 감내력이 외상 후 성장에 대해 가지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고통 감내력이 경험회피를 통해서만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보이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을 일으키는 경험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려는 태도와 행위적 노력이 함께하는 고통 인내가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고통 감내력만으로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경험회피를 통해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경험회피를 하지 않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예측한 선행연구(임미라, 2017)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회피가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 형성이 힘들고,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회피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송현, 이영순, 2011)와도 비슷한 맥락에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 경험하는 것이 외상 후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변화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다수의 선행연구(Garnefski et al., 2008; Hayes et al., 2006; Shearing, Lee, & Clohessy, 2011)를 통해서

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외상 후 성장을 위한 경험회피 개입 방법으로 수용-전념 치료를 사용하여 외상 후 성장의 치료 효과를 얻은 연구결과(고아름, 2012)와 함께 고려할 때 상담 장면에서 고통 감내력이 낮은 내담자에게 수용-전념치료로 경험회피를 예방하여 외상 후 성장을 조력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경험하기는 부분매개를 나타냈고, 행동하기 부분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외상 경험들을 회피하지 않고 원치 않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Hayes 등, 1996)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많은 연구가 지지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인 회피를 넘어선 행동적인 회피 기제를 다루어주는 것이 외상 후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보다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경험회피라는 역기능인 대처전략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와 기꺼이 행동하기를 선택하게 도움으로써 외상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대인외상으로 힘들어하는 성인에게 마음 챙김과 같은 자각과 알아차림이 강조되는 치료적 개입이나 인지-행동적 요소가 포함된 개입을 함으로써 경험회피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통 감내력, 외상 후 성장, 경험회피의 세 변인 간 연구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고통 감내력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 특히 성인기의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 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국

내외 연구에서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경험회피와 외상 후 장애 증후군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철옥, 안현의, 2009; 최현옥, 손정락, 2011; Kearney et al., 2012; Mayer et al., 2013; 박모란 2013에서 재인용)는 있었으나, 경험회피와 외상 후 성장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했다는 데 그 연구가치가 있다.

둘째,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검증은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부정적 정서(불안, 우울등)를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일 때 경험회피의 대처 전략을 낮춤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을 그 구조적 관계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지하였고, 구체적으로 경험회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고통 감내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특정 직업군 그리고 집단 간의 비교 연구에 제한되었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과 성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성별의 비율이 남성은 39.9% 여성은 60.1%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토되지는 못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느낌, 감정, 경험, 집중한다는 연구(Eliastam et al., 1980),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성보다 남성은 상황을 회피 혹은 억압하거나(Tamres, Janicki, & Helgeson, 2002),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알코올을 더 선호한다는 선행연구(Nolen-Hoeksema & Harrell 2002; Park & Levenson 2002)와 남성은 주로 문제현실 회피, 부인, 기분전환 전략, 주위부산을 사용하였다는 점(Gavranidou & Rosner,

2003) 등을 고려해 볼 때, 추후연구에서는 고른 성별분포 표집, 성별에 따른 비교 등으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정교하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통 감내력, 외상 후 성장, 경험회피의 변인은 모두 자기 보고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수검자의 저항과 같은 기질적 특성, 검사시 상황 변인, 반응자의 태도 등이 반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검사뿐만 아니라 행동관찰, 면담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기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은 연령을 통해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연구 설계와 종단적 연구도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상의 경험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성인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외상경험을 생각했을 때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응답자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기를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2019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보험공단.
- 고아름 (2012). 수용-전념치료가 죽음관련 외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 수준 및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에서 2021. 10. 16. 인출.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희주 (2014). **고통 감내력, 분노반추와 역기능적 분노의 관계: 청소년과 성인 집단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에스터 (2015).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08).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탐색**.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하은 (2015). **고통 감내력이 마음챙김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미 (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모란 (2013). **경험회피, 정서중심 대처능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아 (2010).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감내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운 (2015). **사건중심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례 (2016). **고통 감내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 (2014). **외상후 부정적 인지와 외상후 성장자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철욱, 안연희 (2009).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0(4), 1891-1905.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 (2011). **심리적 강인성과 정서지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를 매개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 이영순 (2011). **심리적 강인성과 정서지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를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1231-1246.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계훈 (2014).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걱정증상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혜진 (2017). **고통 감내력과 불안민감성이 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와 섭식 기대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아 (200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김남희 (2013). **부모상실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가족과 가족치료**, 21(2), 177-201.
- 윤명숙, 박은아 (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61-89.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이훈진 (2009). **수용(Acceptance)이 심리적 증상,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9(1), 1-23.
- 임미라 (2017). **교사의 대인 관계적 외상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용서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전보람 (2012). **위협지각, 낙관성 및 삶의 의미감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철호, 현명호 (2003). 심리적 피로대 여성의 수치  
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  
리학회지: 임상, 224(4)**, 763-776.
- 정지현 (2015). **고통 감내력과 정신건강의 관계:  
주관적 · 행동적 고통감내력 우울 및 불안  
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현, 권석만 (2013). 고통 감내력과 심리적 건강  
의 관계: 탈중심화와 회피적대처의 매개효  
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  
gy, 32(3)**, 627-647.
- 지은혜, 조용래 (2009). 외상경험 대학생들의 외상관  
련 부정적 인지와 정서조절곤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  
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1), 286-287.
- 주상엽, 임성문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문제  
중심 대처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학연구**,  
17(2), 309-332.
- 최종현 (2015).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자기성찰,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중  
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옥, 손정락 (2011).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프로그램이 북한  
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회  
피 및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  
회지: 건강, 16(3)**, 469-482.
- 피슬빛 (2016).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정서조절 곤  
란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  
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노을 (2008). **외상 후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  
구: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중심  
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아름 (201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과 진  
로 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성과 경  
험회피의 매개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연주, 이민규 (2015).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회피성 신념과 경험회피의 조절효  
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93-211.
- 행정안전부 (2021). **2020 재난안전통계연보.** 행정  
안전부.
- Aldwin, D. M., Levenson, M. R., & Spiro III, A.  
(1994).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to com  
bat exposure: Can stress have lifelong eff  
ect? *Psychology and Aging, 9*, 34-44.
- Anestis, M. D., Selby, E. A., Fink, E. L., & Join  
er, T. E. (2007). The multifaceted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dysregulated eating b  
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  
isorders, 40*, 718-726.
- Baník, G., & Gajdošová, B. (2014). Positive chan  
ge following cancer: Posttraumatic growth i  
n the context of other factors in patients  
with cancer. *Supportive Care in Cancer, 22*  
(8), 1-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  
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  
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  
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1182.
- Billings, A. G., & Moos, R. H. (1981). The role o  
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  
al of Behavioral Medicine, 4(2)*, 139-157
- Briggs, E. S., & Price, I. R. (2009). The relations

- hip between advers childhood experience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beliefs: The role of anxiety, depres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8), 1037-1046.
-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8), 931-945.
- Eliastam, M., Rose, E., Jones, H., Kaplan, E., Kaplan, R., & Seiver, A.(1980). Utilization of diagnostic radiologic examination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of a teaching hospital.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20(1), 61-66
- Gavranidou, M., & Rosner, R. (2003). The weaker sex? Gender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17(3), 130- 139.
- Gross,J.J.,& Levenson,R.W.(1997).Hidingfeelings:T heacute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Hawkins ,K. A., Macatee ,R. J., Guthrie ,W., & Cogle, J. R. (2013).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distress tolerance, life stressors, and anger. *Cognitivet Herapyandresearch*, 37(3), 434-445.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Computer Software and Manual <http://www.afhayes.com/>.
- Hayes, S. C., Luoma, J. B., Bond, F. W., Masuda, A., & Lillis, J. (2006).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 1-25.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NY: Guilford Press.
- Hayes, S. C., Strosahl, K., Wilson, K. G., Bissett,R. T., Pistorello, J., Toarmino, D., McCurry, S. M.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 553-578.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
- Herman (199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to political terror*. NJ: Basic Books.
- Inversion, K. M., Follette, V. M., Pistrello, J., & Fruzzetti, A. E. (2012). An investigation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1152.
- 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Simon and Schuster.
- Kashdan, T. B., & Breen, W. E. (2007). Materialism and diminished well-being: Experiential avoidance as a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 521-539.
- Kashdan, T. B., & Kane, J. Q. (2011). Posttraumatic distress and the presence of posttraumatic growth and meaning in life: Expe

- ritional avoidance as a moder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1), 84-89.
- Kearney, D. J., McMermott, K., Malet, C., Martinez, M., & Simpson, T. L. (2012). Association of participation in a mindfulness program with measures of PTSD,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a veteran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1), 101-116.
- Lee, J. K., Orsillo, S. M., Roemer, L., & Allen, L. B. (2010). Distress and avoidance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Exploring the relationships with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worry.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9(2), 126-136.
- Leyro, T.M., Zvolensky, M. J., & Bernstein, A. (2010). Distress tolerance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and disorder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mong adults. *Psychological Bulletin*, 136(4), 576.
- Linehan,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Y: Guilford Press.
- Linley, P.,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Manne, S., Ostroff, J., Winkel, G., Goldstein, L., Fox, K., & Grana, G. (2004). Posttraumatic growth after breast cancer: Patient, Partner, and couple Perspectives. *Psychological Medicine*, 66(3), 442-454.
- Mathew G. Fetzner, Daniel L. Peluso, Gordon J. G. Asmundson (2014). Tolerating Distress After Trauma: Differential Associations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sychopathology and Behavior Assessment* 36(3), 475-484.
- Meyer, E. C., Morissette, S. B., Kimbrel, N. A., Kruse, M. I., & Gulliver, S. B. (2013).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scores as a predictor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mong war veteran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Feb 11, 2013, No Pagination Specified.
- Meyerson, D. A., Grant, K. E., Carter, J. S., & Kilmer, R. P. (2011). Posttraumatic growth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949-964.
- Micale, M. S., & Lerner, P. (2001). Posttraumatic growth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949-964.
- Mullance, C. N. (2011). *Distress Tolerance, Experiential Avoidance, and Negative Affec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Eating Behavior and B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Tennessee, Knoxville, Tennessee, USA.
- Nock, M. K., & Mendes, W. B. (2008). Physiological Arousal, Distress Tolerance, and Social Problem-Solving Deficits Among Adolescent Self-Injur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28-38.
- Nolen-Hoeksema, S., & Harrell, Z. A. (2002). Rumination, depression, and alcohol use: Tests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4), 391-403.
- Park, C. L., & Levenson, M. R. (2002). Drinking to cope among college students: prevalence, problems and coping process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4), 486-497.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Park, C. L., & Helgeson, V. S.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1 - 796.
- Shearing, V., Lee, D., & Clohessy, S. (2011). How do clients experience reliving as part of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4, 458-472.
-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 83-102.
- Tamres, L. K., Janicki, D., & Helgeson, V. S. (2002). Sex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and an examination of relative co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 2-30.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2.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93-102.
- Yalom, I. D., & Lieberman, M. A. (1991). Bereavement and 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Psychotherapy*, 54(4), 334-345.
- Wenzlaff, R. M., & Luxton, D. D. (2003). The role of thought suppression in depressive rumin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 293-308.
- Wenzlaff, R. M., & Wegner, D. M. (2000). Thought sup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59-91.
- Williams, A. D. (2012). Distress tolerance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compulsive acquisition behaviour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4, 217-224.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9월 12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10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10월 29일

##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hood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Jeong, Mi Young

Ha, Young Yoon

Daybreak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distress tolerance, post-traumatic growth, and experience avoidance. Also,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677 adult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611 copies of data were used f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distress tolerance, experience avoid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each of the sub-factors (experience and 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negative correlation with distress tolerance and experience avoidance,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 avoid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experience avoidance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other hand, when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ub-factors of experience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was confirmed among the sub-factors and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of acting as other sub-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shown in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achieve post-traumatic growth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Distress tolerance, Experience avoidance, Post-traumatic growth*

# 「부부가족상담연구」 발간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가족상담 관련 분야 학과 교수 및 상담관련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 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의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제14조(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 제 17조(심사기준)

-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②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 ③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2.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3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후 게재가 |
| 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5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6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 7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8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9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 10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1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12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 13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14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5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 16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7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8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9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5.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수정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 위원에게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

- 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⑦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9조(심사결과와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회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 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장 논문심사

**제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필요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투고규정 준수정도
7. 논문체제의 적합성

**제10조(심사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2>의 원칙에 의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 제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적어도 1인은 정회원 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원고의 종류)** 투고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OO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학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완료되어 논문이 정식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제한)** 한 호에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논문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학회지 발간 및 접수)** 학회지는 5월(1호)과 10월(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회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3조(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심사 판정 체제 |         |         |         |          |
|------------------------|---------|---------|---------|----------|
|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심사 결과 판정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3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가  |
| 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5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6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 7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8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9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 10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1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12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 13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14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5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 16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7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8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9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붙임2>

| 「부부가족상담연구」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제 |                                                                                                                  |
|----------------------------|------------------------------------------------------------------------------------------------------------------|
| 이의 신청<br>범위 및 방법           |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 이의 신청<br>1차 처리 방법          |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                                    |
| 이의 신청<br>최종 처리 방법          |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

## 「부부가족상담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1.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이다. 상세한 것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 투고안내 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수시로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로 논문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논문 작성은 HWP(한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논문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사항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 ① 원고제출시 1단. 게재확정 후(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으로 제출).
  - ② 편집용지: A4규격(210 × 297 mm) 세로용지
  - ③ 용지 여백 : 위쪽 35 mm, 아래쪽 35 mm, 좌측 30 mm, 우측 30 mm,  
머리말 12 mm, 꼬리말 13 mm  
용지 방향: 좁게
  - ④ 문단모양: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⑤ 마침표 다음: 한 칸 띄울 것(두 칸이 아님)
  - ⑥ 논문 제목: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⑦ 저자: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⑧ 소속: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⑨ 국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 ⑩ 주요어: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 ⑪ 본문: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 ⑫ 본문제목 1단계: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부록'):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문제목 2단계: 중고딕 11호, 진하게, 양쪽 정렬  
본문제목 3단계: 신명조 10호, 양쪽 정렬, 들여쓰기 8
  - ⑬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내어쓰기 30
  - ⑭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5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⑮ 영문초록 저자: 신명조 10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⑯ 영문초록 소속: 신명조 9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⑰ 영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 ⑱ 영문초록 key word: 중고딕 9호, 기울기,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위 15

⑨ 각주, 저자 주, 표 및 그림의 주: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주(중고딕 9호)라고 시작하고, 붙여서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어서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⑩ 표제목, 그림제목: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표 작성의 줄긋기: 표에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 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 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 줄만 사용,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굵은 선(0.25mm)으로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0.12 mm)을 사용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인용문, 그림, 표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제정한 연구진실성 심사운영세칙에 위배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에 게재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 및 저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논문의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저자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논문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
  -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상담관련등재학회지: 상담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다.
7.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다.
8. 제출된 논문은 학회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기로 한 논문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험적 연구논문의 형식은 서론(제목 없이),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서론 앞부분에 제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11.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동일저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인 경우에 한해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논문전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연구 논문은 120-150 단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이내로 표기한다.
1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 로(graph의 경우 좌표 값의 명기) 제시한다.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써 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

림 1에서..., 표 1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다.

14.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어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성봉(2018)은

(예 2) 오제은(2016: 15)은..., (2016년도 문헌의 페이지 15)

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 ; )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제은, 2016: 18).

(예 2) 한 연구(오제은, 2009; Haville Handrix, 2004; Rick Brown, 2009)에 의하면...

라. 저자가 1~2인인 경우

괄호안에 제시 ... (천성문, 함경애, 2017), (Haville & Hellen, 2020)

본문속에 참조 ... 천성문과 함경애(2017)는... , Haville과 Hellen(2020)은...

마. 저자가 3인 이상 5인이하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시하되 첫 인용에는 모두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1) 첫 번째 인용

괄호안에 제시 ... (천성문, 함경애, 박은아, 2017), (Haville, Hellen, & Handrix, 2020)

본문속에 참조 ... 천성문, 함경애와 박은아(2017)는..., Haville, Hellen과 Handrix(2020)는...

(2) 반복 인용

괄호안에 제시 ... (천성문 외, 2017), (Haville et al., 2020)

본문속에 참조 ... 천성문 등(2017)은..., Haville 등(2020)은...

바. 저자가 6인이상인 경우

(1) 첫 번째 인용

공저자 6인까지 제시하거나 처음 사람만 기재해도 됨(천성문 외, 2017),

(2) 반복 인용

3인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15. 참고문헌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5ed.)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이지영 (2015).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서울: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오제는 (2009).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수준과 부부관계 적응. **상담학연구**, 10(2),1217-1228.
  - 학위논문의 경우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김이해 (2008). **현대 한국가족 문화와 부부 및 가족상담**. 김유리(편), 111-121.
  -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오제는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와 세계적 동향.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14-229). 서울: 한국심리학회.
  - 신문기사의 경우  
동아일보(2001. 9. 23).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19면.
  -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①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 ...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e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 ②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 8. 8 인출.
  - ④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 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매일신문 (2020). 방탄소년단 뷔 솔로곡 'Inner Child'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 메시지. 2020. 02. 24. <http://news.imaeil.com/Entertainments/2020022410013569691>.
-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McMillan, J. H. (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② 편집된 책의 경우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Wells, A.S.(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단,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쪽수도 함께 표기한다.

- ③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는다.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

[예: Rogers, C. R. (1980/2007).].

Rogers, C. R.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는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0년에 출판)

- ④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출판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 중에 있는 경우 출판연도 대신 (inpress)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Diener, Marc J., &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3), 237-248.

- ⑤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 기관 명 순으로 한다.

가)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Smith, J.E.(2008).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Hobbes Research Center.

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조직이나 기관명이 저자명이 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⑥ 미출판된 박사(석사)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Adelmann, P.K.(1989). *Emotional labor of employee well-be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⑦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가) 출판된 자료: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Deci, E.L., & Ryan, R.M.(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Dienstbier, 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나) 미출간된 자료

Byun, S.Y., & Kim, K.K.(2007). Cultural activiti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PISA 2000.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Balimore, USA.

⑧ 신문기사: 게재면과 출판 연월일을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간행물과 동일하다.

Mayer, C.E.(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p. E2, E3.

⑨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National wage data.(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 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http://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

16. 영어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6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15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12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부부가족상담연구」 연구윤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제14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작·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 제18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19조(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1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회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7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3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 1.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4조(변론의 권리 및 이익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익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익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36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율을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38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회원가입

※ 제공하신 정보는 회원 지원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1. 본인 확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2.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자택 주소, E-mail 주소
3. 회원의 전문성 확인 이용: 학위 관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회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며 삭제요청시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실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하여 주시고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및 활동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회원 가입 절차

- (1)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kacfc.or.kr]
- (2) 학회 회원가입 입회비와 가입비 납부 [입금방법: 성명+생년월일 기재]
- (3) 확인 후 회원승인

## ■ 회원 가입 자격 요건

- (1) 본 학회 창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준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 (2) 학회 평생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의 평생회원 가입 신청서를 안내드립니다.

## ■ 회비 및 계좌번호

| 구분   |                                              | 입회비 | 연회비 |
|------|----------------------------------------------|-----|-----|
| 전문회원 | 부부·가족상담 관련 박사학위 소지 또는<br>한국가족상담협회 수련감독자격 유지자 | 2만원 | 5만원 |
| 정회원  | 부부·가족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 또는<br>한국가족상담협회 1급 자격 유지자  | 2만원 | 3만원 |
| 준회원  | 부부·가족상담 관련 학사학위 소지                           | 2만원 | 2만원 |

※ 처음 가입 하시는 분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회원승인 처리가 됩니다.

※ 계좌번호: 국민은행, 231401-04-287068,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 ■ 문의처

학회 사무국: E-mail: kacfc2019@gmail.com , TEL: 070-7475-3957